



# CHAPTER 3

## 국내 마약류 범죄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2022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제3절. 마약류범죄 현황 분석

제4절. 마약류사범 처분 및 선고 현황 분석

제5절.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범 현황 분석

# 1 개요

2022 마약류 범죄백서

## 1 대상 기간 및 자료 출처

- ▶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 자료 : 검찰통계시스템상의 마약 사건통계 및 유관기관 통계 자료
  - ※ 구성비(%)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2 범죄유형

- ▶ 마약류 밀조,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밀수·밀매 행위
- ▶ 마약류의 투약·소지 및 불법사용 행위
- ▶ 마약류 취급자의 관계법령 위반 행위

# 2 2022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 1 2022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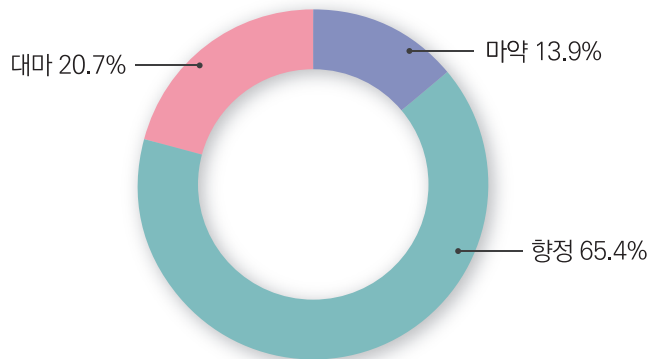
[표 3-1] 2022년 마약류별 단속 현황

마약류	구분	건수	합계(명)	인원(명)	
				구속	불구속
합계		14,696	18,395(100)	2,196	16,199
마약		2,227	2,551(13.9)	80	2,471
향정		9,465	12,035(65.4)	1,882	10,153
대마		3,004	3,809(20.7)	234	3,575

※ ( )는 구성비 %

- ▶ 202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은 18,395명으로 전년(16,153명) 대비 13.9% 증가함
  - 마약사범은 2,551명으로 전년(1,745명) 대비 46.2% 증가
  - 향정사범은 12,035명으로 전년(10,631명) 대비 13.2% 증가
  - 대마사범은 3,809명으로 전년(3,777명) 대비 0.8% 증가

[그림 3-1] 전체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단속 구성비



[표 3-2] 2022년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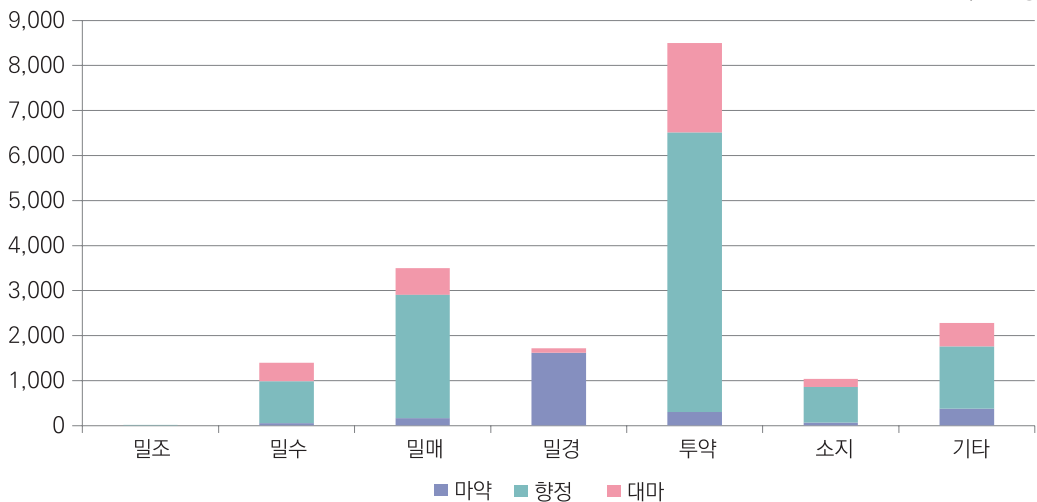
마약류 \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점유율)	4 (0.0)	1,392 (7.6)	3,492 (19.0)	1,714 (9.3)	8,489 (46.1)	1,032 (5.6)	2,272 (12.4)	18,395 (100)
마약	0	51	162	1,613	293	63	369	2,551
향정	4	924	2,735	0	6,208	787	1,377	12,035
대마	0	417	595	101	1,988	182	526	3,809

※ ( )는 구성비 %

- ▶ 마약류 범죄 유형별로는 투약사범이 8,489명으로 전년도(8,522명) 대비 3.8% 감소하였으나, 전체 마약류사범의 46.1%(전년도 52.8%)를 점유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 밀조·밀수·밀매사범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전년도(4,045명) 대비 20.9% 증가하여, 전체 마약류사범의 26.6%(전년도 25.0%)를 차지함

[그림 3-2] 전체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명)



[표 3-3] 2022년 청별 단속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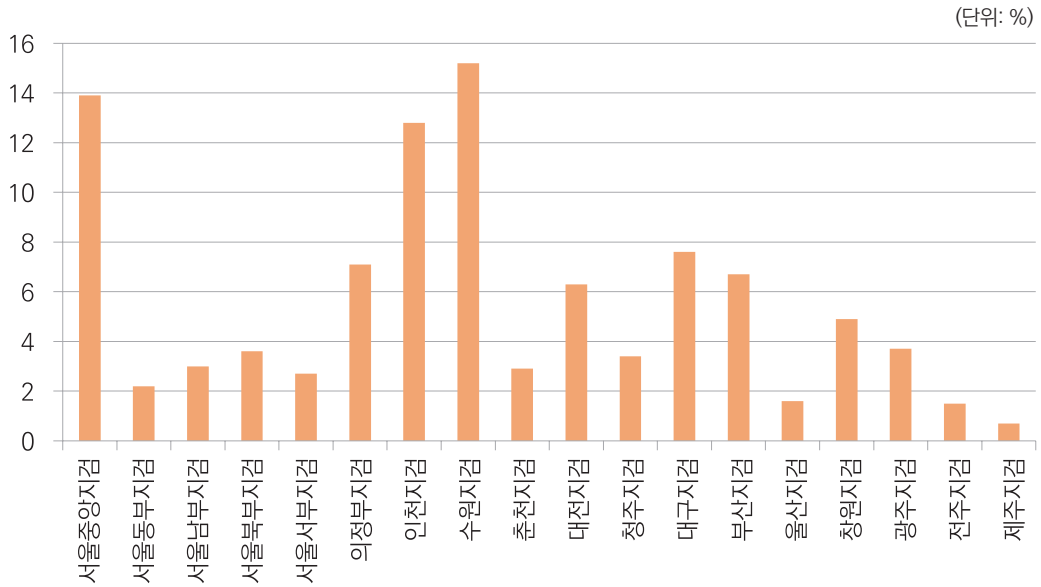
청별	구분	2021		2022		증감률 (%)
		사범수	구성비	사범수	구성비	
합계		16,153	100	18,395	100	
서울중앙지검		2,381	14.7	2,557	13.9	7.4
서울동부지검		428	2.6	397	2.2	-7.2
서울남부지검		518	3.2	553	3.0	6.8
서울북부지검		534	3.3	662	3.6	24.0
서울서부지검		468	2.9	499	2.7	6.6
의정부지검		1,003	6.2	1,315	7.1	31.1
인천지검		2,231	13.8	2,360	12.8	5.8
수원지검		2,850	17.6	2,808	15.2	-1.5
춘천지검		362	2.2	542	2.9	49.2
대전지검		832	5.2	1,158	6.3	39.1
청주지검		496	3.1	625	3.4	26.0
대구지검		1,170	7.2	1,405	7.6	20.0
부산지검		1,032	6.4	1,235	6.7	19.7
울산지검		224	1.4	300	1.6	33.9
창원지검		619	3.8	895	4.9	44.6
광주지검		695	4.3	675	3.7	-2.9
전주지검		244	1.5	285	1.5	16.8
제주지검		66	0.4	124	0.7	87.9

※ 지검 실적에 관내 지청분 및 경찰 송치분 포함

▶ 청별 단속 점유율

- 재경지검(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25.4% > 수원지검 15.2% > 인천지검 12.8% > 대구지검 7.6% > 부산지검 6.7% 순
- 전체 마약류사범의 60.6%(전년도 64.5%)가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

[그림 3-3] 청별 마약류사범 단속 구성비



[표 3-4] 2022년 월별 단속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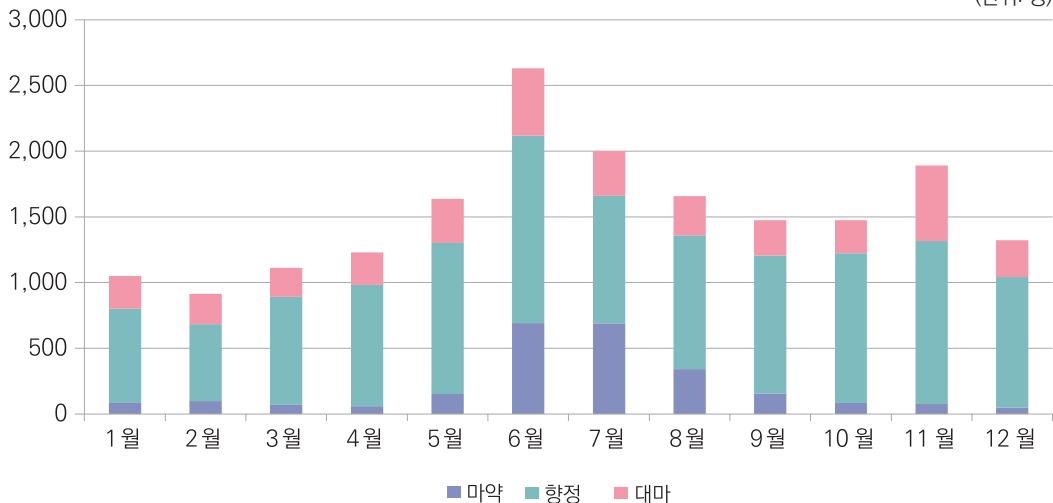
(단위: 명)

월별	구분	구분				합계/구성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2,551	12,035	3,809	18,395	100
1월		84	718	248	1,050	5.7
2월		98	585	231	914	5.0
3월		69	822	222	1,113	6.0
4월		60	923	247	1,230	6.7
5월		152	1,150	336	1,638	8.9
6월		691	1,427	512	2,630	14.3
7월		689	971	340	2,000	10.9
8월		341	1,019	298	1,658	9.0
9월		157	1,048	270	1,475	8.0
10월		84	1,139	251	1,474	8.0
11월		76	1,240	575	1,891	10.2
12월		50	993	279	1,322	7.2

▶ 월별 단속실적 점유율은 6월(14.3%) > 7월(10.9%) > 11월(10.2%) 순

[그림 3-4] 마약류사범 월별 단속 추이

(단위: 명)





# 3 마약류범죄 현황 분석

## 1 역대 마약류사범 현황

[표 3-5]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마약류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2,613 (-10.7)	16,044 (27.2)	18,050 (12.5)	16,153 (-10.5)	18,395 (13.9)
마약	1,467 (-0.5)	1,804 (23.0)	2,198 (21.8)	1,745 (-20.6)	2,551 (46.2)
향정	9,613 (-12.0)	11,611 (20.8)	12,640 (8.9)	10,631 (-15.9)	12,035 (13.2)
대마	1,533 (-11.2)	2,629 (71.5)	3,212 (22.2)	3,777 (17.6)	3,809 (0.8)

※ ( )는 증감률 %

### ▶ 2010년 이전

- 마약류사범은 1999년도 처음으로 연간 1만명을 돌파한 이후, 2002년도까지 매년 1만명을 상회하다가 2002년 필로폰 밀수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10개 조직, 224명 적발)으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년간 연간 7천명 대로 감소함

### ▶ 2010년대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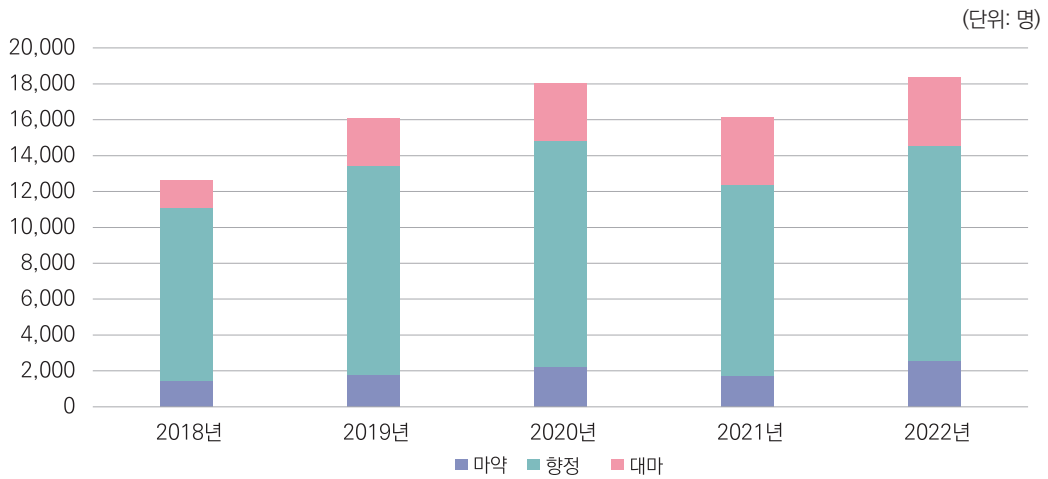
-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는 매년 1만명 미만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에 다시 연간 1만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 2021년도에 적발 인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18,39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이는 최근 인터넷(다크웹)·SNS(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늘어난 것과 2021년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검찰의 마약류 범죄 직접 수사 범위 축소가 원인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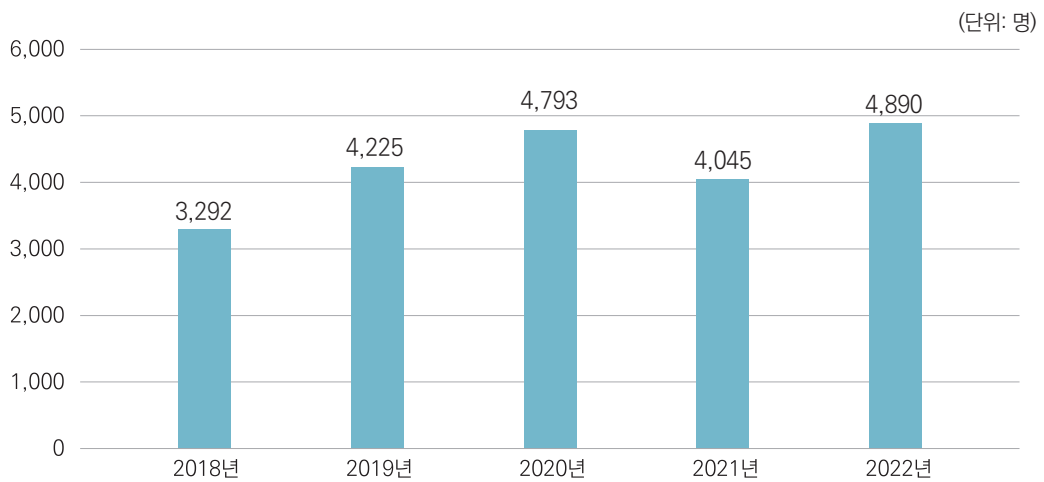
### ▶ 마약류별 적발 현황

- 마약사범
  -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간 700여 명 수준이었으나, 2015년도 1,000명을 돌파하였고,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도에는 2,198명을 기록한 이후, 2021년도 1,745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22년 2,551명으로 급증
- 향정사범
  -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8,000명 이하로 적발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 2016년도 처음 1만명을 돌파하고, 2018년도 9,613명으로 소폭 감소함. 그러나 2019년도 11,611명, 2020년도 12,640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2021년도에 10,631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2년 12,035명으로 증가
  - 향정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로 1995년 점유율이 최초 50%를 상회하기 시작한 이래, 최근 5년간(2018년도 76.2%, 2019년도 72.4%, 2020년도 70.0%, 2021년도 65.8%, 2022년도 65.4%)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대마사범
  - 2019년도에 2,629명을 기록하여 최초 2천명을 돌파한 이후, 2020년도에 3,212명, 2021년 3,777명, 2022년 3,809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특히 2021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사범이 감소하였음에도 대마 사범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등의 대마 합법화 추세에 따라 여행자, 유학생 등이 대마 관련 제품 등을 밀수하거나 흡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이를 집중 단속한 결과

[그림 3-5] 마약류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그림 3-6] 마약류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 단속인원



## 2

## 마약류 압수 현황

[표 3-6]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압수 현황

마약류	구분	품명	단위	2020	2021	2022
마약		양귀비	주	174,250.00	114,667	118,420
		생아편	g	187.00	8.25	0
		헤로인	g	8.81	1,213.29	35.79
		코카인	g	47,948.00	435,741	261.22
		기타 <sup>1</sup>	g	126.00	2267.18	2,267.18
향정		메트암페타민	g	64,114.00	569,866	175,351.32
		MDMA	g	11,914.00	11,894	42,179.97
		YABA	g	22,786.00	50,137	167,602.22
		LSD	g	23.00	52	47.54
		JWH-018 및 그 유사체	g	3,166.00	18,747	55,693.48
		기타 <sup>2</sup>	g	74,859.00	76,375	175,307.88
대마		대마	주	1,326.00	3,429	1,078
		대마초	g	37,333.00	91,240	79,300
		대마종자	g	5,923.00	922	1,556.9
		대마수지 (해시시)	g	3,086.00	145	1,412.5
		기타 <sup>3</sup>	g	49,932.00	36,945	103,501.18

- 2022년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804.5kg으로 전년 대비(1,295.6kg) 37.9% 감소하였으나, 두건의 단발성 압수실적<sup>4</sup>을 제외하면 오히려 63.9% 증가하여 마약류 압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sup>1</sup> 양귀비종자,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등

<sup>2</sup> 지에이치비(GHB), 졸피뎀, 알프라졸람, 프로포폴, 알킬 니트리트류 (isobutyl nitrite 등), 페노바르비탈, 케타민 (Ketamine), 사일로신(Psilocyn), 암페타민 등

<sup>3</sup> 대마오일, 대마카트리지, 대마쿠키, 대마캐러멜, 대마젤리, 대마크림, 대마캔디 등 대마제품

<sup>4</sup> 2021. 7. 필로폰 404.23kg 및 2021. 10. 코카인 400.418kg

### 가. 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 밀조

- 1990년대 초반 검찰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밀조사범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제조기술자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도피하여 그 이후 국내 밀조사례는 거의 적발되지 않아 국내에서 제조사범은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반의약품 등을 이용한 제조방법을 배워 소량을 제조하는 사례들이 적발됨

[표 3-7] 최근 5년간 메트암페타민 제조사건 현황

(단위: g)

연도별	구분	건수	제조량		원료물질 압수량 [에페드린]
			완제품	반제품	
2018		2	0	660	0
2019		2	1,320.67	2,280	0
2020		3	1.8	0	0
2021		2	1,556	0	0
2022		3	8		2,561

- 2010년대 이전
  - 2006년과 2007년 각 1건씩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제조 사례 적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원료가 함유된 감기약 등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거나 약국 등에서 구입한 후 그 약품에서 추출한 원료 성분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제조
- 2010년
  - 외국인 선원이 원료성분이 함유된 감기 알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 화학박사 학위 소유자가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원료성분을 이용하여 신공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 모 대학교 화학과 교수가 원료 성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gamma$ -Hydrxide Butyrolactone, 일명 '물뽕')를 제조

### ▶ 2011년

-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염산에페드린 약 10kg을 매입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고 예비

### ▶ 2012년

- 인터넷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법을 습득하여 원료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 적발
- 회사원이 인터넷을 통해 제조법을 습득하여 원료물질인 GBL을 구입하여 GHB를 제조
- 학원강사가 원료물질 등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GHB를 제조하다 미수에 그침

### ▶ 2013년

- 마약전과자가 인터넷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법을 습득하여 원료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 적발
-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명의로 마약류 원료물질을 주문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GHB를 제조하다 미수에 그침
-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한 자가 원료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제조
- 호주 국적의 메트암페타민 제조기술자가 감기약에서 원료성분을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2kg을 제조
- 가정집에서 약 4개월간 총 17회에 걸쳐 감기약에서 원료성분을 추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34g을 제조

### ▶ 2015년

- 감기약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8.5g을 제조
- 주거지에 제조시설을 갖춰 놓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15g을 제조
-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술 미숙으로 미수에 그침
- 조직폭력배 출신 마약사범이 6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15g을 제조
- 자신의 집에 메트암페타민 제조시설을 갖추어 놓고 메트암페타민 제조를 시도 하였으나 원료 구입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여 예비에 그침

▶ 2016년

- 메트암페타민 원료 물질인 메틸에페드린이 함유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 '에페드린' 주사액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다 미수에 그침
- 인터넷 검색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제조 방법을 습득하고 부친 운영 공장에 제조 시설을 갖춰놓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200g을 제조

▶ 2017년

- 주택가에 목공예장으로 위장한 메트암페타민 제조시설을 갖추고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500g을 제조
-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 제조에 그침
- 대학 실험실에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13g을 제조

▶ 2018년

- 서울 소재 영세 공장에 메트암페타민 제조시설을 갖추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제조 기술 미숙으로 미수에 그침
- 중국인 기술자를 고용하여 지방 소재 폐가에 필로폰 제조시설을 갖춰놓고 마황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한 후 메트암페타민 제조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 2019년

- 서울 소재 호텔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공업용 아세톤, 숯 등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3.6kg(완제품 약 1.32kg, 반제품 약 2.28kg)을 제조
- 대구 소재 주택가에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0.67g(완제품, 순도 66.6%)을 제조하여 판매

▶ 2020년

-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에 아세톤 등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1.8g 제조
- 주거지에서 에페린, 염산 등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정제과정 단계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 원료 구입, 자금 조달, 기술 습득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산둥성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구가 폭발하는 바람에 제조 미수에 그침

#### ▶ 2021년

-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메트암페타민에 아세톤, 디에틸에테르 등을 첨가하는 정제과정을 거쳐 메트암페타민 656g을 제조
- 구미 소재 원룸에서 감기약을 이용하여 필로폰 900g을 제조

#### ▶ 2022년

- 서울 소재 음식점 지하창고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과 질산암모늄, 수산화나트륨 등을 다량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약 8g을 제조 (서울북부지검)
- 충북 소재 상가 건물에 제조시설을 구비하고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약품 및 화공도구를 이용하려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기술 미숙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침(부산지검)

### 나. 다크웹 판매 목적 대마 재배

- ▶ 주거지, 상가 등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어두고 대마를 재배하여 다크웹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 이에 검찰은 2018년 다크웹 전담 수사팀을 설치·운영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하여 많은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2021년 수사권 조정의 여파로 밀수사범 외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해체

#### ▶ 2018년

딥 웹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의 유명 판매상인 ‘OO킹’ 일당 3명이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마 재배시설을 갖춰 놓고 다량의 대마를 재배한 후, 200회 이상 판매광고를 통해 약 5개월간 합계 1억 2천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



---

▶ 2019년

딥 웹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 'OO코리아'에 대마 판매 광고를 함과 동시에, 창고 건물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춰놓고 대마를 재배한 다음 약 5개월간 합계 9천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사건, 트위터 등에 총 42회 대마 및 엑스터시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직접 재배한 대마를 판매한 일당이 적발

▶ 2020년

2020년도에는 경기도 OO시에 있는 약 30평 2층 건물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한 후 딥 웹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 'OO코리아' 및 'OO숍'에 712회에 걸쳐 3억 8,200만 원 상당 대마 5.6kg을 판매한 사례(대마 약 3.4kg 압수), 대마사범 주거지에서 재배한 대마와 캐나다에서 밀반입한 대마 농축액을 공범에게 제공하여 대마카트리지로 제조하게 하고, 다크웹 'OO코리아'에 판매 광고하여 대마를 판매한 사례(대마 농축액 514g 및 대마카트리지 69개 압수)

## 4

## 외국산 마약류 밀반입 현황

[표 3-8] 최근 5년간 주요 마약류 밀반입 현황<sup>5</sup>

(단위: g)

마약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건	반입량
합계		250	292,405 (272,081)	312	234,328 (234,328)	280	131,068 (130,525)	243	1,016,108 (1,012,661)	272	369,935.1
코카인		16	88,301 (88,301)	11	105,803 (105,803)	18	47,438 (47,438)	9	435,720 (435,600)	3	55.39
헤로인		1	1.93 (1.93)	0	0 (0)	2	4.54 (4.54)	0	0 (0)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62	193,240 (171,165)	81	70,626 (70,626)	95	45,365 (45,149)	84	502,905 (502,083)	66	134,680.49
엑스터시 (MDMA)		68	1,842 (1,752)	63	2,623 (2,623)	52	6,817 (6,742)	36	5,383 (5,383)	61	34,964.2
LSD		26	11 (11)	51	27 (27)	26	18.5 (18.3)	33	46 (41)	28	18.43
YABA		17	7,934 (7,934)	36	13,330 (13,330)	28	13,776 (13,776)	25	49,469 (49,469)	34	141,401.55
대마초		55	30,924 (30,924)	57	39,131 (39,131)	45	13,493 (13,241)	35	11,997 (11,997)	46	12,933.67
대마수지 (해시시)		2	25 (25)	11	2,673 (2,673)	11	3,056 (3,056)	4	5.4 (5.4)	5	2,212.10
JWH-018 및 그 유사체		4	439 (439)	2	115 (115)	3	1,100 (1,100)	17	10,583 (8,083)	29	43,669.27

※ ( ) 는 압수량

- ▶ 2022년도 외국산 주요 마약류 밀반입량은 370kg으로 전년(1,016.1kg) 대비 63.6% 감소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단발성 대량 밀수입 사건 2건(2021. 7. 필로폰 404.23kg 및 10. 코카인 400.418kg) 포함된 건으로 최근 5년사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 가장 많이 밀반입되는 마약류는 아바 > 메트암페타민 > JWH 계열(합성대마) > MDMA 등으로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이 밀반입되고 있음

<sup>5</sup> 단속기관에서 압수한 마약류와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만 실제 압수되지 않은 마약류 포함. 마약류 출처(발송국가)가 확인된 경우만 집계하여 전체 마약류 압수량과 차이가 날 수 있음

[표 3-9] 국가별 마약류 밀반입 현황

(단위: g)

마약류별	구분	국가별	2020			2021			2022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멕시코				1	404,230	404,230	3	8,284.45	8,284.45
		미국	11	18,155	18,155	18	44,336	44,336	17	38,703.65	38,703.65
		태국	43	10,805	10,805	45	29,462	29,462	13	16,914.24	15,643.75
		말레이시아	7	3,616	3,616	4	12,440	12,440	1	2,979.82	2,979.82
		라오스	3	3,168	3,168	4	4,254	3,432	21	45,614.79	45,614.79
		캄보디아	8	4,640	4,523	2	2,485	2,485	1	215.84	215.84
		대만	1	44	44						
		베트남	3	88	88	5	3,929	3,929	2	2,393.25	2,393.25
		독일	4	4,113	4,113						
		영국	5	10	10						
		카타르							1	9,993.53	9,993.53
		파키스탄				1	1,100	1,100			
		필리핀	3	204	104	2	553	553			
		남아프리카공화국	1	502	502				1	3,707.49	3,707.49
		캐나다	1	2	2						
		필리핀							2	1,336.56	1,336.56
		우간다							1	3,525.87	3,525.87
		중국	1	1	1	1	44	44			
		네덜란드	2	3	3	1	73	73	2	1,001.21	1,001.21
		호주	2	14	14						
	인도네시아							1	9.79	9.79	
	소계	95	45,365	45,149	84	502,905	502,083	66	134,680.49	133,410	
코카인		페루				1	400,418	400,418			
		콜롬비아				3	35,090	35,000			
		브라질	1	47,000	47,000						
		미국	5	380	380	3	142	142			
		네덜란드	8	24	24	2	70	40	1	4.93	4.93
		영국	2	25	25				1	2.48	2.48
		호주	1	5	5						
		태국	1	4	4						
		미국							1	47.98	47.98
		소계	18	47,438	47,438	9	435,720	435,600	3	55.39	55.39
헤로인		네덜란드	2	5	5						
		소계	2	5	5						
크라툼		미국	1	15	15	1	180	180	1	396	396
		소계	1	15	15	1	180	180	1	396	396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20			2021			2022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대마수지 (해시시)	네덜란드	3	2,283	2,283	3	3	3			
	미국				1	2	2	1	2,040	2,040
	캐나다	2	526	526				1	3.5	3.5
	우크라이나	1	200	200						
	영국	2	32	32				1	35.07	35.07
	베트남	1	1	1						
	프랑스	1	11	11				1	60	60
	독일							1	73.53	73.53
	스위스	1	3	3						
	소계	11	3,056	3,056	4	5	5	5	2,212.1	2,212.1
MDMA (엑스터시)	독일	4	4,143	4,143	4	1,658	1,658	11	8,781.02	8,781.02
	미국	15	1,258	1,238	8	295	295	9	1,149.91	1,149.91
	네덜란드	21	667	667	12	873	873	18	7,079.63	6,914.63
	베트남	4	322	268	3	1,336	1,336	8	2,483.26	2,483.26
	폴란드				1	1,003	1,003			
	영국	2	94	94				1	1,396.56	1,396.56
	캐나다	1	1	1	1	168	168			
	벨기에	1	195	195				1	165.66	165.66
	호주	2	101	101				1	27.11	27.11
	라오스							1	685.08	685.08
	태국				5	6	6	3	293.04	293.04
	말레이시아	1	42	42						
	스페인							1	2.97	2.97
	프랑스	1	3	3	1	31	31	7	12,899.96	12,899.96
	싱가포르				1	13	13			
	일본	1	3	3						
	소계	53	6,829	6,755	36	5,383	5,383	61	34,964.2	34,799.2
케타민	독일	3	124	124	3	2,292	2,292	5	3,425.97	3,425.97
	미국	8	606	606	5	788	788	4	6,275.59	6,275.59
	태국				1	494	494	5	1,054.21	1,054.21
	베트남	4	268	268				6	2,709.55	2,709.55
	말레이시아	1	255	255						
	네덜란드	3	10	10	6	128	128	10	2,570.53	2,370.53
	룩셈부르크							1	1,483.49	1,483.49
	영국				2	111	111	4	560.65	560.65
	프랑스				1	106	106	4	4,967.31	4,967.31
	싱가포르				1	69	69			
	캐나다	1	10	10				1	497.42	497.42
	소계	20	1,273	1,273	19	3,987	3,987	40	23,544.72	23,344.72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20			2021			2022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YABA (야바)	태국	25	13,189	13,189	20	34,552	34,552	19	75,385.86	74,811.94
	라오스				4	14,801	14,801	15	66,015.69	66,015.69
	말레이시아	1	323	323						
	중국	1	198	198						
	캄보디아	1	66	66						
	미국				1	116	116			
	소계	28	13,776	13,776	25	49,469	49,469	34	141,401.55	140,827.63
JWH-018 및 그 유사체 (합성대마)	베트남	2	645	645	12	9,990	7,490	21	25,917.62	18,939.72
	미국							2	993.83	983.83
	영국	1	455	455				1	7,964.46	7,964.46
	싱가포르				2	199	199			
	필리핀				1	160	160			
	네덜란드				1	148	148	3	8,032.61	8,032.61
	말레이시아				1	85	85	2	760.75	760.75
	소계	3	1,100	1,100	17	10,583	8,083	29	43,669.27	36,681.37
메틸페니데이트	네덜란드	1	3	3				1	17.82	17.82
	미국							1	3.96	3.96
	소계	1	3	3				2	21.78	21.78
사일로신	스위스				2	225	225			
	네덜란드							2	5.32	5.32
	영국	1	33	33						
	베트남	0	0	0						
	미국	2	5	5				1	7.15	7.15
	캐나다	2	1	1	1	3	3			
	독일							1	39.82	39.82
	소계	5	39	39	3	228	228	4	52.29	52.29
GHB	중국	1	28,800	28,800						
	미국	1	388	388						
	소계	2	29,188	29,188						
알프라졸람	중국	2	374	374						
	일본	2	99	99	1	59	59			
	캐나다	1	5	5	1	129	129			
	태국	1	17	17	1	93	93			
	카타르							1	205.26	205.26
	대만	2	38	38						
	베트남	1	29	29						
	미국				1	1	1	2	146.19	146.19
	소계	9	562	562	4	282	282	3	351.45	351.45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20			2021			2022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에티졸람	일본	8	463	463	5	339	339			
	태국				1	109	109			
	미국				1	20	20	1	63.86	63.86
	소계	8	463	463	7	467	467	1	63.86	63.86
졸피뎴	일본	11	216	216	3	26	26			
	미국	1	10	10	3	83	83	4	189.09	189.09
	프랑스	1	66	66						
	캄보디아							1	8.91	8.91
	대만	1	9	9	1	10	10			
	캐나다	1	4	4						
	네덜란드	1	2	2						
	소계	16	307	307	7	119	119	5	198	198
디아제팜	태국	2	92	92						
	중국	1	50	50						
	홍콩				1	69	69			
	소계	3	142	142	1	69	69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미국							1	4.95	4.95
	우크라이나	1	23	23						
	소계	1	23	23				1	4.95	4.95
클로나제팜	네팔				1	167	167			
	일본	1	7	7	3	237	237			
	캐나다				1	158	158			
	미국				1	85	85	1	40	40
	대만				1	59	59			
	카타르							1	295.35	295.35
	태국	1	20	20	1	16	16			
	이탈리아	1	33	33						
	인도네시아	1	33	33						
	소계	4	93	93	8	723	723	2	335.35	335.35
로라제팜	태국	3	79	79	1	528	528			
	중국	2	100	100				1	112.20	112.20
	대만				1	112	112			
	베트남	1	19	19	1	88	88			
	일본	1	20	20	2	59	59			
	미국	1	20	20				1	5.28	5.28
	캐나다	1	9	9						
	네팔	1	7	7						
	소계	10	254	254	5	788	788	2	117.48	117.48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20			2021			2022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브로마제팜	일본				2	19	19			
	영국							1	33	33
	소계				2	19	19	1	33	33
트리아졸람	일본	5	64	64						
	미국				2	12	12			
	소계	5	64	64	2	12	12			
브로티졸람	일본	3	173	173	3	89	89			
	소계	3	173	173	3	89	89			
클로티아제팜	일본	2	134	134	1	59	59			
	소계	2	134	134	1	59	59			
플루니트라제팜	일본	7	138	138	5	86	86			
	네덜란드	1	1	1						
	소계	8	139	139	5	86	86			
코데인	미국							1	40	40
	카타르							1	44.55	44.55
	소계							2	84.55	84.55
암페타민 및 이성체	미국	1	30	30				2	45.54	45.54
	네덜란드	1	2	2	1	10	10			
	독일							1	54.57	54.57
	프랑스				1	7	7	1	10.79	10.79
	영국				1	6	6	1	45.21	45.21
	스페인							1	11.09	11.09
	소계	2	32	32	3	23	23	6	167.2	167.2
리스텍스 암페타민 (Lisdex amphetamine)	캐나다	1	66	66						
	미국	1	30	30						
	호주							1	20.79	20.79
	소계	2	96	96				1	20.79	20.79
플루오르메트 암페타민	네덜란드	1	3	3				1	33	33
	소계	1	3	3				1	33	33
모르핀	미국							1	20	20
	소계							1	20	20
에페드린	캐나다	1	6	6						
	소계	1	6	6						
옥시코돈	미국	1	1	1	2	10	10	1	32.67	32.67
	캐나다							2	6.93	6.93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20			2021			2022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옥시코돈	호주							1	1.98	1.98
	스페인							1	36.96	36.96
	소계	1	1	1	2	10	10	5	78.54	78.54
LSD	네덜란드	19	16	16	14	14	14	17	9.40	8.86
	프랑스	1			7	17	17	1	0.5	0.5
	미국	3	1	1	3	5		3	1.23	1.14
	폴란드	1	1	1	1	8	8			
	영국				2	1	1	5	4.06	4.06
	독일	1	1	1				1	1	1
	벨기에							1	2	2
	태국	1	1	1	4	1	1			
	베트남				2			2	0.04	0.04
	호주							2	0.2	0.2
	소계	26	19	18	33	46	41	28	18.43	17.8
	디메틸트립타민 (DMT)	미국	1	54	54					
네덜란드		1	4	4						
스페인		1	1	1						
소계		3	59	59						
조피클론	중국				1	27	27			
	홍콩	2	52	52						
	대만				1	10	10			
	일본	1	5	5						
	소계	3	57	57	2	37	37			
에틸로플라제 페이트	일본	2	58	58	2	39	39			
	소계	2	58	58	2	39	39			
1P-LSD	네덜란드	3	4	4						
	벨기에				1	1	1			
	소계	3	4	4	1	1	1			
알킬니트리트 류 [isobutyl nitrite (일명 '러시'), isopropyl nitrite, isopentyl nitrite 등]	중국	64	10,430	10,430	8	4,238	4,238	5	16,370	16,370
	대만	65	5,696	5,696	1	2,640	2,640			
	말레이시아	13	4,888	4,888	1	375	375	1	390	390
	태국	9	1,807	1,807						
	프랑스	11	1,689	1,689						
	캄보디아	4	1,585	1,585				1	2,280	2,280
베트남	6	500	500	1	20	20	3	1,338.1	1,338.1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20			2021			2022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알킬니트리트 류 [isobutyl nitrite (일명 '러시'), isopropyl nitrite, isopentyl nitrite 등]	미국	8	576	576	1	136	136	1	140	140
	네덜란드	2	384	384						
	독일							1	180	180
	오스트리아	1	197	197						
	싱가포르	5	240	240						
	슬로바키아	3	267	267						
	체코	2	96	96						
	키르기스스탄	4	187	187						
	일본	1	60	60						
	독일	1	20	20						
소계	199	28,622	28,622	12	7,409	7,409	12	20,698.1	20,698.1	
2C-D, 2C-B, 4-OH-DIT, 3-HO-PCP	프랑스				1	325	325			
	네덜란드	5	122	121	3	51	51	3	47.52	47.52
	독일				1	20	20			
	미국				1	5	5			
	소계	5	122	121	6	401	401	3	47.52	47.52
덱스트로 메토르판 (러미널)	인도네시아	1	302	302						
	카타르							1	32.67	32.67
	소계	1	302	302				1	32.67	32.67
페노바르비탈 (거통편)	중국	9	6,070	6,070	43	34,812	34,812	88	70,097.28	70,097.28
	영국							1	660	660
	베트남	1	264	264						
	소계	10	6,334	6,334	43	34,812	34,812	89	70,757.28	70,757.28
3,4-메칠렌디옥시 암페타민	네덜란드							1	8.25	8.25
	소계							1	8.25	8.25
복방감초편	중국							1	396	396
	소계							1	396	396
에스타졸람	중국				1	183	183			
	소계				1	183	183			
실비노린 에이	네덜란드	1	3	3						
	소계	1	3	3						
양귀비종자	호주				1	2,150	2,150			
	소계				1	2,150	2,150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20			2021			2022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대마초	미국	21	7,813	7,561	20	9,052	9,052	17	9,030.12	9,030.12
	남아프리카공화국	1	7	7						
	태국	2	598	598	1	2	2	3	2,111.97	2,111.97
	필리핀	1	3,838	3,838				1	1	1
	캐나다	5	231	231	1	166	166	4	312.7	312.7
	베트남	2	539	539	3	200	200	2	295.14	295.14
	가나				1	1,000	1,000			
	폴란드				2	843	843			
	프랑스				1	539	539	2	13.72	13.72
	독일							1	10.45	10.45
	인도							1	140.05	140.05
	영국	5	145	145	2	36	36	10	671.18	671.18
	말레이시아	1	90	90						
	이집트				1	145	145			
	우크라이나	1	103	103						
	스위스	1	95	95						
	스페인	2	21	21				2	31.73	31.73
	네덜란드	3	13	13				1	160	160
	모로코				1	12	12			
	도미니카공화국							1	128.61	128.61
중국				1	2	2				
홍콩				1	1	1	1	27	27	
소계	45	13,493	13,241	35	11,997	11,997	46	12,933.67	12,933.67	
대마종자	베트남				1	205	205			
	미국	2								
	스위스	1	1	1						
	일본	1	1	1						
	소계	4	3	3	1	205	205			
대마오일	미국	57	32,782	32,782	27	115,125	114,125	15	20,076.6	18,276.6
	중국	4	2,224	2,224						
	베트남	3	120	120						
	독일	2	1,108	1,108						
	네덜란드	5	537	537						
	대만	12	640	640						
	홍콩	2	120	120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20			2021			2022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대마오일	영국	2	310	310				4	360	360
	태국	1	120	120	1	90	90			
	우크라이나				1	200	200			
	일본	4	150	150				2	74.38	74.38
	필리핀	3	120	120						
	캐나다	1	50	50						
	말레이시아	2	105	105						
	스페인	1	30	30						
	뉴질랜드				1	30	30			
	인도네시아				1	30	30			
소계	57	14,135	13,883	31	115,475	114,475	21	20,510.98	18,710.98	
대마कु키	미국	1	135	135	2	103	103	2	1,906.10	1,906.10
	영국				1	71	71			
	소계	1	135	135	3	174	174	2	1,906.10	1,906.10
대마캡슐 (알약)	미국	2	33	33	2	20	20	3	132	132
	소계	2	33	33	2	20	20	3	132	132
대마카트리지	미국	39	880	880	49	441	441	49	329.36	329.36
	베트남	1	1	1	1	51	51			
	독일				1	35	35			
	캐나다	1	3	3				4	6	6
	일본	3	19	19	1	4	4	4	16	16
	중국							2	6	6
	영국	3	8	5	2	10	10	3	9	9
	필리핀							1	1	1
	우크라이나				1	5	5			
	말레이시아	1	1	1	1	3	3			
	프랑스							1	2	2
	스페인				1	2	2			
	네덜란드							2	4	4
	태국							1	3	3
소계	48	912	909	57	551	551	67	376.36	376.36	
대마초콜릿	미국	2	130	130	3	358	358	2	175.98	175.98
	독일							1	523	523
	소계	2	130	130	3	358	358	3	698.98	698.98

구분 마약류별	국가별	2020			2021			2022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건수	반입량	압수량
대마젼	미국							1	20	20
	소계							1	20	20
대마크림	미국	9	1,763	1,763	4	545	545	7	2,750	2,750
	홍콩	1	150	150						
	중국	1	100	100						
	네덜란드	1	5	5						
	영국							1	3,129.60	3,129.60
	독일							1	79.20	79.20
	소계	12	2,018	2,018	4	545	545	9	5,958.8	5,958.8
대마차	미국				1	4	4			
	소계				1	4	4			
대마캔디 (사탕)	미국	1	39	39	1	94	94	2	10	10
	캐나다	1	12	12						
	영국							1	6	6
	소계	2	51	51	1	94	94	3	16	16
대마젤리	미국	6	1,022	1,022	15	3,048	3,048	20	2,607.10	2,607.10
	영국	2	470	470	1	80	80	5	1,304.86	1,304.86
	태국	1	36	36						
	홍콩							2	1,183.19	1,183.19
	일본							1	10	10
	소계	9	1,528	1,528	16	3,128	3,128	28	5,105.15	5,105.15
기타 대마제품	미국(스틱)	1	1	1						
	러시아(짬)				1	676	676			
	미국(물담배)	1	500	500						
	미국(입욕제)	1	10	10	3	19	19	1	150	150
	호주(대마밀가루)							2	42.62	42.62
	미국(파스)	1	68	68	2	14	14	2	570	570
	미국(대마치약)	1	48	48						
	일본(껌)	1	20	20						
	미국(버터)				1	7	7			
	중국(버터)				1	5	5			
	소계	6	647	647	8	721	721	5	762.62	762.62

## 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 ▶ 2022년도 필로폰 밀반입량은 총 134.6kg으로 전년 대비(502.9kg) 73.2% 감소하였으나, 2021. 7. 부산항만에서 적발된 멕시코발 필로폰 404.23kg을 제외하면, 36.4%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필로폰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 국가별 필로폰 밀반입 순위
  - 라오스발(약 45.6kg, 33.9%) > 미국발(약 38.7kg, 28.8%) > 태국발(약 16.9kg, 12.6%)
  - 라오스발이 급증한 이유는 태국인 마약류 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발송지를 라오스로 우회하여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
- ▶ 2022년도 주요 필로폰 대량 밀수입 적발 사례

월별	발송국가	수량	밀수방법	적발청
1월	미국	필로폰 9.2kg	국제특송화물	인천지검
2월	라오스	필로폰 3.22kg	국제특급우편	청주지검
2월	라오스	필로폰 1.96kg	국제특급우편	대전지검
4월	라오스	필로폰 1.96kg	국제특송화물	수원지검
4월	라오스	필로폰 2.02kg	국제특송화물	춘천지검
5월	태국	필로폰 4.91kg	국제특급우편	대구지검
5월	레소토	필로폰 3.7kg	기내수화물	인천지검
7월	미국	필로폰 4.64kg	국제특급우편	인천지검
7월	멕시코	필로폰 3.38kg	기내수화물	인천지검
9월	멕시코	필로폰 3.94kg	여행용 캐리어	인천지검
11월	우간다	필로폰 3.5kg	기탁수화물	인천지검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로폰 5.85kg	기탁수화물	인천지검

## 나. 코카인

- ▶ 2022년 코카인 밀반입량은 총 55.39g로 예년에 비하여, 매우 적은 양이 적발됨, 그러나 국제 마약 유통조직의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대량 밀수사건이 종종 적발되고 있음
- ▶ 2013년

  - 한국계 미국인 3명이 기탁화물 내에 보관되어 있던 신발 4짝에 코카인 300g씩을 은닉하여 코카인 총 1,180g 밀반입
- ▶ 2014년

  - 미국인이 홍콩에서 코카인 2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1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한국인 3명이 미국에서 코카인 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 ▶ 2015년

  -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2.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2.03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 캐나다인이 홍콩에서 코카인 0.55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한국인이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0.5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 ▶ 2016년

  -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코카인 각 6,400g, 4,478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 2017년

  - 한국인이 코카인 59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 2018년

  - 홍콩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약 19.8k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휴대한 채 카타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최종 목적지 마카오)하여 밀반입

- 성명 불상자가 에콰도르에서 코카인 약 63.88kg을 선적한 후 멕시코 등을 경유해서 부산항에 입항(최종 목적지 중국)하여 밀반입
- 콜롬비아인이 파나마에서 코카인 약 3kg이 은닉된 가방을 휴대한 채 상파울루와 두바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최종 목적지 라오스)하여 밀반입

▶ 2019년

- 홍콩인이 브라질에서 두바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코카인 불상량이 함유된 와인 10병(총중량 13kg 상당) 밀반입
-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1.86g 등 밀반입
- 브라질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약 4.5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밀반입
- 한국인이 미국에서 항공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16.17g을 밀반입
- 코카인 약 100kg을 신고 콜롬비아에서 출항하여 충남 태안 해상으로 진입한 홍콩 국적의 선박을 적발하여 코카인 전량을 압수하는 등 각 사례가 적발됨

▶ 2020년

- 2020. 1. 중국계 호주인이 네덜란드에서 항공통상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약 11g 밀반입
- 2020. 3. 한국인 대학생이 호주에서 코카인 4.6g 등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후 항공기에 탑승하여 밀반입,
- 2020. 6. 브라질을 출발하여 7. 싱가포르 경유, 8.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컨테이너 안에 47박스에 나눠 은닉된 코카인 약 47kg을 적발하여 전량 압수(최종 목적지는 일본),
- 2020. 7. ~ 10. 3회에 걸쳐 한국인이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약 1g 등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 2021년

- 2021. 1. 콜롬비아에서 코카인 약 35kg을 선적한 후, 파나마 운하, 부산신항, 중국, 미국을 경유하여 콜롬비아로 밀반입하려다가 부산신항에서 적발
- 2021. 10. 페루 카야오항에서 출발하여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일본을 경유하여 부산신항에 도착하는 선박을 이용하여 코카인 400kg을 밀반입하려한 사례가 적발됨

- ▶ 2022년
  - 2022. 6. 미국에서 코카인 47.98g과 필로폰을 밀수입한 밀수사범 구속(성남지청)

#### 다. 헤로인

- ▶ 2010년도와 2012년도에는 소량의 헤로인 밀반입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외에는 적발 사례 없음
- ▶ 2015년도 헤로인 총 압수량은 4.54g으로, 미국에서 밀반입된 3.19g(3건)을 제외한 나머지 압수량은 국적불명
- ▶ 2016년도에는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헤로인 0.03g 밀반입한 사례 적발
- ▶ 2017년도에는 캐나다에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헤로인 3.73g 밀반입한 사례 적발
- ▶ 2018년도에는 미국에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헤로인 1.93g 밀반입한 사례 적발
- ▶ 2020년도에는 네덜란드에서 국제소포우편물을 이용하여 헤로인 1.22g 밀반입, 네덜란드에서 국제항공우편을 이용하여 헤로인 3.32g과 대마수지 5.01g 및 5.04g, 코카인 3.99g을 함께 밀반입한 사례 적발
- ▶ 2018년도에는 미국에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헤로인 1.93g 밀반입한 사례 적발
- ▶ 2022년도에는 헤로인 밀반입 적발 사례 없음



## 라. 대마초

- ▶ 2022년도 대마초 밀반입량은 총 12.9kg으로 전년(11.9kg) 대비 8.4% 증가,
- ▶ 국가별 대마초 밀반입 순위
  - 미국발(약 9kg, 69.8%) > 태국발(약 2.1kg, 16.4%) > 영국발(약 0.6kg, 5.2%)
  - 전세계적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
- ▶ 2013년
  - 음반 판매업자가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초 837g 밀반입
  - 주한미군이 미국에서 군사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초 435g을 밀반입
- ▶ 2015년
  - 대만인이 캐나다에서 대마초 6.5kg을 부산항으로 밀반입
- ▶ 2017년
  - 미국인이 미국에서 국제우편물에 대마 약 1kg을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한 뒤 관광객을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 후 수령 시도하는 방법으로 밀반입
  - 클럽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결제 후 캐나다에서 대마 약 450g을 밀반입
  - 중고차 판매원 등이 베트남에서 대마 약 1.1kg을 밀반입
- ▶ 2018년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홍콩을 경유 김해국제공항으로 대마 약 18kg을 밀반입
  - 미국 국적 교포가 미국에서 대마 약 2.25kg을 밀반입
- ▶ 2019년
  - 남아공 국적자가 대마 약 20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홍콩을 거쳐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나이지리아인이 태국에서 항공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초 약 1.9kg 밀반입
  - 대만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여행용가방 안에 대마 약 2.7kg을 은닉하여 밀반입

- 미국인이 나이지리아에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마초 1.3kg 밀반입

#### ▷ 2020년

- 중국에서 필리핀을 경유하는 선박을 통해 대마초 약 3.8kg을 밀반입
- 미국에서 국제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초 약 260g 등 밀반입
-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마초 433g 밀반입
- 미국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마초 225g 밀반입

#### ▷ 2021년

- 미국에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마 1.6kg을 밀반입
- 난민신청 비자를 받아 국내 체류 중인 나이지리아인 2명이 가나에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마 1kg을 밀반입

## 마. 야 바<sup>6</sup>

- ▷ 야바는 신종 마약류의 일환으로 주로 태국인 사이에서 유통되어 대부분의 야바 밀수 및 투약 사범은 태국국적자들이고 최근 국내 체류 태국인 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한 다음, 공장 기숙사, 아시아 식료품 가게, 노래방 등지에서 주로 태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거나 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함

#### ▷ 2018년

-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3명이 태국에서 야바 1,418g을 밀반입
- 태국인이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1,329g 밀반입
- 태국인 3명이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990g 밀반입
- 태국인 2명이 라오스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1,147g 밀반입

<sup>6</sup> 본래 미얀마어로 ‘YAMA’라고 불리며, 태국에서는 ‘Methamphetamine Yaba’ 또는 ‘Methamphetamine Tablet’이라고 지칭하고, 동남아시아 최대마약 조직을 이끌었던 쿤사가 메트암페타민(25%), 카페인(70%), 기타(코데인 등 5%)를 합성하여 개발한 마약으로 환각성·중독성이 강함

➤ 2019년

- 태국인이 여행용 가방에 야바 14,118정을 은닉한 채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594정 등을 밀반입
-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199정 등을 밀반입
-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야바 1,330정 등을 밀반입,
-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명이 태국에서 국제소포우편물을 이용하여 야바 5,094정을 밀반입

➤ 2020년

-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야바 1,354정 밀반입
-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항공특송 이용하여 야바 2,745정 밀반입
-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항공특송 이용하여 야바 1,937정 밀반입
-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국제우편 이용하여 야바 796정 밀반입
- 태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태국에서 야바 2,011정 및 필로폰 174g을 밀반입

➤ 2021년

- 태국인 노동자가 태국에서 항공특송을 이용하여 야바 1,177정 밀반입
-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항공특송 이용 야바 1,007정을 밀반입
- 태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라오스에서 항공특송 이용 야바 11,936정 밀반입
-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항공특송 이용 야바 50,000정 밀반입
-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태국에서 국제우편 이용 야바 3,003정 밀반입
- 태국인 불법체류자 4명이 태국에서 국제우편 이용 야바 1,185정을 밀반입
- 라오스인 불법체류자가 라오스에서 국제우편 이용 야바 14,016정 밀반입

## ▶ 2022년

월별	발송국가	수량	밀수방법	적발청
4월	태국	야바 20,176정	국제특송화물	수원지검
5월	라오스	야바 24,215정	국제특송화물	청주지검
6월	태국	야바 19,968정	국제특급우편	대구지검
8월	태국	야바 11,488정	국제특급우편	대전지검
8월	태국	야바 16,014정	국제특급우편	인천지검
8월	태국	야바 18,101정	국제특급우편	광주지검
9월	라오스	야바 20,199정	국제소포	의정부지검
11월	태국	야바 10,123정	국제특급우편	광주지검
12월	태국	야바 19,369정	기탁수화물	부산지검
12월	태국	야바 24,121정	국제특급우편	광주지검

## 바. 기타

- ▶ 기타 밀반입되는 마약류는 MDMA(일명 '엑스터시'), LSD, GHB(일명 '물뽕'), 알킬 니트리트류<sup>7</sup>(일명 '러시'), 케타민, 사일로신, 알프라졸람, 졸피뎀,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콜릿, 대마캐러멜, 대마젤리, 대마크림, 대마쿠키, 대마카트리지, 대마오일 등 대마계 제품류 등으로 마약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음
- ▶ 특히, MDMA, LSD, 알킬 니트리트류 등은 인터넷과 국제우편 등 유통시스템의 발달로 해외 구입이 용이하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환각작용은 수배 강하며 휴대가 간편하여 클럽 파티용으로 대학생과 유학생 등 젊은층이 밀반입

<sup>7</sup> 일명 '러시'로 불리고 있으며,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되었으나, 흡입 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일본 등에서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주로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isopentyl nitrite 등이 남용됨

2019년

- 베트남인이 베트남에서 국제화물을 이용하여 헤시시 23.7g과 마약버섯(사일리신) 13.46g을 밀반입,
- 한국인 3명이 미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MDMA 1,125정 및 7.76g, 케타민 31.05g을 밀반입
- 한국인 2명이 베트남에서 MDMA 1,000정을 신체에 은닉하여 밀반입
- 한국인이 네덜란드에서 국제통상우편을 이용하여 LSD 300장 밀반입

2020년

- 대학생이 호주에서 엑스터시 300정과 코카인 4.63g을 손가방에 은닉하여 밀반입
- 한국인이 미국에서 항공특송화물 이용하여 GHB(일명 '물뽕') 357g 밀반입
-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항공특송화물 이용하여 합성대마 630g 등을 밀반입
- 한국인이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대마수지 11.6g, 9.6g 및 LSD 100장, 엑스터시 101정 등 밀반입
- 한국인이 미국에서 케타민 97g 및 엑스터시 55정 밀반입
-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2명이 독일에서 엑스터시 2,244정, 케타민 104g 등 밀반입,
- 베트남인 불법체류자가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3,413정, 케타민 293g 등 밀반입

2021년

-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항공특송화물 이용하여 엑스터시 2,932정 밀반입
- 한국인이 미국에서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엑스터시 999정 밀반입
- 한국인이 프랑스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케타민 105g 밀반입
- 한국인이 프랑스에서 국제등기우편 이용하여 LSD 601장 밀반입한 사례가 각 적발됨
- 베트남인 불법체류자가 네덜란드에서 엑스터시 983정, 케타민 97g 등 밀반입
- 베트남인이 독일에서 국제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케타민 820g, 엑스터시 1,003정 등 밀반입

## ▶ 2022년

월별	발송국가	적발 마약류 및 수량	밀수방법	적발청
1월	네덜란드	MDMA 998정, LSD 100장, 2C-B 200정	국제소포	인천지검
2월	독일	MDMA 2,512정, 케타민 98.37g	국제소포	대구지검
2월	독일	MDMA 10,054정, 케타민 497.63g	국제우편	수원지검
2월	독일	MDMA 999정, 케타민 293.89g	국제우편	광주지검
4월	독일	MDMA 998정, 케타민 201.33g	국제우편	수원지검
7월	프랑스	MDMA 4,914정, 케타민 996.79g	국제특급우편	대구지검
8월	독일	케타민 1,483g	국제소포	부산지검
9월	네덜란드	MDMA 1,010정	국제우편	대구지검
10월	독일	MDMA 2,860정	국제소포	광주지검
10월	네덜란드	MDMA 1,357정	국제소포	대전지검
11월	독일	MDMA 1,964정	국제특송화물	인천지검
11월	영국	MDMA 4,232정	국제등기우편	청주지검
12월	베트남	MDMA 1,011정, 케타민 199.42g	국제특송화물	인천지검

## 6

###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표 3-10]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단속 사범수(명)	948	1,529	1,958	2,339	2,573
증감률(%)	1.7	61.3	28.1	19.5	8.5

## ▶ 2010년 이전

- 2000년 이후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정책 등에 따른 입국 및 통관절차 간소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자 중심의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대폭 증가하다가, 2005년도 이후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로 인한 감소 추세

▶ 2010년대

- 영어권 국가 출신 외국인 강사의 국내 체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2010년도 858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외국인 마약류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2011년도 295명으로 전년 대비 65.6% 감소하였으나, 2015년 640명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9년도 1,529명으로 처음 1천명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21년

-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들이 조직을 결성하여 신종 마약 JWH-018 (일명 ‘스파이스’)를 제조하고 판매한 사례 적발

- ▶ 2022년에는 54개국 2,573명이 적발, 전년 대비 8.5% 증가하여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였으며, 국가별 외국인 마약류 숫자는 태국(991명) > 중국(649명) > 베트남(471명) > 미국(138명) 순임

- ▶ 2022년도에는 동남아시아(태국 등)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신종 마약류인 야바를 대량으로 밀반입하여 동료 근로자 등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한 사례가 가장 많았음

- ▶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의 용이, 마약류를 대하는 국가별 문화 차이, 우리나라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으로 인해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표 3-11] 최근 5년간 마약류별 외국인 사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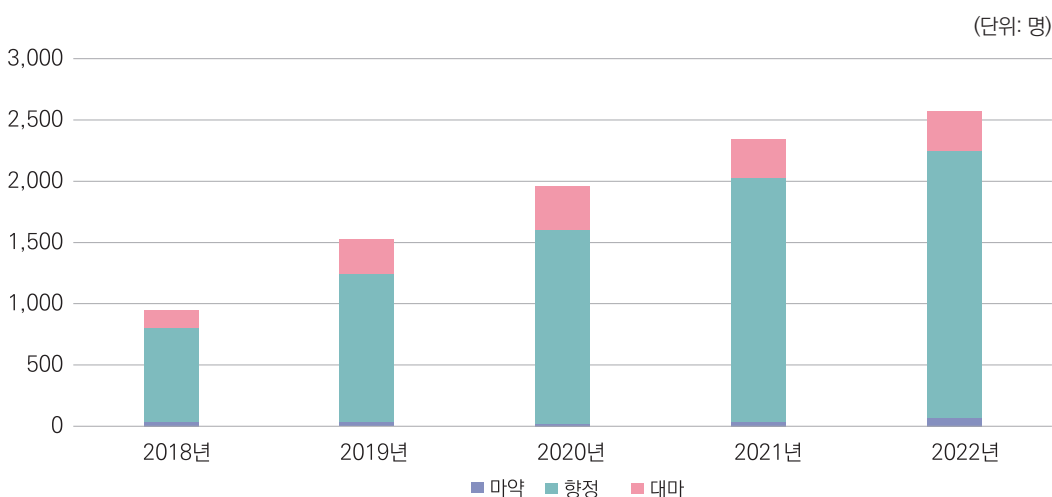
(단위: 명)

마약류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948 (100)	1,529 (100)	1,958 (100)	2,339 (100)	2,573 (100)
마약	36 (3.8)	32 (2.1)	18 (0.9)	35 (1.5)	65 (2.5)
향정	770 (81.2)	1,215 (79.5)	1,582 (80.8)	1,990 (85.1)	2,187 (85.0)
대마	142 (15.0)	282 (18.4)	358 (18.3)	314 (13.4)	321 (12.5)

※ ( )는 구성비 %

- ▶ 외국인 마약류사범 유형은 1999년도 이전에는 주로 대마사범이었으나, 이후 향정사범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도 이후에는 향정사범이 대마사범을 추월
- ▶ 2022년도에는 향정사범이 85.0%, 대마사범이 12.5%, 마약사범이 2.5%를 차지
- ▶ 향정사범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태국인과 베트남인의 야바(YABA), 엑스터시(MDMA) 밀반입 및 투약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 국내 체류 태국인 마약 공급책(밀수범)이 태국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야바를 밀반입한 후 중간 판매상에게 도매가로 공급하고, 중간 판매상은 이윤을 덧붙여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이를 유통시켜 지역 산업단지, 농장, 태국인 전용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태국인 사이에 야바를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가 빈발함

[그림 3-7]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현황





[표 3-12]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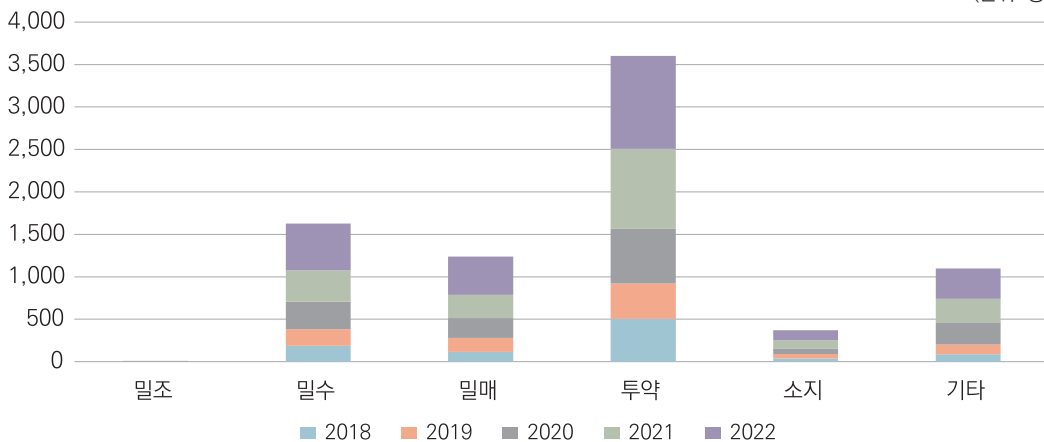
유형별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948 (100)	1,529 (100)	1,958 (100)	2,339 (100)	2,573 (100)
밀조	0 (0.0)	3 (0.3)	2 (0.1)	1 (0.1)	2 (0.1)
밀수	186 (20.0)	196 (20.7)	323 (21.1)	370 (18.9)	551 (21.4)
밀매	115 (12.3)	165 (17.4)	235 (15.4)	273 (13.9)	449 (17.4)
투약	504 (54.1)	417 (44.0)	643 (42.1)	942 (48.1)	1,095 (42.6)
소지	38 (4.1)	54 (5.7)	65 (4.3)	94 (4.8)	119 (4.6)
기타	89 (9.5)	113 (11.9)	261 (17.1)	278 (14.2)	357 (13.9)

※ ( )는 구성비 %

▶ 2022년도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범죄유형은 투약(42.6%) > 밀수(21.4%) > 밀매(17.4%) 순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해외로부터 마약류를 밀수입하여 주변 동료나 지인 등에게 판매하고 함께 투약하면서, 밀수와 투약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그림 3-8]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명)



[표 3-13]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순위

(단위: 명)

순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1		중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2		태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3		미국	미국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표 3-14] 2022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감비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제르	대만	독일
1	6	4	1	5	1	10	3
러시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몬세라트	몰도바
66	1	2	10	1	5	1	7
몰디브	몽골	미국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기에
2	3	138	3	1	3	471	2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스리랑카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1	1	4	11	1	4	12	6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1	43	1	3	8	2	11	7
중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키르기스스탄
649	1	1	18	7	22	1	8
태국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991	3	1	4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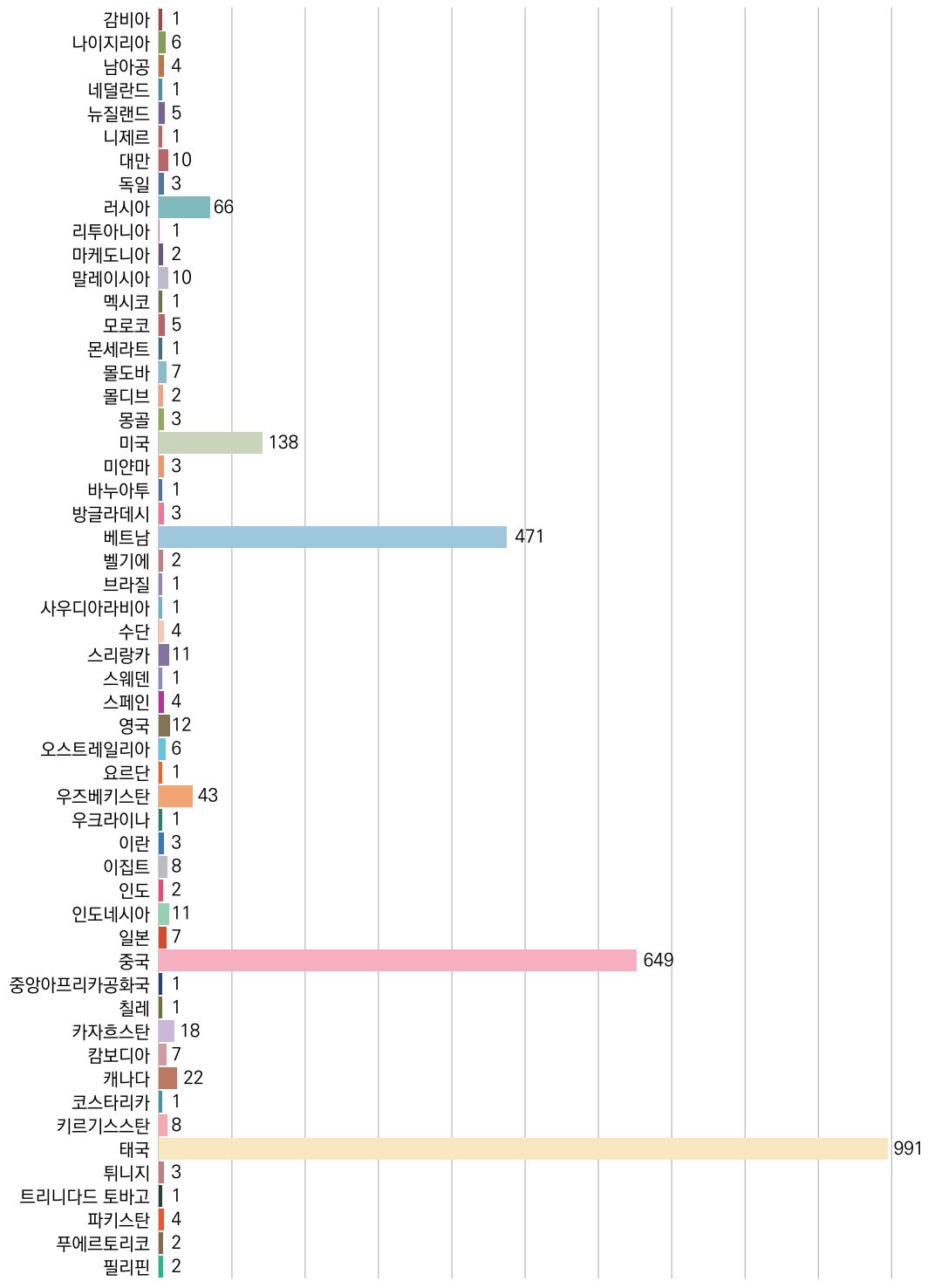
[표 3-15]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현황

(단위: 명)

국적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96	(100)	323	(100)	370	(100)	480	(100)	551	(100)		
태국	70	(35.7)	145	(44.9)	192	(51.9)	210	(43.8)	301	(54.6)		
중국	90	(45.9)	74	(22.9)	80	(21.6)	89	(18.5)	110	(20.0)		
베트남	3	(1.5)	14	(4.3)	41	(11.1)	73	(15.2)	85	(15.4)		
우즈베키스탄	3	(1.5)	33	(10.2)	17	(4.6)	28	(5.8)	5	(0.9)		
러시아			16	(5.0)	18	(4.9)	40	(8.3)	10	(1.8)		
미국	17	(8.7)	5	(1.5)	6	(1.6)	6	(1.3)	11	(1.9)		

국적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카자흐스탄	1	(0.5)	7	(2.2)	3	(0.8)	1	(0.2)	3	(0.5)		
캐나다	3	(1.5)	3	(0.9)	1	(0.3)	5	(1.0)	3	(0.5)		
대만	2	(1.0)	4	(1.2)	-	-	-	-	2	(0.3)		
캄보디아	2	(1.0)	-	-	2	(0.5)	8	(1.7)	1	(0.2)		
나이지리아	1	(0.5)	2	(0.6)	1	(0.3)	4	(0.8)	1	(0.2)		
일본	2	(1.0)	3	(0.9)	-	-	-	-	1	(0.2)		
이집트	-	-	1	(0.3)	-	-	2	(0.4)	1	(0.2)		
말레이시아	-	-	2	(0.6)	-	-	1	(0.2)				
콜롬비아	-	-	3	(0.9)	1	(0.3)	-	-				
키르기스스탄	-	-	2	(0.6)	-	-	1	(0.2)	2	(0.3)		
스리랑카	-	-	2	(0.6)	1	(0.3)	-	-	2	(0.3)		
브라질	1	(0.5)	1	(0.3)	1	(0.3)	-	-				
모로코	-	-	-	-	-	-	3	(0.6)	1	(0.2)		
영국	-	-	1	(0.3)	-	-	-	-	3	(0.5)		
이탈리아	-	-	-	-	1	(0.3)	1	(0.2)				
가나	1	(0.5)	-	-	-	-	1	(0.2)				
카메룬	-	-	-	-	2	(0.5)	-	-				
에콰도르	-	-	-	-	-	-	2	(0.4)				
우간다	-	-	-	-	-	-	2	(0.4)				
우크라이나	-	-	1	(0.3)	-	-	-	-				
몽골	-	-	-	-	1	(0.3)	-	-				
감비아	-	-	1	(0.3)	-	-	-	-				
방글라데시	-	-	-	-	-	-	1	(0.2)				
앙골라	-	-	-	-	1	(0.3)	-	-				
인도	-	-	-	-	1	(0.3)	-	-				
예멘	-	-	-	-	-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	1	(0.3)	-	-	-	-	1	(0.2)		
스페인	-	-	1	(0.3)	-	-	-	-	1	(0.2)		
인도네시아	-	-	1	(0.3)	-	-	-	-	2	(0.3)		
파키스탄	-	-	-	-	-	-	1	(0.2)	1	(0.2)		
니제르	-	-	-	-	-	-	1	(0.2)				
말레이시아	-	-	-	-	-	-	-	-	2	(0.3)		
몰도바	-	-	-	-	-	-	-	-	1	(0.2)		
호주	-	-	-	-	-	-	-	-	1	(0.2)		
뉴질랜드	-	-	-	-	-	-	-	-	1	(0.2)		

[그림 3-9] 2022년 외국인 마약류사범 국적별 단속 구성



[표 3-16]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별 순위

※ ( )는 구성비 %

(단위: 명)

순위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1	중국	태국	태국	태국	태국
2	태국	중국	중국	중국	중국
3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 2010년대 이전

-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 국적은 2007년 이전에는 주로 이란, 미국, 나이지리아 국적자 등이 많았으나, 2007년도에는 중국 국적자가(28.6%)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태국인이 가장 많은 비중(64.7%, 29.4%)을 차지함

▶ 2010년대

- 태국(2010년/ 32.0%)
- 미국(2012년 ~ 2013년/ 38.1%, 38.3%)
- 중국(2011년/ 44.4%), 중국(2014년 ~ 2018년/ 56.6%, 67.0%, 65.9%, 47.9%, 45.9%)

중국 내 강력한 마약단속으로 중국국적 동포(조선족)들이 주축이 된 마약류사범들이 지리적인 이점을 바탕으로 큰 수익을 위해 국내로 유입되어 마약류 밀거래에 많이 관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 2019년에는 태국(44.9%) > 중국(22.9%) > 우즈베키스탄(10.2%) 순으로, 이시기부터 국내체류하는 태국인들이 국제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종 마약류인 ‘야버’를 밀수입하거나 투약한 사례가 많이 적발됨, 특히 우즈베키스탄인의 경우 전남 광주 인근에 거주하는 구소련 지역(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출신 동포 및 그 후손들의 대마초 밀수 및 흡연이 다수 적발되었기 때문임

- > 2020년 ~ 2022년
  - 2020년도부터 3년 연속으로 외국인 마약류사범 점유율은 태국 > 중국 > 베트남 순으로 나타남
  - 2021년도 러시아인(8.3%), 우즈베키스탄인(5.8%)의 점유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JWH-018 제조 및 판매 조직이 적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2022년도에는 태국 등 동남아 국적자들이 메트암페타민 또는 야바 등의 마약류를 태국, 라오스 등에서 국내로 대량 밀수입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국제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 국제 교류가 빈번해지고,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이와 동시에 외국인 마약류범죄도 함께 급증하고 있고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국적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마약류범죄가 성행하면서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출신 국적자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7

##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단속 현황

## 가. 개요

- > 2000년대 초반까지의 예전 국내 폭력조직은 미국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등 해외 기업형 국제범죄조직과 달리 소규모로 금품갈취 등 전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마약류범죄에 개입하는 것을 금기시했기에 조직적인 차원에서 마약류 밀수·밀매를 하지는 않았음
  
- > 그러나 2010년대 이후 마약을 금기시하던 관행을 깨고 조직 유지 및 영리 등의 목적으로 마약류 밀수·밀매에 적극 개입하거나, 개인적 일탈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 > 마약류범죄에 연루된 조직폭력배는, 2016년도 48개파 65명, 2017년도 44개파 72명, 2018년도 35개파 77명, 2019년도 21개파 29명, 2020년도 29개파 40명,

2021년도 29개파 53명, 2022년 18개파 25명이 적발되었음

▶ 주요 조직폭력배 개입 마약류 범죄

- 부산지역 「유태파」 조직원이 중국 「흑사회」와 연계하여 중국 엔타이항(연태)에서 부산항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5.95kg을 밀수하여 유통(2011년)
- 일본 야쿠자 「쿄쿠토키카이(極東會)」 조직원이 일본에서 국내로 메트암페타민 약 10kg을 밀수하여 유통시도(2015년)
- 대만 마약조직과 일본 야쿠자 「이나가와카이파」와 국내 유통조직이 연계하여 중국에서 국내로 메트암페타민 약 26kg을 밀수하여 국내 유통 및 일본 수출 시도(2017년)
- 대만 마약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연계하여 대만에서 국내로 메트암페타민 약 150kg 이상을 밀수하여 국국내 유통 및 일본 수출 시도(2018년)

[표 3-17] 최근 5년간 조직폭력배 마약류범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전체 마약류사범	조직폭력배 마약류사범	점유율(%)
2018		12,613	77	0.6
2019		16,044	29	0.2
2020		18,050	40	0.2
2021		16,153	53	0.3
2022		18,395	25	0.1

[표 3-18] 최근 5년간 조직폭력배 마약류 범죄유형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유형별	합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기타)
2018		77 (100)	0 (0.0)	1 (1.3)	20 (26.0)	39 (50.6)	17 (22.1)
2019		29 (100)	0 (0.0)	0 (0.0)	8 (27.6)	15 (51.7)	6 (20.7)
2020		40 (100)	0 (0.0)	0 (0.0)	12 (30.0)	15 (37.5)	13 (32.5)
2021		53 (100)	0 (0.0)	0 (0.0)	17 (32.1)	26 (49.1)	10 (18.9)
2022		25 (100)	0 (0.0)	2 (8.0)	8 (32.0)	8 (32.0)	7 (28.0)

※ ( )는 구성비 %

[표 3-19] 2022년 폭력조직 마약류범죄 지역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유형별	밀조	밀수	밀매	투약	소지 (기타)	합계
	합계	0	2	8	8	7	25
충청	서산식구파(서산)				1		1
	석만파(충주)					1	1
	신석만파(충주)			2			2
	한실파(논산)					1	1
영남	사보이(포항)		1	1			2
	향촌동파(대구)				1		1
부산	부대식구파(부산)			2			2
	하단파(부산)			1			1
	영도파(부산)			1	1	2	4
	칠성파(부산)					1	1
	광안칠성파(부산)					1	1
	서면통합파(부산)			1			1
	아파치파(부산)				1		1
	재건20세기파(부산)				1		1
	수원북문파(부산)		1				1
재동파(부산)					1	1	
경남	신신역전파(울산)				1		1
제주	산지파(제주)				2		2

## 나. 대표적 개입사례

### 밀제조 관련 사건

#### ▶ 2010년 이전

- 대구지역「대신동파」 조직원 2명이 판매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 9kg을 밀조한 후 대구·부산 지역에서 밀매 (1999년 5월, 대구지검)
- 부산지역「서면파」 행동대장 등이 필로폰 약 10kg을 밀조한 후 부산·대구 지역에서 밀매 (2001년 1월, 서울중앙지검)
- 일본 야쿠자「마쓰바카이(松葉會)」 부두목이 중국에서 필로폰 반제품을 밀반입한 후, 일본에서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반제품 140ml를 화장품 통속에 은닉하여 경유지인 우리나라로 밀반입하여 제조기술자와 접촉을 시도하다가 적발 (200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 2015년

- 대구지역「대구월배파」조직원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 15g을 제조 (7월, 광주지검)
- 강원지역「강릉식구파」행동대장 등이 화공약품을 이용하여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여 유사한 백색 결정체를 만들어 필로폰 제조 예비 (12월, 부산지검)

▶ 2021년

- 구 소련 지역 출신 교포인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외국인들 16명이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JHW-018(일명 ‘스파이스’) 약 640g을 제조 및 밀매 (1월, 수원지검)

### 밀수 관련 사건

▶ 2010년대 이전

- 경기 성남지역 「국제 마피아파」 행동대원이 중국에서 필로폰 11.9g 밀수입 및 투약(2007년 8월, 서울중앙지검)
- 일본 최대 야쿠자 「야마구치구미(山口組)」의 중간 보스 등이 홍콩에서 김해공항으로 필로폰 약 615g 밀수입 후, 이를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검거되어 미수 (2007년 9월, 부산지검)
- 경기 수원지역「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태국에서 필로폰 9.74g 밀수입 (2009년 9월, 인천지검)

▶ 2010년

- 미국 LA 한인지역 갱단 「LGKK」 조직원이 멕시코에서 필로폰 약 48.2g 밀수입 (1월, 서울중앙지검)
- 일본 야쿠자 「스미요시카이(住吉會)」 간부가 중국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수입할 목적으로 필로폰 987g을 인천항으로 밀수입(3월, 인천지검)
- 충북 충주지역 「신석만이파」 부두목이 태국에서 필로폰 약 37g 밀수입(4월, 청주지검)
- 서울지역 「신림동이글스파」 행동대원이 중국에서 필로폰 46.58g 밀수입(4월, 부산동부지청)

- 중국 「흑사회(黑社會)」 심양지역 두목이 중국에서 필로폰 900g 밀수입 (4월, 서울 중앙지검)
  - 경기 수원지역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태국에서 필로폰 약 2g 밀수입 (10월, 수원지검)
- ▶ 2011년
- 전북지역 「정읍식구파」 행동대원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25g 밀수입 (12월, 전주지검)
- ▶ 2012년
- 인천지역 「꿀망파」 행동대원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98g 밀수입 (2월, 서울중앙지검)
  - 부산지역 「영도파」 행동대원 등 4명이 대만 마약밀매 조직과 연계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 밀수입 (6월, 부산지검)
  - 일본 「스미요시카이(住吉會)」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5.4kg 밀수입하고 이를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10월, 인천지검)
- ▶ 2013년
- 경기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이 홍콩에서 필로폰 약 63g 밀수입 (2월, 수원지검)
  - 부산지역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5.7kg을 대형 커피머신에 은닉하여 중국 청도항에서 인천항으로 밀수입 (12월, 인천지검)
- ▶ 2014년
- 부산지역 「재건20세기파」 행동대원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0g을 비닐로 포장한 뒤 허리부위에 은닉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 (3월, 울산지검)
- ▶ 2015년
- 일본 야쿠자 「교쿠토카이(極東會)」 조직원이 필로폰 약 10kg을 일본에서 국내로 밀수입 (5월, 서울중앙지검)
  - 부산지역 「온천동파」 행동대장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18kg을 화물선 조리장 객실에 은닉하여 평택항으로 밀수입 (7월, 인천지검)

➤ 2016년

- 대구지역 「향촌동신파」 조직원이 중국에서 김포국제공항으로 필로폰 약 261g 밀수입 (3월, 서울중앙지검)
- 인천지역 「강화월드파」 행동대장이 조선족 운반책을 동원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약 50.6g 밀수입 시도(6월, 인천지검)

➤ 2017년

- 충남지역 「천안남산파」 고문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7.77g을 항문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3월, 인천지검)

➤ 2018년

- 김해지역 「삼방파」 행동대원이 태국에서 대마 약 130.36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4월, 인천지검)

➤ 2021년

- 경북지역 「구리남양주식구파」 조직원들이 태국에서 필로폰 합계 약 1.5k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 (8월, 의정부지검)

**밀매 관련 사건**

연도	조직명	범죄사실	검거청
2007	로알박스파(서울)	필로폰 약 0.58g을 밀매, 투약	고양지청
	시라소니파(청주)	필로폰 약 8.62g을 160만원에 밀매	대전지검
2008	원대동파(대구)	필로폰 약 0.18g을 3회에 걸쳐 밀매	대구서부지청
	남문파(수원)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8g 밀매, 수 회에 걸쳐 소지, 투약	수원지검
	간석식구파(인천)	필로폰 약 80g 밀매, 투약	인천지검
	꿀망파(인천)	필로폰 약 253.5g 매매 알선 및 2g 밀매	인천지검
	부평식구파(인천)	필로폰 약 1.4g 매매 알선 및 투약, 대마 흡연	인천지검
	스미요시카이(일본)	일본 야쿠자 조직원이 필로폰 약 0.4g을 매도하고 6회에 걸쳐 매매 알선 및 수수, 투약	서울서부지검
	광양백호파(광양)	두목이 필로폰 약 3g 밀매	울산지검

연도	조직명	범죄사실	검거형
2009	동두천식구파(동두천)	고문이 필로폰 약 20g 밀매, 투약	의정부지검
	부대식구파(부산)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0.12g 밀매, 투약	울산지검
	주안식구파(인천)	조직원이 필로폰 약 0.5g 밀매, 투약	인천지검
	천호동구사거리파(서울)	조직원이 필로폰 약 0.7g 밀매, 수수	서울중앙지검
	비치파(부산)	두목이 필로폰 약 0.4g 밀매, 투약	부산동부지청
	영철파(창원)	조직원이 필로폰 약 0.5g 밀매	창원지검
	재건기장통합파(부산)	두목이 필로폰 약 0.4g 밀매, 투약	부산동부지청
	재건20세기파(부산)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6g 밀매 및 교부	수원지검
2010	신세븐파(의정부)	행동대장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 밀매, 투약	서울중앙지검
	부대식구파(부산)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100g 밀매	부산지검
	명동신상사파(서울)	조직원이 필로폰 약 2.5g 밀매	고양지청
	간석동식구파(인천지검)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85g 밀매	서울중앙지검
	정릉파(서울)	두목이 필로폰 약 3.8g 밀매	평택지청
	청하위생파(평택)	조직원이 필로폰 0.4g 밀매, 투약	평택지청
	부평식구파(인천)	행동대원이 프로포폴 8,000앰플(20ml 주사액)을 술집 여종업원 등에게 밀매	인천지검
2011	소사식구파(부천)	행동대원이 필로폰 밀매	부천지청
	군산백학관파(군산)	행동대원이 필로폰 9.8g 밀매 및 11.3g 매매 알선	전주지검
	간석동식구파(인천)	행동대원이 필로폰 0.06g 밀매	부천지청
	부천식구파(인천)	행동대원이 필로폰 1.1g 밀매	부천지청
	수기동파(광주)	두목이 필로폰 밀매	광주지검
	크라운파(인천)	간부급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전주지검
2012	군산백학관파(전북)	행동대원이 필로폰 10.5g을 밀매	전주지검
	부평식구파(인천)	행동대장 등 2명이 필로폰 3.5g 밀매, 투약	수원지검
	칠성파(부산) 진술파(대전)	행동대원 등 4명이 필로폰 48g 밀매	대전지검
2013	제일파(김천)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청주지검
	진산동파(대구)	조직원이 필로폰 매매 알선	광주지검
	일호파(거제)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광주지검
	미아리파(서울)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서울중앙지검
	태평양파(천안)	조직원이 필로폰 1.5g 밀매	천안지청
	파라다이스파(청주)	행동대원이 필로폰 2.8g 매매 알선	광주지검
	영등포중앙파(서울)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재건20세기파(부산)	행동대원이 필로폰 0.05g 교부 및 필로폰 2g 매매 알선	부산동부지청
	수원남문파(수원)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간석식구파(인천)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온천동파(부산)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수원지검

연도	조직명	범죄사실	검거형
2014	아파치파(정읍)	조직원이 6회에 걸쳐 필로폰 16g 밀매	정읍지청
	꿀망파(인천)	동대원이 2회에 걸쳐 필로폰 0.1g 밀매, 필로폰 2회 투약	인천지검
	여주상조회파(여주)	조직원이 5회에 걸쳐 필로폰 밀매	여주지청
	예산파(충남)	행동대장이 필로폰 1.75g 밀매 및 대마 2회 흡연	홍성지청
	하단파(부산)	두목이 필로폰 1g 밀매 및 1회 투약	원주지청
	대인파(부산)	추종 폭력배가 필로폰 수회 밀매, 필로폰 4.93g 소지	광주지검
	김포도박이파(김포)	조직원이 필로폰 0.2g 밀매 및 4회 투약	청주지검
2015	멕시코 간(미국 LA)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및 0.9g 소지	서울동부지검
	부천식구파(인천)	행동대장이 필로폰 밀매	안산지청
	동성로파(대구)	조직원이 12회에 걸쳐 필로폰 밀매	순천지청
	순천중앙파(전남)	조직원이 9회에 걸쳐 필로폰 밀매	순천지청
	꿀망파(인천)	조직원이 필로폰 1.6g 밀매	성남지청
	칠성파(부산)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65g 밀매 및 0.33g 소지	부산지검
	사상통합파(부산)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1g 밀매 및 1.93g 소지	부산지검
	봉천동식구파(서울)	조직원이 필로폰 밀매 및 약 0.07g 소지	부산지검
	영도파(부산)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400g 밀매	부산지검
	칠성파(부산)	행동대원이 필로폰 밀매	부산지검
	인천신공항파(인천)	두목이 필로폰 매매 알선	대구서부지청
LGKK(미국 LA)	조직원이 필로폰 약 150g 밀매	의정부지검	
2016	신광안파(부산)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4g 밀매	부산지검
	간석식구파(인천)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7g 밀매 및 필로폰 약 5g 수수	인천지검
	신천지개벽파(경기)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5g 밀매	인천지검
	칠성파(부산)	행동대원이 필로폰 0.24g 교부, 필로폰 0.14g 밀매 및 투약	부산지검
	여주희망상조회 하남청개구리파 양평남한강식구파 (경기지역)	행동대장, 중간간부 등 3명이 공모하여 필로폰 10g 밀매	여주지청
2017	꿀망파(부산)	행동대원이 필로폰 2회 밀매, 6회 투약	인천지검
	온양 태평양파(충남)	조직원 2명이 다량의 필로폰 밀매 및 투약	서산지청
2018	연합오동동파	부두목이 필로폰 약 200g 밀매	부산지검
	창수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10.04g 밀매하고, 필로폰 약 14.59g 및 대마 약 4.2g 소지	울산지검
	동두천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05g 무상 교부	의정부지검
2019	내당동파(대구)	행동대원이 필로폰 20g 밀매	대구지검
2022	수원북문파(수원)	행동대원이 필로폰 45g을 밀매	대구지검

### 투약·수수·소지 등 관련 사건

- ▶ 2007. 11.~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사상터미널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이 필로폰 교부, 투약 (부산지검)
-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서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 2008.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해운대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대운파」 조직원이 필로폰 소지, 투약 (부산지검)
-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이 필로폰 소지, 투약 (부산지검)
- ▶ 2008.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해운대지부」 조직원이 필로폰 소지, 투약 (부산동부지청)
- ▶ 2008. 3.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 필로폰 수수 (안양지청)
- ▶ 2008. 3.~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학이파」 조직원이 필로폰 소지, 투약 (울산지검)
- ▶ 2008. 5.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두목이 필로폰 투약 (광주지검)
- ▶ 2008. 6.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조직원이 필로폰 교부 (수원지검)
- ▶ 2008. 6.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방어진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 2008. 6.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수기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광주지검)
- ▶ 2008. 7.~11.경 포천지역 폭력조직 「신천지개벽파」 부두목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의정부지검)

- 2008. 8.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목공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2008. 9.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간석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인천지검)
- 2009. 12.~2010. 1.경 일산지역 폭력조직 「거송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15g 수수, 투약 (서울중앙지검)
- 2010.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0.03g 투약 (부산지검)
- 2010. 5.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부평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4.46g 소지 (인천지검)
- 2010. 10.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돈암동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14g 투약 (평택지청)
- 2011. 2.~4.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AP파」,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 등 3명이 필로폰 투약 (안양지청)
- 2011.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연산통합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약 1.73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2012. 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2. 2.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군산백학관파」 행동대원 등 2명이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용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12.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 2012.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2.35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 2012. 6.경 포항지역 폭력조직 「시내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포항지청)
- ▶ 2012. 7.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 2012. 7.경 인천지역 폭력조직 「꼴망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인천지검)
- ▶ 2012.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0.29g 소지, 투약 (부산 동부지청)
- ▶ 2012. 8.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 2012.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비치파」 부두목이 필로폰 0.18g 소지, 투약 (전주지검)
- ▶ 2012. 11.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울산지검)
- ▶ 2012. 12.경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AP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3.8g 소지, 투약 (안양지청)
- ▶ 2012. 1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1.68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 2013. 3.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기장통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소지 (서울남부지검)
- ▶ 2013. 3.경 전주지역 폭력조직 「전주오거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 2013. 3.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창원지검)
- ▶ 2013. 4.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남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수원지검)



- 
- 2013. 4.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소지 (창원지검)
  - 2013. 7.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수원지검)
  - 2013. 7.경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성남지청)
  - 2013. 7.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13. 7.경 밀양지역 폭력조직 「신동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밀양지청)
  - 2013. 7.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남목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전주지검)
  - 2013.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동부지청)
  - 2013. 11.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유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창원지검)
  - 2014. 1.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수유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서울북부지검)
  - 2014. 1.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수수, 흡연 (서울중앙지검)
  - 2014. 4.경 제천지역 폭력조직 「조가파」 부두목이 필로폰 약 3.17g 소지 (제천지청)
  - 2014. 5.경 정읍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조직원이 필로폰 매매 알선 및 필로폰 투약 (정읍지청)
  - 2014. 9.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2회 투약 (대구지검)
  - 2014. 9.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산재동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30g 소지 (울산지검)
  - 2014. 10.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두목이 필로폰 투약 (서울중앙지검)

- ▶ 2014. 11.경 영광지역 폭력조직 「영광사거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43g 소지 (광주지검)
- ▶ 2014. 11.경 충남지역 폭력조직 「예산파」 두목이 필로폰 2회 투약 (홍성지청)
- ▶ 2015. 2.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두영건설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 2015. 3.경 경기지역 폭력조직 「동두천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의정부지검)
- ▶ 2015.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유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 2015.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06g 소지, 투약 및 대마 0.13g 소지 (부산지검)
- ▶ 2015.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서면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44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 2015.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07g 소지, 투약 (부산지검)
- ▶ 2015.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준형이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 2015. 7.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부산지검)
- ▶ 2015. 7.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내당동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투약 (평택지청)
- ▶ 2015.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청량리파」 조직원이 필로폰 투약 (평택지청)
- ▶ 2015. 9.경 전남지역 폭력조직 「순천중앙파」 조직원이 필로폰 약 0.03g 교부 및 투약 (순천지청)

- ▶ 2016.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고문이 대마 약 470g 소지 및 대마 3회 흡연 (부산지검)
- ▶ 2016.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8g 소지 및 필로폰 2회 투약 (부산지검)
- ▶ 2016.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부전동파(물개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0.5g 소지 및 필로폰 2회 투약 (부산지검)
- ▶ 2016. 5.~7.경 전북지역 폭력조직 「익산구시장파」 조직원이 필로폰 불상량 수수 및 투약 (청주지검)
- ▶ 2017. 1.~3.경 충청지역 폭력조직 「예산파」 두목이 필로폰 2회 투약 (창원지검)
- ▶ 2017. 7.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월배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1회 투약 및 약 6.2g 소지 (울산지검)
- ▶ 2017. 8.경 수원지역 폭력조직 「수원북문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약 72.69g 소지 (울산지검)
- ▶ 2018. 5.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하단파」 부두목이 필로폰 불상량 투약 (부산서부지청)
- ▶ 2019. 2.경 경남지역 폭력조직 「일호파」 행동대장이 필로폰 0.05g씩 2회 투약 (통영지청)
- ▶ 2020. 2.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지산동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수 회 투약 및 필로폰 4.4g 소지 (대구지검)
- ▶ 2020.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장이 대마 2회 흡연 및 대마초 0.39g 소지 (부산동부지청)

- ▶ 2021. 12.경 울산지역 폭력조직 「시내파」 신신역전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지방검찰청 및 울산시청 청사 주차차단기 등을 손상시켜,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차 다수를 손상시킴 (울산지검)
- ▶ 2022. 1.경 충남지역 폭력조직 「서산식구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부산지검)
- ▶ 2022. 9.경 충남지역 폭력조직 「한실파」 행동대원이 액상대마 흡연 (논산지청)
- ▶ 2022. 10.경 충청지역 폭력조직 「신석만파」 행동대원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제천지청)

### 보복범죄 관련 사건

- ▶ 1998. 4.경 서울지역 조직폭력배가 필로폰 10g에 소금을 섞어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밀매자를 살해 (서울중앙지검)
- ▶ 1999. 6.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유태파」 부두목 등이 필로폰 1kg의 판매대금 7,000만원을 갚지 않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밀매자를 살해 (부산지검)
- ▶ 2000.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신20세기파」 조직원 등이 필로폰 거래 문제로 같은 지역 폭력조직 「온천동파」 두목을 칼로 찔러 살해미수 (서울중앙지검)
- ▶ 2003. 1.경 조치원지역 폭력조직 「시내파」 두목이 1999. 11.경 피해자가 청주지검에서 필로폰 취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공범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6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 협박 (대전지검)
- ▶ 2021. 2.경 구 소련 지역 국적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외국인 범죄단체의 수괴 및 간부 등이 조직 내에서 유통하던 JWH-018(일명 ‘스페이스’)을 피해자들에게 수회 빼앗기자 이를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 상해를 가함 (수원지검)

## 가. 개요

- ▶ 최근 인터넷, SNS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판매하는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면서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이전보다 쉬워지며, 밀매, 투약 등 SNS를 이용한 마약류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 마약류 유통 및 오·남용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2017. 6. 3.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마약류 제조·매매 등 광고행위처벌 신설, '16. 12. 2. 공포) 시행

1. 누구든지 마약류 등의 제조·매매 등 금지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 (제3조 제12호)
2.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제62조 제1항 제4호)

- ▶ 2022년 마약류 판매 광고 단속실적은 105명으로 전년 동기(122명) 대비 13.9% 감소

[표 3-20] 2022년 주요 마약류 광고 단속 실적

월별	관할청	단속(명)	취급마약류(광고 매체)	비고
1월	수원지검	3	LSD, MDMA(다크웹) 대마오일(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부산지검	2	졸피뎀(트위터, 채팅어플)	-
2월	서울중앙지검	5	대마초(다크웹 '하이코리아')	
	인천지검	1	필로폰, 대마(트위터, 텔레그램)	
	대구지검	1	필로폰, JWH-018(텔레그램)	
	부산지검	1	필로폰(채팅어플)	
	부산서부지청	1	필로폰(채팅어플)	
3월	의정부지검	2	GHB, 졸피뎀(채팅어플)	
	부산지검	2	필로폰, 졸피뎀(채팅어플)	
4월	인천지검	6	필로폰(채팅어플) 펜디메트라진(네이버카페, 번개장터) 펜터민(번개장터, 배너광고) 거동편(블로그)	-

월별	관할청	단속(명)	취급마약류(광고 매체)	비고
4월	의정부지검	3	필로폰(다크웹, 채팅어플) 졸피뎴(채팅어플)	-
	수원지검	3	필로폰(채팅어플) 펜타닐(인터넷 배너광고)	-
	청주지검	3	필로폰(채팅어플) 스탈록스(채팅어플) 졸피뎴(채팅어플)	-
	부산지검	2	필로폰(텔레그램) 필로폰(채팅어플)	-
	울산지검	7	필로폰, MDMA(채팅어플)	-
5월	인천지검	5	펜디메트라진(중고거래사이트) 졸피뎴(채팅어플) 필로폰(텔레그램, 트위터)	-
	대구지검	3	필로폰(채팅어플)	-
	부산지검	1	졸피뎴(트위터)	-
6월	의정부지검	1	필로폰(채팅어플)	-
	인천지검	5	펜디메트라진(번개장터, 네이버카페) 암페프라론(번개장터) 펜터민(번개장터) 알프라졸람(번개장터)	-
	청주지검	1	펜디메트라진(번개장터)	-
	대구지검	2	필로폰(채팅어플) 펜터민(번개장터)	-
	대구서부지청	1	펜터민(트위터)	-
	부산지검	3	필로폰(채팅어플)	-
	부산동부지청	2	필로폰(채팅어플, 트위터)	-
	부산서부지청	1	펜디메트라진(네이버카페)	-
7월	울산지검	1	필로폰(채팅어플)	-
	의정부지검	2	졸피뎴(채팅어플)	-
	인천지검	4	졸피뎴(트위터, 채팅어플) 펜터민(번개장터)	-
	대전지검	2	펜터민(다음카페) GHB(채팅어플)	-
8월	청주지검	1	필로폰, LSD(텔레그램)	-
	인천지검	2	펜디메트라진(네이버카페)	-
	성남지청	1	필로폰, MDMA, 합성대마(채팅어플)	-
9월	부산지검	1	필로폰(채팅어플)	-
	통영지청	1	필로폰(채팅어플)	-
9월	의정부지검	3	필로폰(채팅어플) 졸피뎴(채팅어플)	-
	부산지검	2	필로폰(채팅어플)	-

월별	관할청	단속(명)	취급마약류(광고 매체)	비고
10월	의정부지검	3	필로폰(채팅어플)	-
	인천지검	1	펜디메트라진(번개장터)	-
	부산지검	4	필로폰(채팅어플, 인스타그램) 케타민, MDMA(틱톡)	-
11월	인천지검	1	필로폰(채팅어플)	-
	의정부지검	3	필로폰, MDMA(채팅어플)	-
	대구지검	1	펜디메트라진(번개장터)	-
	부산지검	2	필로폰(트위터, 텔레그램, 채팅어플)	-
12월	인천지검	2	GHB, 이소부틸니트리트(성인사이트) 펜터민(트위터)	-
	의정부지검	1	대마(채팅어플)	
총계		105		

## 나. 주요 수사 사례

### ▶ 2017년

- 인터넷에 4회에 걸쳐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게시하여 필로폰 매수 희망자 13명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전력 마약사범 구속 (6월, 서울중앙지검)
- 채팅어플 '즐톡'에 '아이스 작대기 있다능, 얼음 있어요, 시원한 아이스 얼음 있어요' 등의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10월, 안동지청)

### ▶ 2018년

-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SNS '페이스북'에 가입하여 게시판에 "신상ㄱ 냄새풀풀 고약, ... 신상 christal"이라는 내용을 필로폰 판매 광고를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 (3월, 의정부지검)
- '트위터', '유튜브'와 '다크웹' 등에 "떨팝니다, 대마팝니다, 대마초 팝니다.....와이어 메신저 ID: 〇〇〇 친추.... 사진 선명도 확인 보유된 제품의 양 확인.... 사기꾼에게 당하지 마시고 ... 이용하세요...." 등의 대마 판매 광고글을 234회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 (3월, 서울중앙지검)
- '다크웹'에 "... 대마 품종의 한 종류 팝니다. 〇〇리 시드샵에서 구매 했습니다. ... 전날미리 입금하시면 다음날 통신 시간대에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총 16회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 (10월 서울중앙지검)

- '다크웹'에 '[ON][서울 경기] ice, mess 순도 97%↑ 원산지: north korea'라는 제목 아래, "... 여러분께 순도 높은 북한산 얼음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 최소 수량 1짝대기 ○○에 모십니다. 대량 도매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 (11월, 서울중앙지검)

### ▶ 2019년

- 2019년 ~ 2020년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 다크웹 수사팀을 설치·운영하여 다크웹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
- 다크웹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짜짜짜! 솔루션의 재배력도 같이 자라는지 안팎으로 트라이콤피 딱 찬드들이 주렁주렁 열렸답니다"라는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총 9회에 걸쳐 대마 약 74g을 판매한 마약사범 구속, 대마초 약 400g 압수 (4월, 서울중앙지검)
- '트위터' 등에 "제가 단골 되어드리구 확실한 놈이란 꼬리표 붙게끔 열심히 뛰어댁겨요. 언제든지 통신보안, 안전드랍, 생명입니다"라는 내용의 대마 및 엑스터시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총 42회에 걸쳐 대마 약 84g 및 엑스터시 6정을 판매한 마약사범 2명 구속(7월, 서울중앙지검)
- '다크웹' 하이코리아 및 미미숍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총 238회에 걸쳐 약 2억 원 상당의 대마 약 2kg을 판매한 마약사범 구속 (12월, 서울중앙지검)
- 다크웹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안녕하세요! 풀○○선생님입니다. 1월31자로 재입고 완료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하여 대마 약 1kg을 약 9,000만 원에 판매한 마약사범 3명 적발하여 2명 구속, 창고건물에서 재배 중인 대마 351주 및 대마초 약 877g 압수 (3월, 서울중앙지검)

### ▶ 2020년

- 다크웹 대마 전문 판매사이트에 약 16회 대마 판매광고를 게시하여 712회에 걸쳐 3억 8,200만 원 상당의 대마초 5.6kg을 판매한 마약사범 2명 적발하여 1명 구속, 대마 197주 및 대마초 약 3.4kg 압수 (2월, 서울중앙지검)
- 서울 소재 상가 지하건물에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직접 대마를 재배한 후 인터넷, SNS, 다크웹 등에 123회에 걸쳐 대마 판매광고를 게시하여 5천9백만



- 원 상당의 대마 580g을 판매한 마약사범 2명 적발, 1명 구속, 대마 56주 및 대마초 488g 압수 (2월, 서울중앙지검)
- 주거지에서 재배한 대마 및 캐나다에서 밀수한 대마 농축액을 이용하여 대마 카트리지를 제조하고, 다크웹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대마 판매광고를 게시하여 대마카트리지를 판매한 마약사범 3명 적발, 2명 구속, 대마 농축액 514.76g 및 대마카트리지 69개 압수 (3월, 서울중앙지검)
  - 주거용 빌라에 재배시설을 갖추고 환각버섯·대마를 재배한 후 인터넷에 43회에 걸쳐 환각버섯, 대마, LSD, 아편 등 판매광고를 게시한 마약사범 구속, 환각버섯 106주 및 12g, 대마 7주 압수 (6월, 서울중앙지검)
  -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한 다음 “도매 전문점입니다. 술, 아이스가 부족해서 판매하지 못하거나 혹은 똥술, 멍술 뿐이라면 판매를 접겠습니다” 등과 같이 케타민, 엑스터시 판매광고를 게시한 마약사범 4명 적발, 2명 구속, 엑스터시 3,000정, 케타민 2kg 압수 (10월, 창원지검)
  - 텔레그램 공개채널 ‘OO이네’를 개설하여, 그 채널에 마약류 촬영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인증딜러 OO환입니다. 서울 인천 드랍 안전을 최우선으로 엘, 캔디 ㅇㅇ스입고!!” 등과 같이 LSD, 엑스터시,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29회에 걸쳐 게시하고, 총 472회에 걸쳐 함께 2억5천9백만 원 상당의 LSD 25탭, 필로폰 9g, 엑스터시 126정, 대마 1,551g, 액상대마 94개를 판매한 마약사범 구속, LSD 28탭, 필로폰 10.15g, 엑스터시 94정, 대마 약 118.81g 압수 (10월, 서울중앙지검)
  - 텔레그램 공개채널을 개설한 다음, 그 채널에 마약류 촬영사진과 함께 “안녕하세요. OOO체 인사드립니다. 취급품목 : 엑스터시, 아이스 빠른 거래 빠른 좌표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등과 같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 판매광고를 30회에 걸쳐 게시한 마약사범 2명 구속, 필로폰 68.85g, 케타민 59.09g, MDMA 88정, 대마초 154.58g, LSD 5탭 압수 (12월, 서울중앙지검)

▶ 2021년

- 상가건물 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다크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마 매매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한 후, 대마 약 82g(가액 약 1,060만원)을 매매, 위 건물 내 대마 약 1,867.98g 보관하여 소지한 마약사범 구속, 대마 약 1,867.98g 압수 (3월, 서울중앙지검)

## 9

## 지역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

[표 3-21]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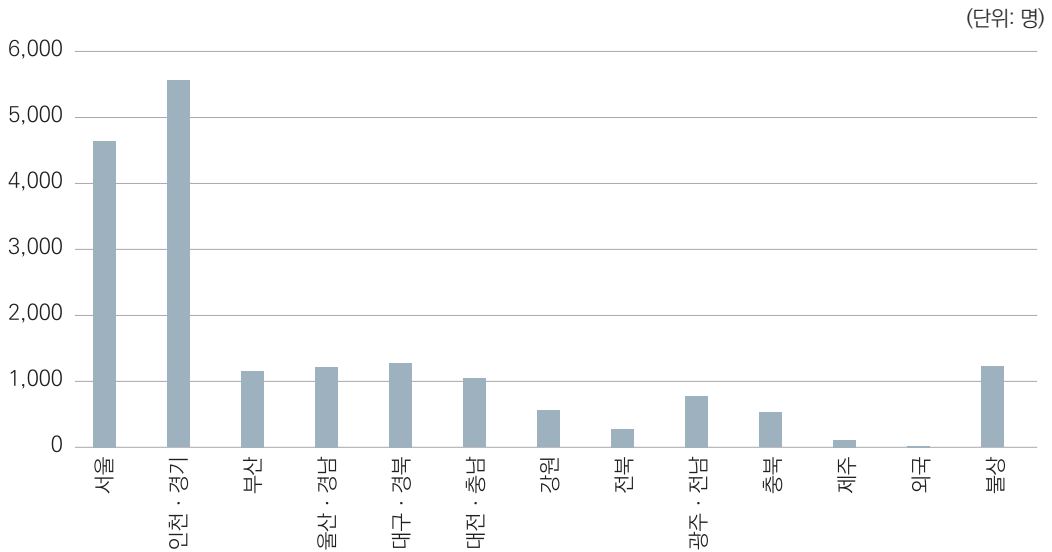
지역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2,613	16,044	18,050	16,153	18,395
		(100)	(100)	(100)	(100)	(100)
서울		2,677	3,607	4,015	4,044	4,640
		(21.2)	(22.5)	(22.2)	(25.0)	(25.2)
인천·경기		3,530	4,931	5,555	5,407	5,559
		(28.0)	(30.7)	(30.8)	(33.5)	(30.2)
부산		1,125	935	1,191	880	1,159
		(8.9)	(5.8)	(6.6)	(5.4)	(6.3)
울산·경남		1,001	1,156	1,278	988	1,215
		(7.9)	(7.2)	(7.1)	(6.1)	(6.6)
대구·경북		977	1,193	1,320	1,015	1,279
		(7.7)	(7.4)	(7.3)	(6.3)	(7.0)
대전·충남		751	923	1,112	932	1,042
		(6.0)	(5.8)	(6.2)	(5.8)	(5.7)
강원		363	538	465	351	559
		(2.9)	(3.4)	(2.6)	(2.2)	(3.0)
전북		140	226	274	204	274
		(1.1)	(1.4)	(1.5)	(1.3)	(1.5)
광주·전남		391	468	751	715	778
		(3.1)	(2.9)	(4.2)	(4.4)	(4.2)
충북		362	419	455	370	526
		(2.9)	(2.6)	(2.5)	(2.3)	(2.9)
제주		56	89	93	75	113
		(0.4)	(0.6)	(0.5)	(0.5)	(0.6)
외국		53	61	107	16	25
		(0.4)	(0.4)	(0.6)	(0.1)	(0.1)
불상		1,187	1,498	1,434	1,156	1,226
		(9.4)	(9.3)	(7.9)	(7.2)	(6.7)

※ ( )는 구성비 %

▶ 2022년도 지역별 점유율

- 인천·경기(30.2%) > 서울(25.2%) > 대구·경북(7.0%) > 울산·경남(6.6%) > 부산(6.3%) > 대전·충남(5.7%) 순으로 전체사범 중 55.4%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음

[그림 3-10] 마약류사범 지역별 현황



[표 3-22] 2년간 마약류사범 지역별 증감 현황

(단위: 명)

지역별	구분	2021	2022	증감률(%)
서울		4,044	4,640	14.7
인천·경기		5,407	5,559	2.8
부산		880	1,159	31.7
울산·경남		988	1,215	23.0
대구·경북		1,015	1,279	26.0
대전·충남		932	1,042	11.8
강원		351	559	59.3
전북		204	274	34.3
광주·전남		715	778	8.8
충북		370	526	42.1
제주		75	113	50.7
외국		16	25	56.2
불상		1,156	1,226	6.1

- ▶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단속인원은 모두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강원지역(59.3%) > 제주지역(50.7%) > 충북지역(42.1%)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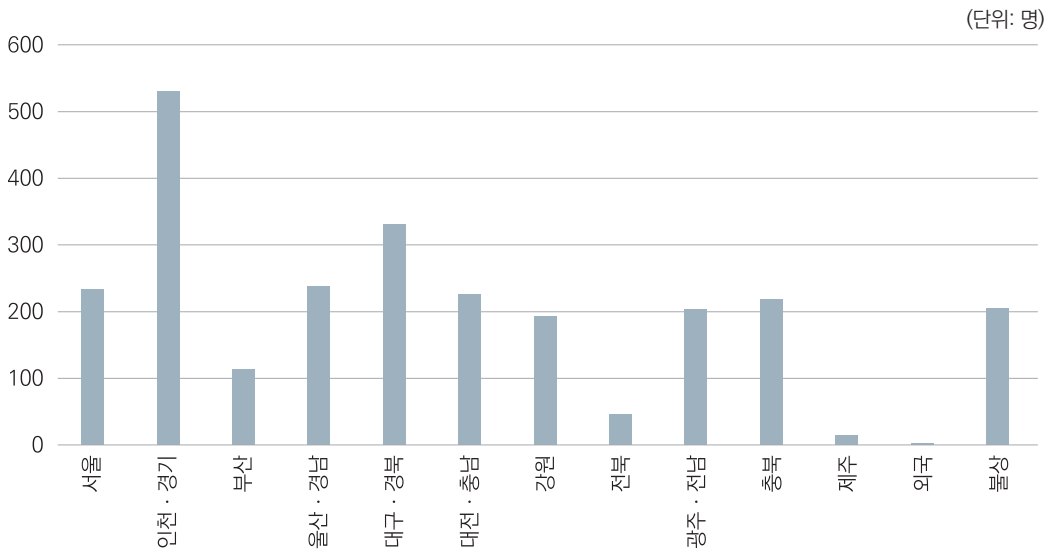
[표 3-23]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지역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467 (100)	1,804 (100)	2,198 (100)	1,745 (100)
서울		97 (6.6)	161 (8.9)	121 (5.5)	128 (7.3)	233 (9.1)
	인천·경기	352 (24.0)	408 (22.6)	499 (22.7)	368 (21.1)	530 (20.7)
부산		41 (2.8)	40 (2.2)	62 (2.8)	33 (1.9)	114 (4.5)
	울산·경남	148 (10.1)	157 (8.7)	279 (12.7)	306 (17.5)	237 (9.3)
대구·경북		181 (12.3)	191 (10.6)	293 (13.3)	238 (13.6)	331 (13.0)
	대전·충남	136 (9.3)	136 (7.5)	224 (10.2)	191 (10.9)	226 (8.9)
강원		180 (12.3)	230 (12.7)	212 (9.6)	117 (6.7)	193 (7.6)
	전북	15 (1.0)	25 (1.4)	39 (1.8)	21 (1.2)	45 (1.8)
광주·전남		110 (7.5)	138 (7.6)	173 (7.9)	115 (6.6)	203 (8.0)
	충북	139 (9.5)	172 (9.5)	215 (9.8)	137 (7.9)	218 (8.5)
제주		1 (0.1)	0 (0.0)	2 (0.1)	9 (0.5)	14 (0.5)
	외국	7 (0.5)	2 (0.1)	0 (0.0)	5 (0.3)	2 (0.1)
불상		60 (4.1)	144 (8.0)	79 (3.6)	77 (4.4)	205 (8.0)

※ ( )는 구성비%

[그림 3-11] 마약사범 지역별 현황



▶ 2022년도 마약사범은 울산·경남지역(-22.5%)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부산지역이 전년대비 245.5%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세를 보임

▶ 마약사범 지역별 점유율

- 인천·경기지역(20.7%) > 대구·경북지역(13.0%) > 울산·경남지역(9.3%) >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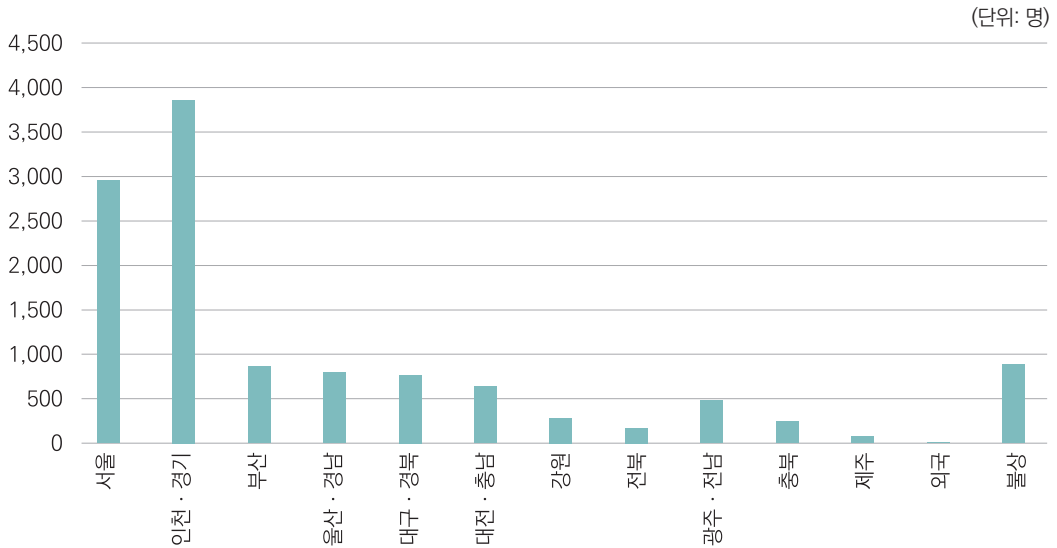
[표 3-24] 최근 5년간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지역별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9,613	11,611	12,640	10,631	12,035
	(100)	(100)	(100)	(100)	(100)
서울	2,131	2,401	2,746	2,466	2,957
	(22.2)	(20.7)	(21.7)	(23.1)	(24.6)
인천·경기	2,703	3,725	4,037	3,677	3,861
	(28.1)	(32.1)	(31.9)	(34.6)	(32.1)
부산	973	839	980	716	866
	(10.1)	(7.2)	(7.8)	(6.7)	(7.2)
울산·경남	778	893	849	554	792
	(8.1)	(7.7)	(6.7)	(5.2)	(6.6)
대구·경북	706	870	898	654	769
	(7.3)	(7.5)	(7.1)	(6.2)	(6.4)
대전·충남	522	687	722	578	642
	(5.4)	(5.9)	(5.7)	(5.4)	(5.3)
강원	136	236	210	175	285
	(1.4)	(2.0)	(1.7)	(1.6)	(2.4)
전북	111	177	206	155	171
	(1.2)	(1.5)	(1.6)	(1.5)	(1.4)
광주·전남	250	282	466	455	478
	(2.6)	(2.4)	(3.7)	(4.3)	(4.0)
충북	197	205	209	181	246
	(2.0)	(1.8)	(1.7)	(1.7)	(2.0)
제주	46	68	70	36	75
	(0.5)	(0.6)	(0.6)	(0.3)	(0.6)
외국	39	43	45	7	11
	(0.4)	(0.4)	(0.4)	(0.1)	(0.1)
불상	1,021	1,185	1,202	977	882
	(10.6)	(10.2)	(9.5)	(9.2)	(7.3)

※ ( )는 구성비 %

[그림 3-12] 향정사범 지역별 현황



- ▶ 2022년도 향정사범은 12,035명으로 전년(10,631명)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증가함
- ▶ 향정사범 지역별 점유율 및 증가세
  - 점유율 : 인천·경기지역(32.1%) > 서울지역(24.6%) > 부산지역(7.2%) 순
  - 증가세 : 제주지역(108.3%) > 강원지역(65.9%) > 울산·경남지역(43.0%) 순

[표 3-25] 최근 5년간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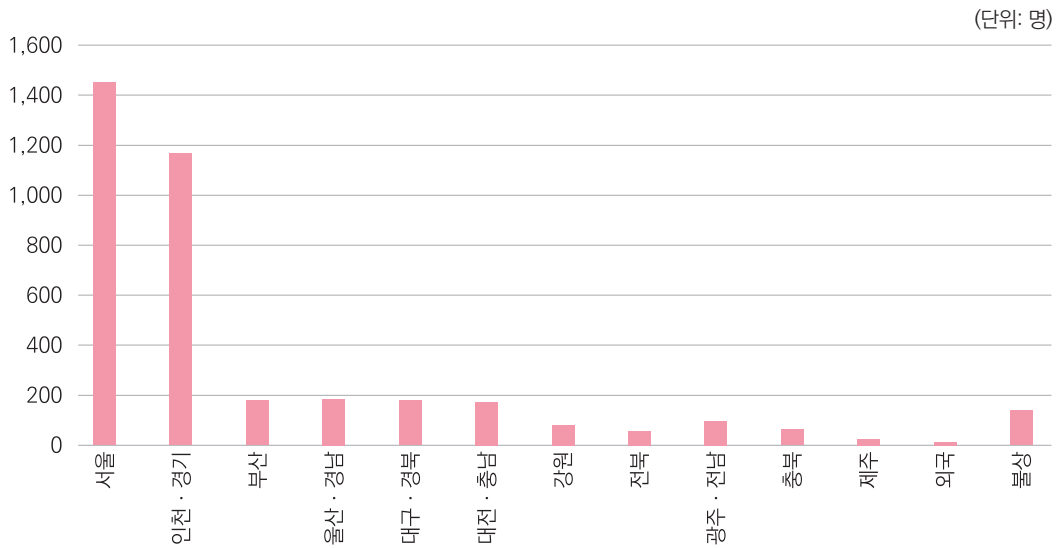
(단위: 명)

지역별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533	2,629	3,212	3,777	3,809
	(100)	(100)	(100)	(100)	(100)
서울	449	1,045	1,148	1,450	1,450
	(29.3)	(39.7)	(35.7)	(38.4)	(38.1)
인천·경기	475	798	1,019	1,362	1,168
	(31.0)	(30.4)	(31.7)	(36.1)	(30.7)
부산	111	56	149	131	179
	(7.2)	(2.1)	(4.6)	(3.5)	(4.7)
울산·경남	75	106	150	128	186
	(4.9)	(4.0)	(4.7)	(3.4)	(4.9)
대구·경북	90	132	129	123	179
	(5.9)	(5.0)	(4.0)	(3.3)	(4.7)
대전·충남	93	100	166	163	174
	(6.1)	(3.8)	(5.2)	(4.3)	(4.6)
강원	47	72	43	59	81
	(3.1)	(2.7)	(1.3)	(1.6)	(2.1)
전북	14	24	29	28	58
	(0.9)	(0.9)	(0.9)	(0.7)	(1.5)
광주·전남	31	48	112	145	97
	(2.0)	(1.8)	(3.5)	(3.8)	(2.5)
충북	26	42	31	52	62
	(1.7)	(1.6)	(1.0)	(1.4)	(1.6)
제주	9	21	21	30	24
	(0.6)	(0.8)	(0.7)	(0.8)	(0.6)
외국	7	16	62	4	12
	(0.5)	(0.6)	(1.9)	(0.1)	(0.3)
불상	106	169	153	102	139
	(6.9)	(6.4)	(4.8)	(2.7)	(3.6)

※ ( )는 구성비 %



[그림 3-13] 대마사범 지역별 현황



▶ 2022년도 대마사범은 3,809명으로 전년(3,777명) 대비 0.84% 증가하였으며, 전북지역이 58명으로 전년(28명) 대비 107.1% 증가하였으며,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남, 제주지역은 감소함

▶ 대마사범 지역별 점유율

· 서울지역(38.0%) > 인천·경기지역(30.7%) > 울산·경남지역(4.9%) 순

[표 3-26]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2,613 (100)	16,044 (100)	18,050 (100)	16,153 (100)	18,395 (100)
무직	3,753 (29.8)	4,972 (31.0)	5,826 (32.3)	5,492 (34.0)	5,792 (31.5)
농업	426 (3.4)	406 (2.5)	553 (3.1)	287 (1.8)	461 (2.5)
도소매업	63 (0.5)	93 (0.6)	56 (0.3)	83 (0.5)	80 (0.4)
유흥업	104 (0.8)	151 (0.9)	126 (0.7)	94 (0.6)	202 (1.1)
서비스업	175 (1.4)	225 (1.4)	231 (1.3)	238 (1.5)	245 (1.3)
금융/증권	21 (0.2)	13 (0.1)	34 (0.2)	20 (0.1)	23 (0.1)
부동산업	32 (0.3)	19 (0.1)	25 (0.1)	38 (0.2)	46 (0.3)
노동	407 (3.2)	588 (3.7)	691 (3.8)	693 (4.3)	790 (4.3)
회사원	534 (4.2)	723 (4.5)	962 (5.3)	1,010 (6.3)	1,137 (6.2)
공업	126 (1.0)	206 (1.3)	278 (1.5)	246 (1.5)	174 (0.9)
건설	80 (0.6)	130 (0.8)	127 (0.7)	76 (0.5)	62 (0.3)
의료	98 (0.8)	130 (0.8)	222 (1.2)	156 (1.0)	165 (0.9)
운송업	98 (0.8)	109 (0.7)	88 (0.5)	75 (0.5)	84 (0.5)
가사	168 (1.3)	180 (1.1)	270 (1.5)	195 (1.2)	187 (1.0)
예술/연예	43 (0.3)	49 (0.3)	62 (0.3)	72 (0.4)	66 (0.4)
어업	29 (0.2)	38 (0.2)	34 (0.2)	50 (0.3)	28 (0.2)
학생	123 (1.0)	241 (1.5)	368 (2.0)	494 (3.1)	543 (3.0)

직업별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교원(교수)					13 (0.1)
직업미상	1,382 (11.0)	1,695 (10.6)	1,805 (10.0)	1,487 (9.2)	1,854 (10.1)
기타	4,951 (39.3)	6,076 (37.9)	6,292 (34.9)	5,347 (33.1)	6,443 (35.0)

※ 2022년도부터 '교원(교수)' 항목 추가  
 ※ ( )는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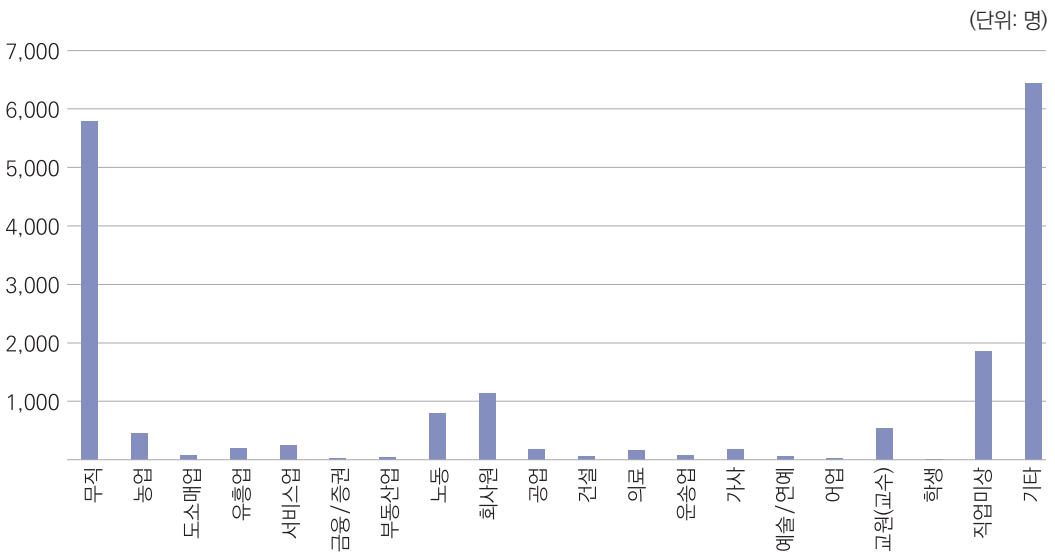
▶ 202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점유율

- 무직(31.5%) > 회사원(6.2%) > 노동 (4.3%) 순

▶ 유형별 점유율

- 마약사범 : 무직(36.1%) > 농업(15.6%) > 가사(4.1%) 순
- 향정사범 : 무직(33.6%) > 노동(5.4%) > 회사원(5.1) 순
- 대마사범 : 무직(21.8%) > 회사원(12.0%) > 회사원(3.8%) 순

[그림 3-14] 마약류사범 직업별 현황



[표 3-27]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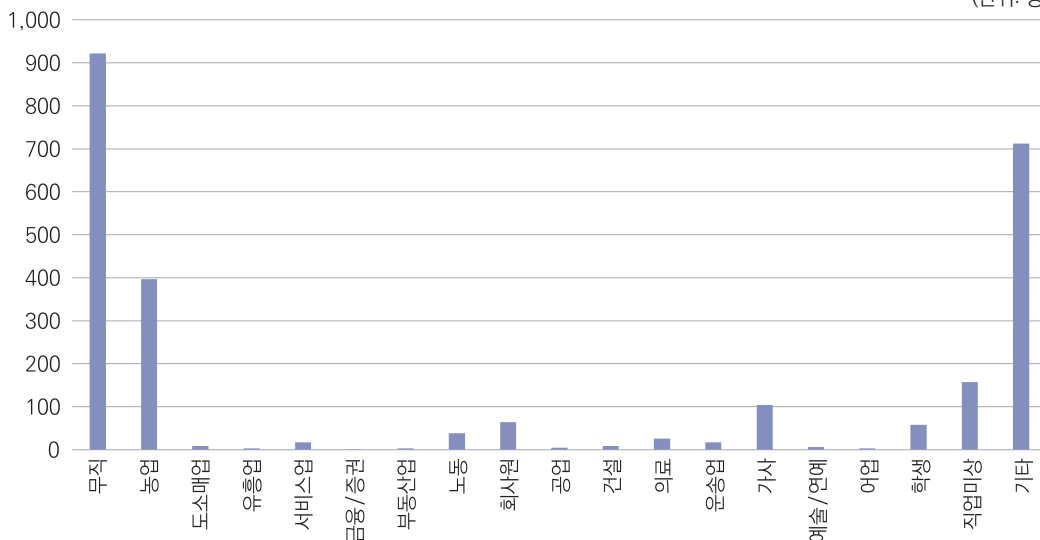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직업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467	1,804	2,198	1,745	2,551
무직	438	595	788	648	922
농업	351	336	465	244	397
도소매업	2	8	4	4	9
유흥업	0	10	0	2	3
서비스업	17	12	18	13	17
금융/증권	0	0	0	0	1
부동산업	2	1	0	5	3
노동	27	21	24	26	38
회사원	36	46	28	51	64
공업	3	6	1	6	5
건설	2	4	11	6	9
의료	22	32	22	22	26
운송업	10	6	8	14	17
가사	63	71	111	60	104
예술/연예	2	4	0	11	6
어업	3	2	12	8	3
학생	1	4	35	117	58
직업미상	61	153	124	61	157
기타	427	493	547	447	712

※ 2022년도부터 '교원(교수)' 항목 추가

[그림 3-15] 마약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표 3-28] 최근 5년간 행정사범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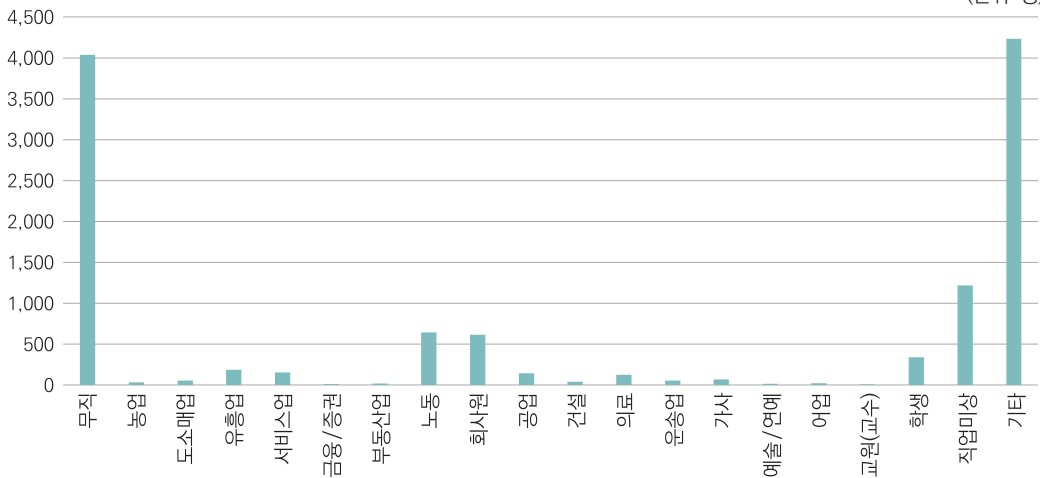
(단위: 명)

직업별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9,613	11,611	12,640	10,631	12,035
무직	2,996	3,744	4,268	3,981	4,038
농업	37	41	61	30	33
도소매업	51	73	41	61	55
유흥업	94	108	108	85	187
서비스업	143	157	162	152	156
금융/증권	17	8	25	9	11
부동산업	25	15	22	25	20
노동	335	487	543	552	643
회사원	403	512	667	500	616
공업	99	180	247	214	144
건설	70	113	103	55	40
의료	76	96	196	130	127
운송업	77	91	71	49	57
가사	100	100	143	113	68
예술/연예	16	19	13	7	15
어업	23	35	16	34	23
교원(교수)					9
학생	73	140	191	203	341
직업미상	1,140	1,300	1,376	1,024	1,218
기타	3,838	4,392	4,387	3,407	4,234

※ 2022년도부터 '교원(교수)' 항목 추가

[그림 3-16] 행정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표 3-29] 최근 5년간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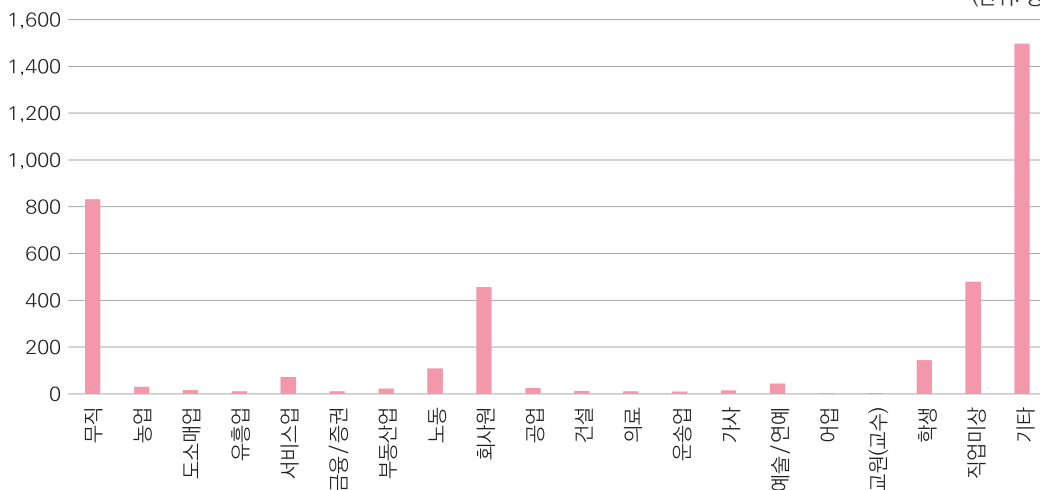
(단위: 명)

직업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533	2,629	3,212	3,777	3,809
무직		319	633	770	863	832
농업		38	29	27	13	31
도소매업		10	12	11	18	16
유흥업		10	33	18	7	12
서비스업		15	56	51	73	72
금융/증권		4	5	9	11	11
부동산업		5	3	3	8	23
노동		45	80	124	115	109
회사원		95	165	267	459	457
공업		24	20	30	26	25
건설		8	13	13	15	13
의료		0	2	4	4	12
운송업		11	12	9	12	10
가사		5	9	16	22	15
예술/연예		25	26	49	54	45
어업		3	1	6	8	2
교원(교수)						4
학생		49	97	142	174	144
직업미상		181	242	305	402	479
기타		686	1,191	1,358	1,493	1,497

※ 2022년도부터 '교원(교수)' 항목 추가

[그림 3-17] 대마사범 직업별 현황

(단위: 명)



[표 3-30] 2022년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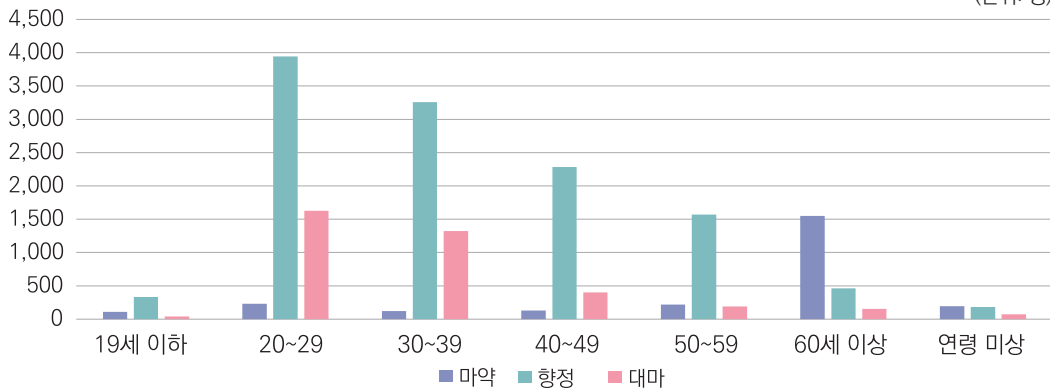
(단위: 명)

마약류 \ 연령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합계	481 (2.6)	5,804 (31.6)	4,703 (25.6)	2,815 (15.3)	1,976 (10.7)	2,166 (11.8)	450 (2.4)	18,395 (100)
마약	108 (4.2)	231 (9.1)	122 (4.8)	128 (5.0)	218 (8.5)	1,550 (60.8)	194 (7.6)	2,551 (100)
향정	332 (2.7)	3,945 (32.8)	3,259 (27.1)	2,285 (19.0)	1,569 (13.0)	463 (3.8)	182 (1.5)	12,035 (100)
대마	41 (1.1)	1,628 (42.7)	1,322 (34.7)	402 (10.6)	189 (5.0)	153 (4.0)	74 (1.9)	3,809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18]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202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이 57.1%를 차지하며 2021년 56.8%로 처음 50% 돌파한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SNS 등의 보급과 이를 이용한 마약류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젊은층의 마약류범죄가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됨

▶ 특히, 2022년도에는 10대 마약류사범도 481명(2.6%)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함

[표 3-31]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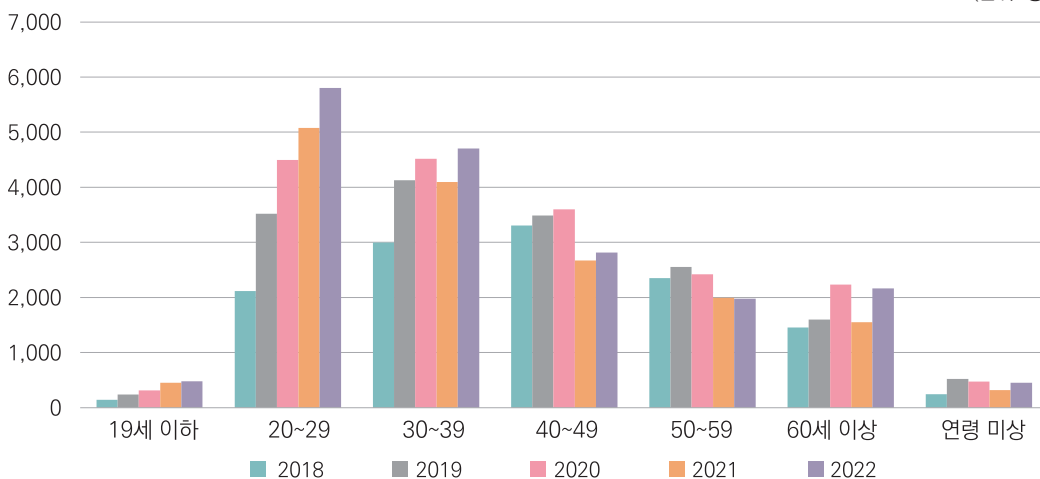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연령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8		143	2,118	2,996	3,305	2,352	1,457	242	12,613
		(1.1)	(16.8)	(23.8)	(26.2)	(18.6)	(11.6)	(1.9)	(100)
2019		239	3,521	4,126	3,487	2,554	1,598	519	16,044
		(1.5)	(21.9)	(25.7)	(21.7)	(15.9)	(10.0)	(3.2)	(100)
2020		313	4,493	4,516	3,599	2,423	2,232	474	18,050
		(1.7)	(24.9)	(25.0)	(19.9)	(13.4)	(12.4)	(2.6)	(100)
2021		450	5,077	4,096	2,670	1,992	1,550	318	16,153
		(2.8)	(31.4)	(25.4)	(16.5)	(12.3)	(9.6)	(2.0)	(100)
2022		481	5,804	4,703	2,815	1,976	2,166	450	18,395
		(2.6)	(31.6)	(25.6)	(15.3)	(10.7)	(11.8)	(2.4)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19] 연도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표 3-32]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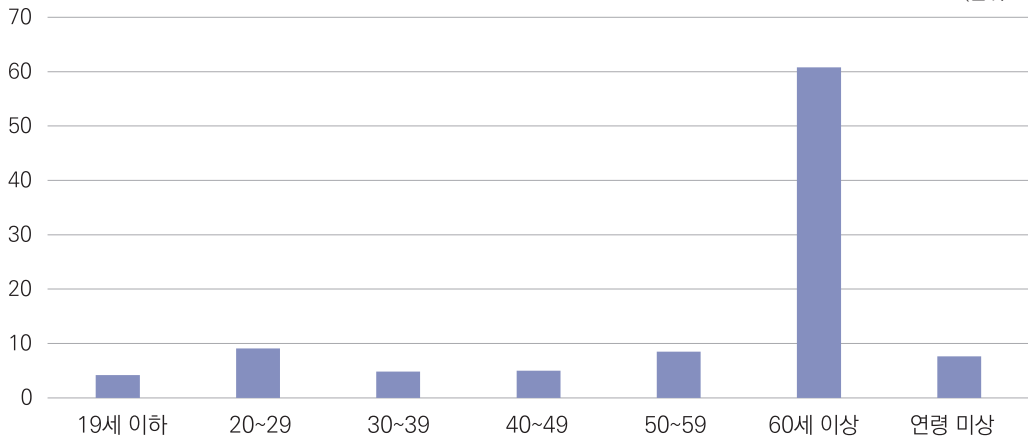
연도별	연령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8		2	65	71	103	236	961	29	1,467
		(0.1)	(4.4)	(4.8)	(7.0)	(16.1)	(65.5)	(2.0)	(100)
2019		3	99	139	107	237	1,098	121	1,804
		(0.2)	(5.5)	(7.7)	(5.9)	(13.1)	(60.9)	(6.7)	(100)
2020		39	116	84	101	247	1,550	61	2,198
		(1.8)	(5.3)	(3.8)	(4.6)	(11.2)	(70.5)	(2.8)	(100)
2021		196	150	88	78	176	990	67	1,745
		(11.2)	(8.6)	(5.0)	(4.5)	(10.1)	(56.7)	(3.8)	(100)
2022		108	231	122	128	218	1,550	194	2,551
		(4.2)	(9.1)	(4.8)	(5.0)	(8.5)	(60.8)	(7.6)	(100)

※ ( )는 구성비 %

- ▶ 2022년도 마약사범은 60세 이상이 전체의 60.8% 차지하여, 이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이 양귀비를 밀경작하다 적발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그림 3-20] 마약사범 연령별 구성비

(단위: %)



[표 3-33] 최근 5년간 향정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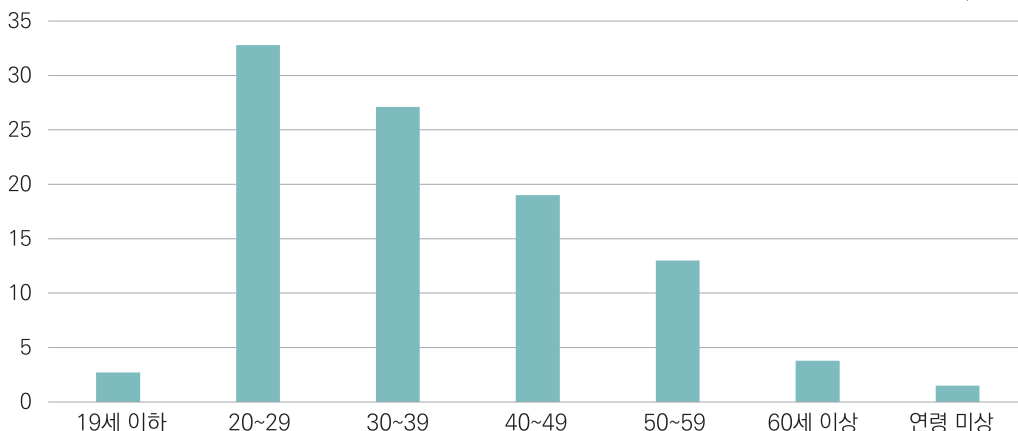
연도별 \ 연령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8	105	1,522	2,522	2,979	1,924	389	172	9,613
	(1.1)	(15.8)	(26.2)	(31.0)	(20.0)	(4.0)	(1.8)	(100)
2019	167	2,255	3,239	3,123	2,092	403	332	11,611
	(1.4)	(19.4)	(27.9)	(26.9)	(18.0)	(3.5)	(2.9)	(100)
2020	196	2,896	3,449	3,204	1,996	562	337	12,640
	(1.6)	(22.9)	(27.3)	(25.3)	(15.8)	(4.4)	(2.7)	(100)
2021	192	3,044	2,819	2,287	1,632	455	202	10,631
	(1.8)	(28.6)	(26.5)	(21.5)	(15.4)	(4.3)	(1.9)	(100)
2022	332	3,945	3,259	2,285	1,569	463	182	12,035
	(2.7)	(32.8)	(27.1)	(19.0)	(13.0)	(3.8)	(1.5)	(100)

※ ( )는 구성비 %

- ▶ 2022년도 향정사범은 20·30대가 59.9%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이는 젊은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과 낮아진 진입장벽, 신종 마약류의 유입 등이 원인으로 분석됨

[그림 3-21] 향정사범 연령별 구성비

(단위: %)



[표 3-34] 최근 5년간대마사범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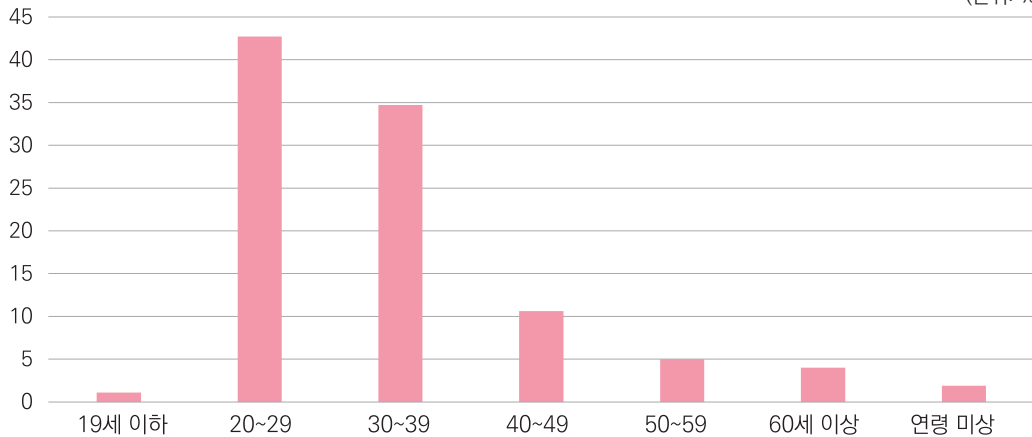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 연령별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연령 미상	합계
2018	36	531	403	223	192	107	41	1,533
	(2.3)	(34.6)	(26.3)	(14.5)	(12.5)	(7.0)	(2.7)	(100)
2019	69	1,167	748	257	225	97	66	2,629
	(2.6)	(44.4)	(28.5)	(9.8)	(8.6)	(3.7)	(2.5)	(100)
2020	78	1,481	983	294	180	120	76	3,212
	(2.4)	(46.1)	(30.6)	(9.2)	(5.6)	(3.7)	(2.4)	(100)
2021	62	1,883	1,189	305	184	105	49	3,777
	(1.6)	(49.9)	(31.5)	(8.1)	(4.9)	(2.8)	(1.3)	(100)
2022	41	1,628	1,322	402	189	153	74	3,809
	(1.1)	(42.7)	(34.7)	(10.6)	(5.0)	(4.0)	(1.9)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22] 대마사범 연령별 구성비

(단위: %)



➤ 2022년도 대마사범은 20·30대가 77.4%를 차지함

[표 3-35]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성별 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구분	마약		향정		대마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8		715	752	7,812	1,801	1,367	166	9,894	2,719
		(48.7)	(51.3)	(81.3)	(18.7)	(89.2)	(10.8)	(78.4)	(21.6)
2019		926	878	9,258	2,353	2,283	346	12,467	3,577
		(51.3)	(48.7)	(79.7)	(20.3)	(86.8)	(13.2)	(77.7)	(22.3)
2020		1,045	1,153	9,615	3,025	2,833	379	13,493	4,557
		(47.5)	(52.5)	(76.1)	(23.9)	(88.2)	(11.8)	(74.8)	(25.2)
2021		993	752	8,020	2,611	3,322	455	12,335	3,818
		(56.9)	(43.1)	(75.4)	(24.6)	(88.0)	(12.0)	(76.4)	(23.6)
2022		1,323	1,228	8,890	3,145	3,216	593	13,429	4,966
		(51.9)	(48.1)	(73.9)	(26.1)	(84.4)	(15.6)	(73.0)	(27.0)

※ ( )는 구성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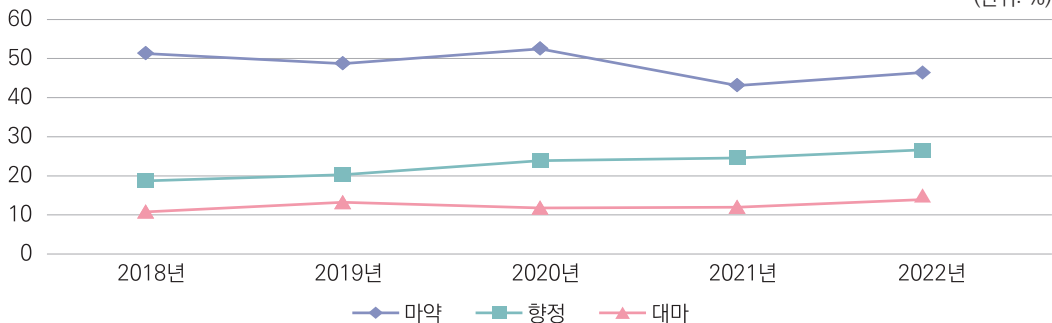
▶ 전체 마약류사범 중 여성 비중은 2016년도부터 2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27.0%를 기록함

▶ 유형별 증가율

- 전체 여성 마약류사범 : 4,966명으로 전년대비(3,818명) 30.1% 증가
- 여성 마약사범 : 1,228명으로 전년대비(752명) 63.3% 증가
- 여성 향정사범 : 3,145명으로 전년대비(2,611명) 20.5% 증가
- 여성 대마사범 : 593명으로 전년대비(455명) 30.3% 증가

[그림 3-23] 마약류사범 마약류별 여성비율

(단위: %)



[표 3-36] 2022년 마약류사범 성별 · 직업별 구성비

(단위: 명)

직업별	성별		성별	
	남	여	남	여
합계	13,429	(73.0)	4,966	(27.0)
무직	3,840	(66.3)	1,952	(33.7)
농업	274	(59.4)	187	(40.6)
도소매업	71	(88.8)	9	(11.3)
유흥업	61	(30.2)	141	(69.8)
서비스업	195	(79.6)	50	(20.4)
금융/증권	17	(73.9)	6	(26.1)
부동산업	45	(97.8)	1	(2.2)
노동	723	(91.5)	67	(8.5)
회사원	891	(78.4)	246	(21.6)
공업	165	(94.8)	9	(5.2)
건설	61	(98.4)	1	(1.6)
의료	106	(64.2)	59	(35.8)
운송업	84	(100.0)	0	(0.0)
가사	1	(0.5)	186	(99.5)
예술/연예	52	(78.8)	14	(21.2)
어업	26	(92.9)	2	(7.1)
교원(교수)	7	(53.8)	6	(46.2)
학생	260	(47.9)	283	(52.1)
직업미상	1,462	(78.9)	392	(21.1)
기타	5,088	(79.0)	1,355	(21.0)

※ ( )는 구성비 %

[그림 3-24] 마약류사범 성별 · 직업별 구성비

(단위: %)



## 13 학력별 현황

### ▶ 마약류사범 유형별 학력 구성비

- 전체 : 고졸(34.3%) > 대졸(18.1%) > 중졸(9.7%) 순
- 마약사범 : 초졸(21.8%) > 고졸(19.4%) > 중졸(9.3%) > 무학(9.1%) 순
- 향정사범 : 고졸(37.5%) > 대졸(16.4%) > 중졸(11.5%) > 순
- 대마사범 : 고졸(33.4%) > 대졸(31.8%) > 전문대졸(4.8%) > 순

- ▶ 마약류사범의 학력별 점유율은 고졸 이하가 52.0%(전년도 5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농촌지역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이 다수를 차지하였는데, 무학자(9.1%)와 초졸(21.8%) 비율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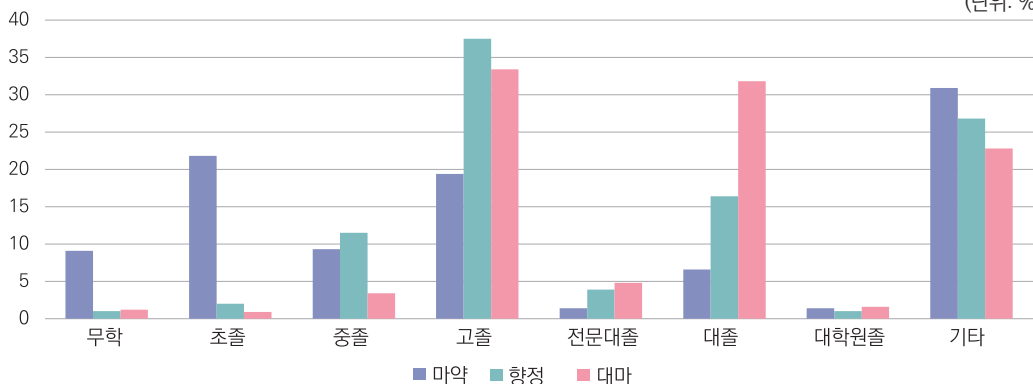
[표 3-37] 2022년 마약류별 학력별 구성비

(단위: %)

마약류 \ 학력별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기타	합계
마약	9.1	21.8	9.3	19.4	1.4	6.6	1.4	30.9	100
향정	1.0	2.0	11.5	37.5	3.9	16.4	1.0	26.8	100
대마	1.2	0.9	3.4	33.4	4.8	31.8	1.6	22.8	100
합계	2.1	4.4	9.7	34.3	3.7	18.1	1.2	26.6	100

[그림 3-25] 마약류사범 학력별 구성비

(단위: %)



▶ 마약류사범 유형별 범죄원인

- 전체 : 중독(19.8%) > 호기심(12.5%) > 유혹(9.9%) > 영리(8.9%) 순
- 마약사범 : 호기심(14.4%) > 우연(10.5%) > 중독(3.5%) > 치료(3.5%) 순
- 향정사범 : 중독(23.8%) > 영리(11.4%) > 유혹(11.0%) > 호기심(10.1%) 순
- 대마사범 : 호기심(19.5%) > 중독(17.0%) > 유혹(11.7%) > 영리(4.7%)

- ▶ 단순 투약자 등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전문 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마약환자 치료병동을 보유한 전국 지정병원에서 입원·외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며, 치료·재활을 위한 지속적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앞으로도 다양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지속적으로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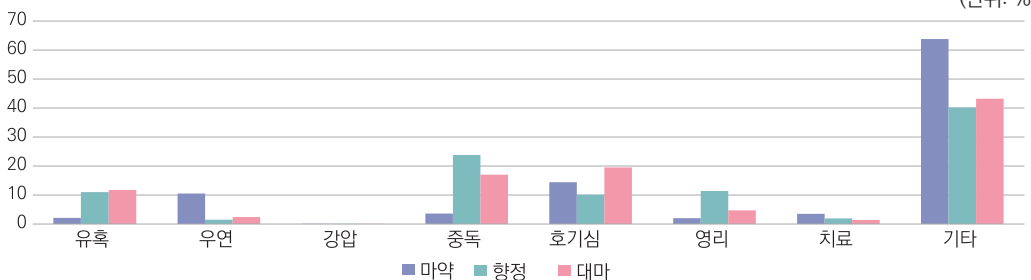
[표 3-38] 2022년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단위: %)

마약류 \ 원인별	유혹	우연	강압	중독	호기심	영리	치료	기타	합계
마약	2.1	10.5	0.1	3.6	14.4	2.0	3.5	63.8	100
향정	11.0	1.5	0.1	23.8	10.1	11.4	1.9	40.2	100
대마	11.7	2.4	0.1	17.0	19.5	4.7	1.4	43.2	100
합계	9.9	2.9	0.1	19.8	12.5	8.9	2.0	43.9	100

[그림 3-26] 마약류사범 범죄원인별 구성비

(단위: %)



[표 3-39] 2022년 마약류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

(단위: %)

범행장소별	마약류	마약	향정	대마	합계
유흥업소		0.4	4.6	1.3	3.4
숙박업소		1.5	14.2	3.2	10.4
가정집		45.2	27.0	25.5	29.1
농가및축사		12.0	0.1	0.4	1.7
선박		0.1	0.1	0.1	0.1
자동차		0.1	3.9	3.1	3.3
노상		4.7	14.1	22.9	14.6
야산		0.3	0.1	0.4	0.2
공항		0.7	3.8	7.8	4.2
부두		0.2	0.1	0.1	0.1
항공기		0.2	0.1	0.8	0.3
사무실		2.6	2.2	1.3	2.1
강변		0.4	0.1	0.1	0.1
해변가		-	0.1	0.1	0.1
공장		-	0.1	0.3	0.2
상가		0.8	1.6	1.3	1.4
농경지		7.2	0.1	0.4	1.0
기타		23.7	27.6	31.0	27.7
합계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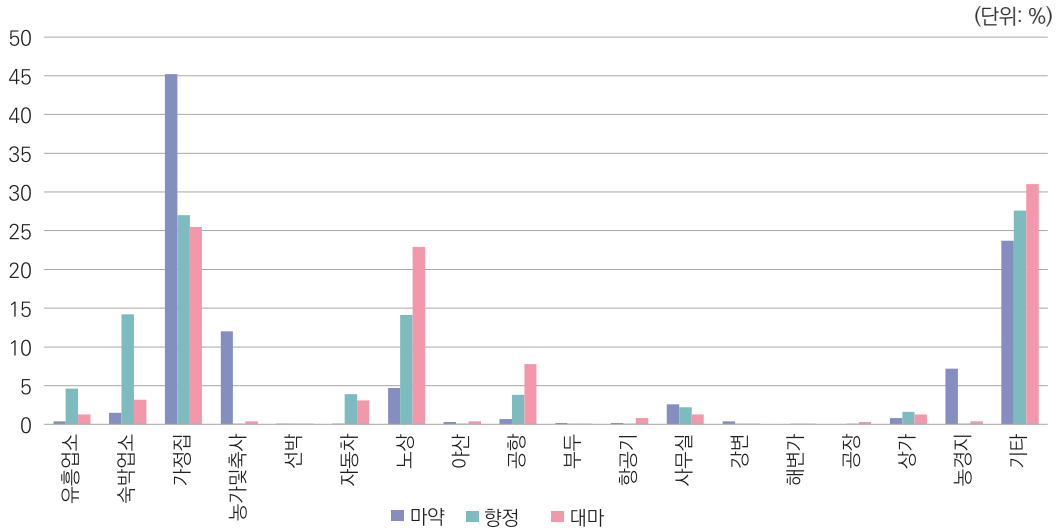
#### ▶ 마약류사범 유형별 범행 장소

- 전체 : 가정집(29.1%) > 노상(14.6%) > 숙박업소(10.4%) 순
- 마약사범 : 가정집(45.2%) > 농가및축사(12.0%) > 농경지(7.2%) 순
  - 가정집, 농가·축사가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밀경사범이 주를 이루는 것에 기인함
- 향정사범 : 가정집(27.0%) > 숙박업소(14.2%) > 노상(14.1%) 순
  - 향정사범은 가정집, 숙박업소 등 은밀한 곳에서 투약사범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적발 시 도주하기 편리한 노상에서 주로 밀매사범들이 적발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대마사범 : 가정집(29.1%) > 노상(14.6%) > 숙박업소(10.4%) 순
  - 대마사범은 또한 향정사범과 비슷한 원인으로 분석되나, 최근 대마를 가정집 등에서 재배하는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음

[그림 3-27] 마약류사범 범행 장소별 구성비



## 16

## 마약류 범죄수익환수

[표 3-40] 몰수·추징 보전 실적

연도	구분	건수		금액	
		전체범죄	마약류범죄	전체범죄	마약류범죄
2018		2,422	138	2조4,390억원	76억1,261만원
2019		2,862	218	1조1,354억원	89억4,076만원
2020		2,502	115	2조9,170억원	87억6,516만원
2021		2,512	150	5조9,488억원	47억404만원
2022		2,564	139	3조4,480억원	59억7,995만원

※ 자료 :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 ▶ 마약류 몰수·추징 대상인 ‘불법수익’ 등이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 ①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61조 제1항 제1호 (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
  - ②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對價)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 ③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그 재산과 그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을 말함
- ▶ 2022년 마약류범죄 몰수·추징보전 실적은 59억7,995만원으로 전년(47억404만원) 대비 27.1% 증가
- ▶ 주요 마약류 범죄수익 보전 사례
  - 2018년
    - 대만 마약조직 및 일본 야쿠자와 국내 유통조직이 관여된 필로폰 밀수 사건에서 20억여 원 보전 조치 (서울중앙지검)
    - 다크웹 마약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판매상들로부터 압수한 컴퓨터·휴대전화를

---

분석, 판매 내역 확인하여 범죄수익 합계 1억여 원 보전 조치 (서울중앙지검)  
- 필로폰 대량 밀매 사범이 사용한 가상계좌와 이에 연동된 모바일상품권을 범죄 수익으로 특정하여 50억여 원 보전조치(수원지검)

· 2019년

- 일본 요코하마의 폭력조직 '이나가와카이'와 대만 폭력조직 '죽련방' 및 국내 조직이 합작하여 필로폰 약 22kg을 밀수하여 판매한 사건에서 7억여 원 보전 조치 (서울중앙지검)
- 인터넷 사이트에 필로폰 판매 광고 게시하고, SNS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총 495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범죄수익 3억2천여만 원 보전 조치 (수원지검)
-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MDMA 등을 밀수입하여, 인터넷 및 SNS '위챗' 등에 광고하여 총 1,981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범죄수익 15억9천여만 원 보전 조치 (수원지검)

· 2020년

- 베트남에서 총 2회에 걸쳐 필로폰 총 9.92kg(7.92kg, 2kg)을 밀수입한 사건에서 5억2천여만 원 보전 조치(부산지검)
-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총 448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8천만원 상당의 필로폰과 총 359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5천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범죄수익 4억 4천만원 보전 조치(수원지검)
-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총 711회에 걸쳐 대마 5.5kg을 판매한 범죄수익 3억4천여만 원 보전 조치 (서울중앙지검)

· 2021년

-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이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판매한 범죄수익 6억1천여만 원 보전 조치(대구지검)

· 2022년

-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5kg을 밀수입하고, 해당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구입한 3억 여원 상당 가상화폐 보전 조치(청주지검)

- 서울 모처에 대마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하여 이를 다크웹 및 SNS를 통해 판매한 범죄수익 3억 1천여 만원 보전 조치 및 추징 선고(수원지검)
- 대마 재배 및 판매조직을 구성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다크웹을 통해 판매한 범죄수익 2억 3천여 만원 보전 조치 및 추징 선고(서울중앙지검)
-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조직에서 중간총책을 담당하며 마약류를 판매한 범죄수익 약 2억여 원에 대하여 보전 조치 및 추징 선고(서울남부지검)

# 4 마약류사범 처분 및 선고 현황 분석

## 1 2022년 마약류사범 검찰 처분 현황

[표 3-41] 마약류별 사범 처분 현황

(단위: 명)

구분 마약류	처리계 <sup>8</sup>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이송	타관 이송	보완 수사	기타	
합계	19,872	5,963	369	4,718	330	523	22	4,279	1,588	237	1,843
	(100)	(30.0)	(1.9)	(23.7)	(1.7)	(2.6)	(0.1)	(21.5)	(8.0)	(1.2)	(9.3)
마약	2,576	179	74	1,703	18	73	3	237	139	87	63
	(100)	(6.9)	(2.9)	(66.1)	(0.7)	(2.8)	(0.1)	(9.2)	(5.4)	(3.3)	(2.4)
향정	13,247	4,901	254	1,835	218	355	16	2,935	1,209	131	1,393
	(100)	(37.0)	(1.9)	(13.9)	(1.6)	(2.7)	(0.1)	(22.2)	(9.1)	(1.0)	(10.5)
대마	4,049	883	41	1,180	94	95	3	1,107	240	19	387
	(100)	(21.8)	(1.0)	(29.1)	(2.3)	(2.3)	(0.1)	(27.3)	(5.9)	(0.5)	(9.6)

※ ( )는 구성비 %

<sup>8</sup> 처리계는 구수(2021년 이전 접수된 사건)를 포함한 수치임

## 2

# 역대 마약류사범 검찰 처분

[표 3-42] 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처분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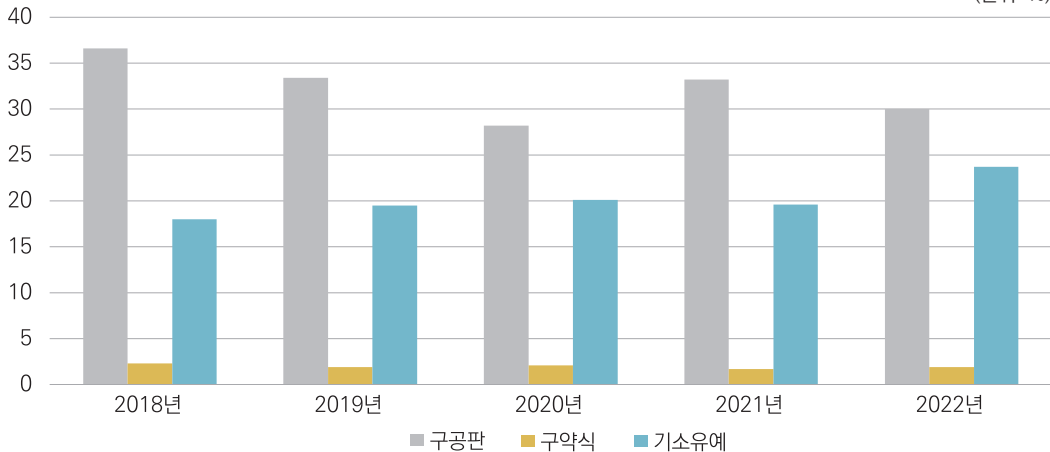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타관	보완 수사	기타	
2018	13,483	4,929	308	2,430	764	1,419	11	2,714	-	218	690
	(100)	(36.6)	(2.3)	(18.0)	(5.7)	(10.5)	(0.1)	(20.1)	-	(1.6)	(5.1)
2019	16,829	5,619	321	3,278	864	1,490	10	3,716	-	398	1,133
	(100)	(33.4)	(1.9)	(19.5)	(5.1)	(8.9)	(0.1)	(22.1)	-	(2.4)	(6.7)
2020	19,277	5,429	400	3,873	1,214	1,465	13	4,093	-	298	2,492
	(100)	(28.2)	(2.1)	(20.1)	(6.3)	(7.6)	(0.1)	(21.2)	-	(1.5)	(12.9)
2021	18,695	6,205	315	3,668	672	584	26	3,861	1,844	123	1,397
	(100)	(33.2)	(1.7)	(19.6)	(3.6)	(3.1)	(0.1)	(20.7)	(9.9)	(0.7)	(7.5)
2022	19,872	5,963	369	4,718	330	523	22	4,279	1,588	237	1,843
	(100)	(30.0)	(1.9)	(23.7)	(1.7)	(2.6)	(0.1)	(21.5)	(8.0)	(1.2)	(9.3)

※ ( )는 구성비%

[그림 3-28] 마약류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단위: %)



[표 3-43]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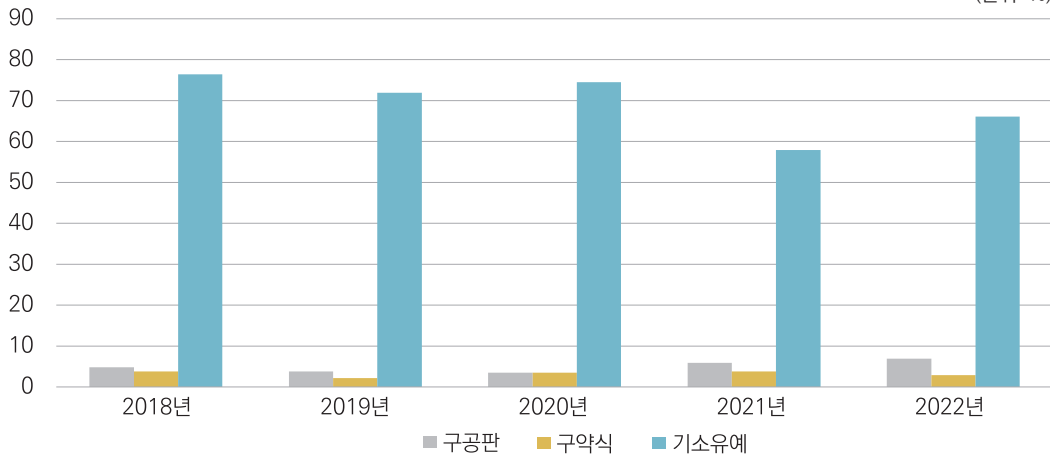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타관	보완 수사	기타	
2018	1,452	70	55	1,109	22	94	0	55	-	30	17
	(100)	(4.8)	(3.8)	(76.4)	(1.5)	(6.5)	(0.0)	(3.8)	-	(2.1)	(1.2)
2019	1,745	67	38	1,255	27	91	0	119	-	88	60
	(100)	(3.8)	(2.2)	(71.9)	(1.5)	(5.2)	(0.0)	(6.8)	-	(5.0)	(3.4)
2020	2,178	77	77	1,623	34	93	0	167	-	49	58
	(100)	(3.5)	(3.5)	(74.5)	(1.6)	(4.3)	(0.0)	(7.7)	-	(2.2)	(2.7)
2021	1,702	101	64	985	90	46	4	178	142	5	87
	(100)	(5.9)	(3.8)	(57.9)	(5.3)	(2.7)	(0.2)	(10.5)	(8.3)	(0.3)	(5.1)
2022	2,576	179	74	1,703	18	73	3	237	139	87	63
	(100)	(6.9)	(2.9)	(66.1)	(0.6)	(2.8)	(0.1)	(9.2)	(5.4)	(3.4)	(2.4)

※ ( )는 구성비 %

[그림 3-29] 마약사범 구공판 ·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단위: %)



[표 3-44] 최근 5년간 향정사범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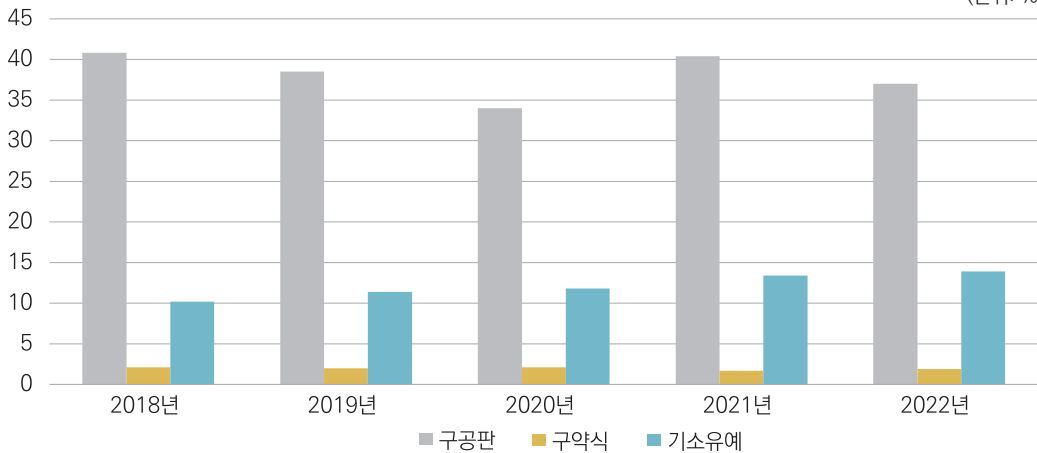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타관	보완 수사	기타	
2018	10,454	4,262	221	1,063	650	1,167	10	2,353	-	166	562
	(100)	(40.8)	(2.1)	(10.2)	(6.2)	(11.2)	(0.1)	(22.5)	-	(1.6)	(5.4)
2019	12,396	4,774	246	1,408	712	1,202	6	2,975	-	280	793
	(100)	(38.5)	(2.0)	(11.4)	(5.7)	(9.7)	(0.0)	(24.0)	-	(2.3)	(6.4)
2020	13,704	4,653	291	1,614	884	1,153	13	3,058	-	211	1,827
	(100)	(34.0)	(2.1)	(11.8)	(6.5)	(8.4)	(0.1)	(22.3)	-	(1.5)	(13.3)
2021	12,761	5,158	219	1,709	388	441	18	2,579	1,223	101	925
	(100)	(40.4)	(1.7)	(13.4)	(3.0)	(3.5)	(0.1)	(20.2)	(9.6)	(0.8)	(7.2)
2022	13,247	4,901	254	1,835	218	355	16	2,935	1,209	131	1,393
	(100)	(37.0)	(1.9)	(13.9)	(1.6)	(2.7)	(0.1)	(22.1)	(9.1)	(0.9)	(10.5)

※ ( )는 구성비 %

[그림 3-30] 향정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단위: %)





[표 3-45] 최근 5년간 대마사범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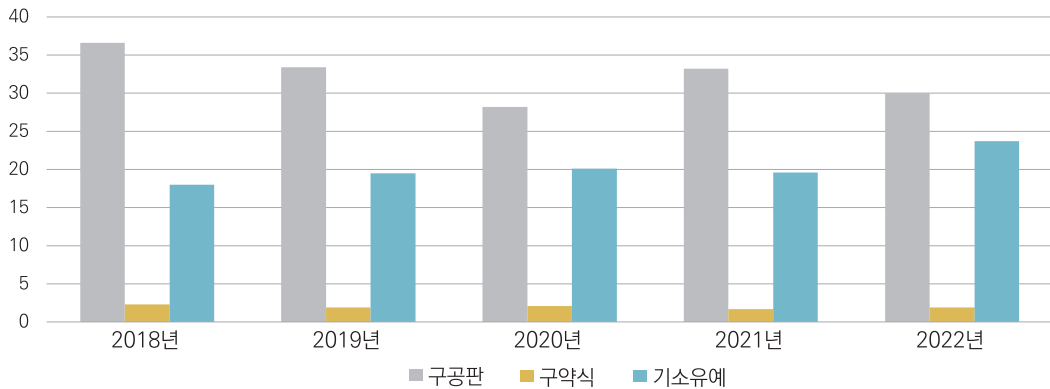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처리계	처리내역									미제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기소 중지	혐의 없음	소년부	타관	보완 수사	기타	
2018	1,577	597	32	258	92	158	1	306	-	22	111
	(100)	(37.9)	(2.0)	(16.4)	(5.8)	(10.0)	(0.1)	(19.4)	-	(1.4)	(7.0)
2019	2,688	778	37	615	125	197	4	622	-	30	280
	(100)	(28.9)	(1.4)	(22.9)	(4.7)	(7.3)	(0.1)	(23.1)	-	(1.1)	(10.4)
2020	3,395	699	32	636	296	219	0	868	-	38	607
	(100)	(20.6)	(0.9)	(18.7)	(8.7)	(6.5)	(0.0)	(25.6)	-	(1.1)	(17.9)
2021	4,232	946	32	974	194	97	4	1,104	479	17	385
	(100)	(22.4)	(0.8)	(23.0)	(4.6)	(2.3)	(0.1)	(26.1)	(11.3)	(0.4)	(9.1)
2022	4,049	883	41	1,180	94	95	3	1,107	240	19	387
	(100)	(21.8)	(1.0)	(29.1)	(2.3)	(2.3)	(0.1)	(27.3)	(5.9)	(0.5)	(9.6)

※ ( )는 구성비 %

[그림 3-31] 대마사범 구공판·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단위: %)



- 202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은 예년에 비해 소폭감소하였고 기소유예 비율은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검찰에서 마약류사범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목적으로 치료 및 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범죄 원인 및 동기,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치료, 교육 등의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3

## 마약류사범 전체 1심 선고 현황

[표 3-46] 최근 3년간 마약류별 1심 재판결과<sup>9</sup>

(단위: 명)

구분	재판결과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 무기	기타	
	합계	벌금									
합 계	2020	3,830	140	1,642	414	1,237	245	31	5	0	116
		(100)	(3.7)	(42.9)	(10.8)	(32.3)	(6.4)	(0.8)	(0.1)	(0.0)	(3.0)
	2021	4,747	205	2,089	463	1,410	351	32	20	0	177
		(100)	(4.3)	(44.0)	(9.8)	(29.7)	(7.4)	(0.7)	(0.4)	(0.0)	(3.7)
	2022	4,618	190	1,986	465	1,255	403	90	40	0	189
		(100)	(4.1)	(43.0)	(10.0)	(27.2)	(8.7)	(1.9)	(0.9)	(0.0)	(4.1)
마 약	2020	50	2	23	1	5	13	2	0	0	4
		(100)	(4.0)	(46.0)	(2.0)	(10.0)	(26.0)	(4.0)	(0.0)	(0.0)	(8.0)
	2021	69	10	34	0	8	14	0	0	0	3
		(100)	(14.5)	(49.3)	(0.0)	(11.6)	(20.3)	(0.0)	(0.0)	(0.0)	(4.3)
	2022	121	8	51	4	29	24	1	0	0	4
		(100)	(6.6)	(42.1)	(3.3)	(24.0)	(20.0)	(0.1)	(0.0)	(0.0)	(3.3)
향 정	2020	3,237	103	1,248	382	1,163	205	29	5	0	102
		(100)	(3.2)	(38.6)	(11.8)	(35.9)	(6.3)	(0.9)	(0.2)	(0.0)	(3.2)
	2021	3,986	173	1,575	417	1,306	306	30	20	0	159
		(100)	(4.3)	(39.5)	(10.5)	(32.8)	(7.7)	(0.8)	(0.5)	(0.0)	(4.0)
	2022	3,758	162	1,444	415	1,119	335	83	40	0	160
		(100)	(4.3)	(38.4)	(11.0)	(30.0)	(8.9)	(2.2)	(1.1)	(0.0)	(4.3)
대 마	2020	543	35	371	31	69	27	0	0	0	10
		(100)	(6.4)	(68.3)	(5.7)	(12.7)	(5.0)	(0.0)	(0.0)	(0.0)	(1.8)
	2021	692	22	480	46	96	31	2	0	0	15
		(100)	(3.2)	(69.4)	(6.6)	(13.9)	(4.5)	(0.3)	(0.0)	(0.0)	(2.2)
	2022	728	20	491	45	104	41	3	0	0	24
		(100)	(2.7)	(67.4)	(6.2)	(14.3)	(5.6)	(0.4)	(0.0)	(0.0)	(3.3)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sup>9</sup> 무죄선고, 공소기각, 면소, 선고유예, 소년부송치, 구류·과료 등

▶ 2022년도 1심 재판결과 점유율

□ 실형(48%) > 집행유예(43.0%) > 벌금(4.3%) 순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 및 벌금의 선고율에 비해 높은 이유는 마약류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집행유예 결정자가 많고 대체로 범죄 내용이 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3-47] 최근 5년간 마약사범 1심 재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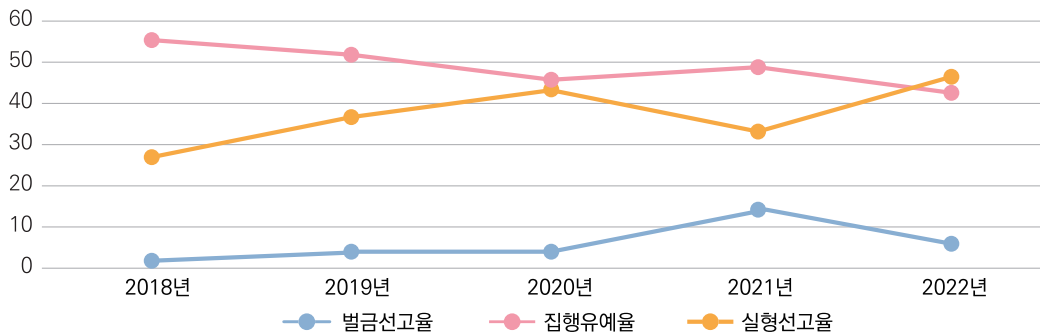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무기	기타
2018	1	31	0	11	4	0	0	0	8
	(1.8)	(56.4)	(0.0)	(20.0)	(7.3)	(0.0)	(0.0)	(0.0)	(14.5)
2019	2	27	2	5	12	1	0	0	4
	(3.8)	(50.9)	(3.8)	(9.4)	(22.6)	(1.9)	(0.0)	(0.0)	(7.5)
2020	2	23	1	5	13	2	0	0	4
	(4.0)	(46.0)	(2.0)	(10.0)	(26.0)	(4.0)	(0.0)	(0.0)	(8.0)
2021	10	34	0	8	14	0	0	0	3
	(14.5)	(49.3)	(0.0)	(11.6)	(20.3)	(0.0)	(0.0)	(0.0)	(4.3)
2022	8	51	4	29	24	1	0	0	4
	(6.6)	(42.1)	(3.3)	(24.0)	(20.0)	(0.1)	(0.0)	(0.0)	(3.3)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2] 마약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단위: %)



[표 3-48] 향정사범 1심 재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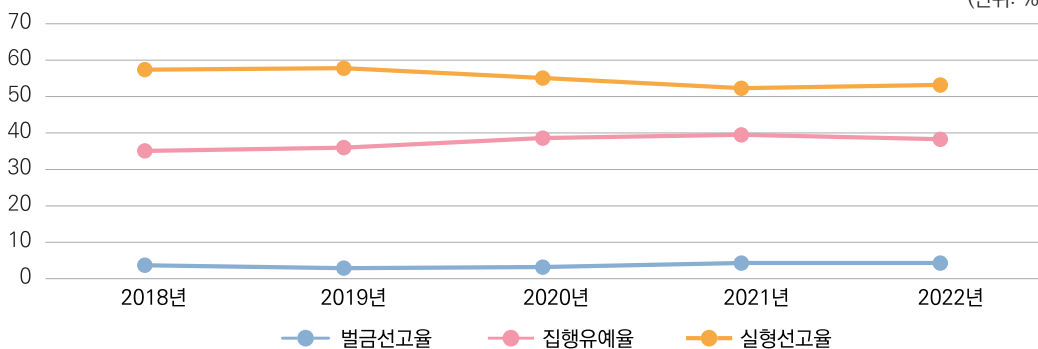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무기	기타
2018	126	1,197	492	1,269	146	39	12	0	128
	(3.7)	(35.1)	(14.4)	(37.2)	(4.3)	(1.1)	(0.4)	(0.0)	(3.8)
2019	101	1,275	532	1,326	154	22	16	0	116
	(2.9)	(36.0)	(15.0)	(37.4)	(4.3)	(0.6)	(0.5)	(0.0)	(3.3)
2020	103	1,248	382	1,163	205	29	5	0	102
	(3.2)	(38.6)	(11.8)	(35.9)	(6.3)	(0.9)	(0.2)	(0.0)	(3.2)
2021	173	1,575	417	1,306	306	30	20	0	159
	(4.3)	(39.5)	(10.5)	(32.8)	(7.7)	(0.8)	(0.5)	(0.0)	(4.0)
2022	162	1,444	416	1,122	338	86	40	0	161
	(4.3)	(38.3)	(11.0)	(29.8)	(9.0)	(2.3)	(1.1)	(0.0)	(4.3)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3] 향정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단위: %)



[표 3-49] 최근 5년간 대마사범 1심 재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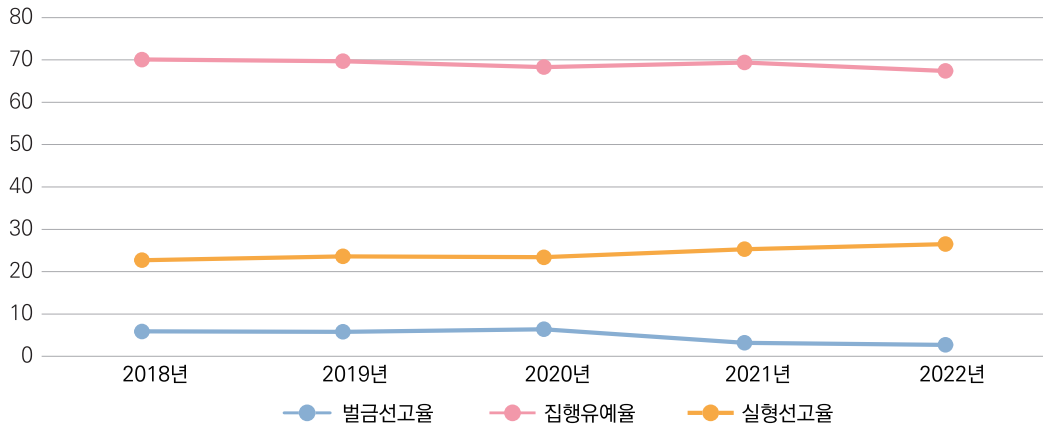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 무기	기타
2018	31	366	42	44	27	6	0	0	6
	(5.9)	(70.1)	(8.0)	(8.4)	(5.2)	(1.1)	(0.0)	(0.0)	(1.1)
2019	35	421	37	80	25	1	0	0	5
	(5.8)	(69.7)	(6.1)	(13.2)	(4.1)	(0.2)	(0.0)	(0.0)	(0.8)
2020	35	371	31	69	27	0	0	0	10
	(6.4)	(68.3)	(5.7)	(12.7)	(5.0)	(0.0)	(0.0)	(0.0)	(1.8)
2021	22	480	46	96	31	2	0	0	15
	(3.2)	(69.4)	(6.6)	(13.9)	(4.5)	(0.3)	(0.0)	(0.0)	(2.2)
2022	20	491	45	104	41	3	0	0	24
	(2.7)	(67.4)	(6.2)	(14.3)	(5.6)	(0.4)	(0.0)	(0.0)	(3.3)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4] 대마사범 연도별 1심 재판결과 추이

(단위: %)



## 4

## 마약류사범 자유형 선고 현황

[표 3-50]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18		23 (29.5)	49 (62.8)	0 (0.0)	6 (7.7)	78 (100)
2019		37 (45.7)	38 (46.9)	1 (1.2)	5 (6.2)	81 (100)
2020		47 (51.1)	41 (44.6)	0 (0.0)	4 (4.3)	92 (100)
2021		36 (49.3)	29 (39.7)	0 (0.0)	8 (11.0)	73 (100)
2022		46 (50.0)	37 (40.2)	0 (0.0)	9 (9.8)	92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표 3-51] 최근 5년간 향정사범의 실형·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18		1,416 (58.4)	901 (37.2)	1 (0.0)	107 (4.4)	2,425 (100)
2019		1,571 (58.7)	989 (36.9)	2 (0.1)	115 (4.3)	2,677 (100)
2020		1,219 (56.9)	840 (39.2)	0 (0.0)	83 (3.9)	2,143 (100)
2021		1,296 (54.8)	945 (40.0)	4 (0.2)	119 (5.0)	2,364 (100)
2022		1,014 (53.3)	785 (41.3)	0 (0.0)	102 (5.4)	1,901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표 3-52] 최근 5년간 대마사범의 실형 · 집행유예 등 선고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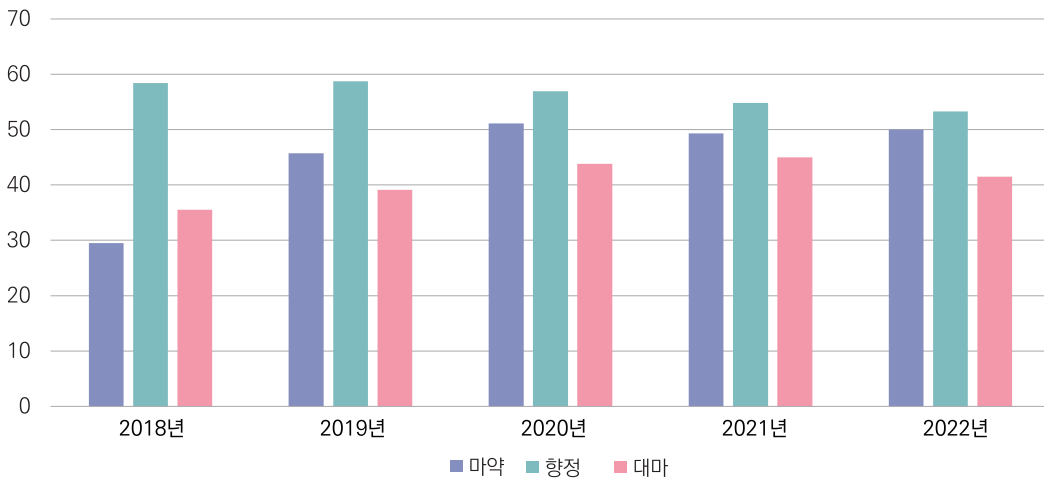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구분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타	합계
2018		214 (35.5)	362 (60.1)	0 (0.0)	26 (4.3)	602 (100)
2019		283 (39.1)	416 (57.5)	0 (0.0)	24 (3.3)	723 (100)
2020		254 (43.8)	293 (50.5)	0 (0.0)	33 (5.7)	580 (100)
2021		306 (45.0)	349 (51.3)	0 (0.0)	25 (3.7)	680 (100)
2022		217 (41.5)	285 (54.5)	0 (0.0)	21 (4.0)	523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5] 마약류별 실형 구성비

(단위: %)



## 5

## 마약류사범 자유형 선고 평균 형기 현황

[표 3-53] 최근 5년간 마약류별 실형자·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단위: 월)

구분 연도별	마약		향정		특례법		대마	
	실형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형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형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실형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2018	36.8	32.3	19.1	28.9	36.9	27.0	22.3	29.7
2019	22.2	30.9	19.8	27.4	36.3	30.0	43.7	33.5
2020	24.1	27.3	23.9	28.0	64.8	36.0	35.9	26.6
2021	27.1	28.6	24.0	27.9	27.5	36.0	29.0	35.2
2022	27.6	30.2	26.3	28.5	44.0	28.0	44.0	28.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 2022년도 모든 마약류사범의 실형형기는 증가하였고, 집행유예는 마약, 향정사범은 증가하고 대마 및 특례법 사범은 감소함



## 6

## 마약류사범 집행유예 선고 현황

[표 3-54]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기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8		0 (0.0)	28 (57.1)	21 (42.9)	0 (0.0)	49 (100)
2019		1 (2.6)	17 (44.7)	17 (44.7)	3 (7.9)	38 (100)
2020		0 (0.0)	34 (82.9)	7 (17.1)	0 (0.0)	41 (100)
2021		0 (0.0)	12 (41.4)	14 (48.3)	3 (10.3)	29 (100)
2022		1 (2.7)	18 (48.7)	16 (43.2)	2 (5.4)	37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표 3-55] 최근 5년간 향정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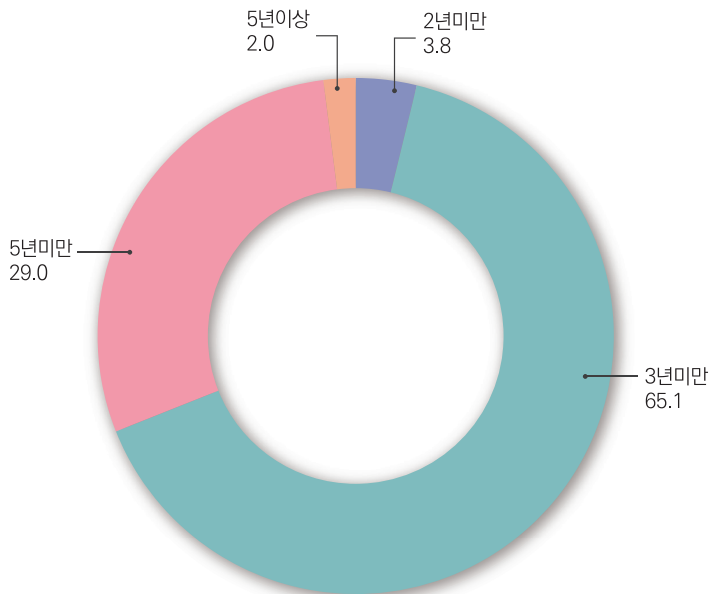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기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8		11 (1.2)	633 (64.1)	223 (24.9)	30 (3.3)	897 (100)
2019		27 (2.7)	729 (73.7)	209 (21.1)	24 (2.4)	989 (100)
2020		23 (2.7)	571 (68.1)	241 (28.7)	4 (0.5)	839 (100)
2021		16 (1.7)	667 (70.6)	255 (27.0)	7 (0.7)	945 (100)
2022		30 (3.8)	511 (65.1)	228 (29.0)	16 (2.0)	785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6] 항정사범 집행유예기간별 구성비

(단위: %)



[표 3-56] 최근 5년간 대마사범의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기간별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8		10 (2.8)	227 (62.7)	113 (31.2)	12 (3.3)	362 (100)
2019		10 (2.4)	229 (55.0)	160 (38.5)	17 (4.1)	416 (100)
2020		4 (1.4)	218 (74.4)	69 (23.5)	2 (0.7)	293 (100)
2021		5 (1.4)	240 (68.8)	97 (27.8)	7 (2.0)	349 (100)
2022		14 (4.9)	158 (55.4)	103 (36.1)	10 (3.5)	285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표 3-57]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실행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8	3 (13.0)	9 (39.1)	4 (17.4)	3 (13.0)	4 (17.4)	23 (100)
2019	7 (18.9)	8 (21.6)	10 (27.0)	5 (13.5)	7 (18.9)	37 (100)
2020	6 (12.8)	12 (25.5)	10 (21.3)	14 (29.8)	5 (10.6)	47 (100)
2021	3 (8.3)	8 (22.2)	17 (47.2)	3 (8.3)	5 (13.9)	36 (100)
2022	11 (24.0)	10 (21.7)	13 (28.3)	9 (19.6)	3 (6.5)	46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표 3-58] 최근 5년간 향정사범의 실행기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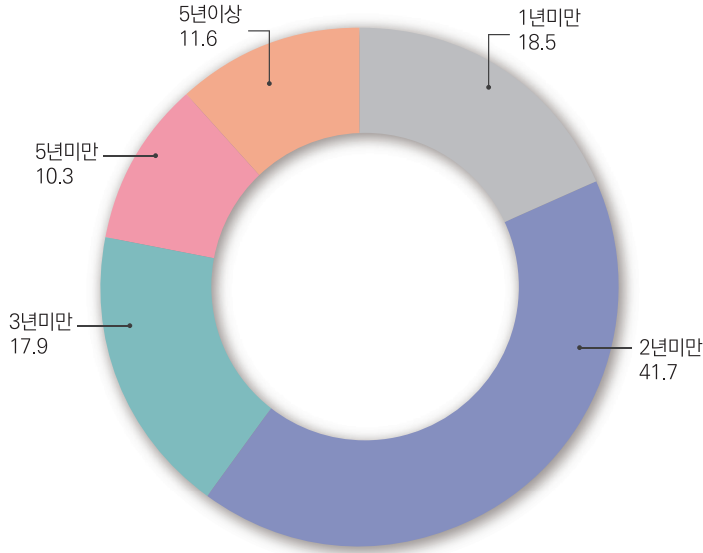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8	343 (24.3)	772 (54.8)	155 (11.0)	71 (5.0)	68 (4.8)	1,409 (100)
2019	377 (24.0)	805 (51.2)	212 (13.5)	110 (7.0)	67 (4.3)	1,571 (100)
2020	233 (19.1)	595 (48.8)	193 (15.8)	116 (9.5)	82 (6.7)	1,219 (100)
2021	237 (18.3)	579 (44.7)	230 (17.7)	138 (10.6)	112 (8.6)	1,296 (100)
2022	188 (18.5)	423 (41.7)	181 (17.9)	104 (10.3)	118 (11.6)	1,014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37] 행정사범 실행기간별 구성비

(단위: %)



[표 3-59] 최근 5년간 대마사범의 실행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5년이상	합계
2018	48 (22.4)	104 (48.6)	19 (8.9)	27 (12.6)	16 (7.5)	214 (100)
2019	49 (17.3)	123 (43.5)	64 (22.6)	37 (13.1)	10 (3.5)	283 (100)
2020	28 (11.0)	110 (43.3)	58 (22.8)	47 (18.5)	11 (4.3)	254 (100)
2021	40 (13.1)	120 (39.2)	73 (23.9)	46 (15.0)	27 (8.8)	306 (100)
2022	26 (12.0)	66 (30.4)	73 (33.6)	34 (15.7)	18 (8.3)	217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표 3-60]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원)
2018		0 (0.0)	11 (20.0)	14 (25.5)	20 (36.4)	10 (18.2)	1,121,818
2019		0 (0.0)	1 (2.7)	6 (16.2)	20 (54.1)	10 (27.0)	1,651,351
2020		0 (0.0)	7 (9.7)	21 (29.2)	36 (50.0)	8 (11.1)	938,889
2021		0 (0.0)	1 (1.6)	12 (19.7)	39 (63.9)	9 (14.8)	1,204,918
2022		0 (0.0)	4 (6.5)	28 (45.1)	20 (32.3)	10 (16.1)	1,180,645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분포비율 %

[표 3-61] 최근 5년간 향정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원)
2018		1 (0.7)	0 (0.0)	10 (6.9)	24 (16.6)	110 (75.9)	2,944,137
2019		0 (0.0)	0 (0.0)	13 (7.5)	33 (19.1)	127 (73.4)	3,116,184
2020		0 (0.0)	3 (1.5)	7 (3.5)	49 (24.3)	143 (70.8)	2,601,980
2021		0 (0.0)	1 (0.8)	7 (5.4)	26 (20.2)	95 (73.6)	3,103,875
2022		0 (0.0)	4 (3.1)	10 (7.8)	24 (18.8)	90 (70.3)	2,768,75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분포비율 %

[표 3-62] 최근 5년간 대마사범의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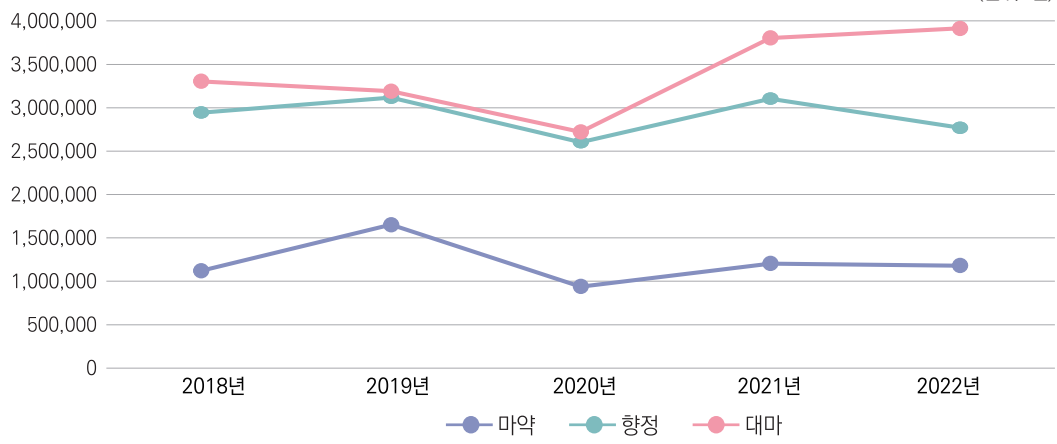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금액별	1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평균 (단위:원)
2018		0 (0.0)	0 (0.0)	1 (3.6)	0 (0.0)	27 (96.4)	3,303,571
2019		0 (0.0)	0 (0.0)	1 (3.4)	5 (17.2)	23 (79.3)	3,189,655
2020		0 (0.0)	0 (0.0)	1 (3.6)	7 (25.0)	20 (71.4)	2,721,429
2021		0 (0.0)	0 (0.0)	1 (4.3)	3 (13.0)	19 (82.6)	3,804,348
2022		0 (0.0)	0 (0.0)	2 (7.41)	2 (7.41)	23 (85.1)	3,914,815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분포비율 %

[그림 3-38] 마약류별 약식명령 평균금액

(단위: 원)



[표 3-63] 최근 5년간 재범률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사범	12,613	16,044	18,050	16,153	18,395
재범인원	4,622	5,710	5,933	5,916	6,436
재범률(%)	36.6	35.6	32.9	36.6	35.0

※ 재범인원은 마약류사범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인원임  
 ※ 현 백서에 기재된 재범율은 2023. 3. 31.자 기준으로 계속 변경될 수 있음

➤ 2022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35.0%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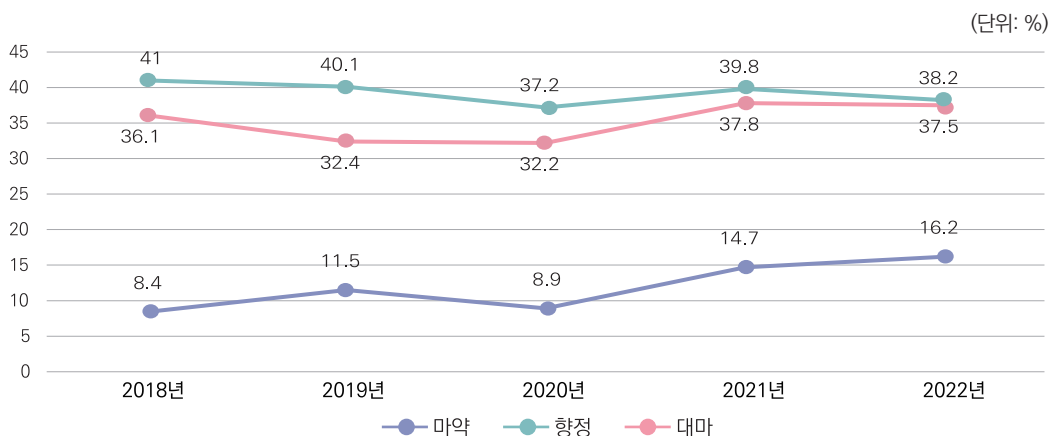
[표 3-64] 마약류별 재범률

(단위: 명)

구분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1,467	9,613	1,533	1,804	11,611	2,629	2,198	12,640	3,212	1,745	10,631	3,777	2,551	12,035	3,809
재범인원	123	3,946	553	207	4,652	851	196	4,704	1,033	256	4,233	1,427	412	4,594	1,430
재범률(%)	8.4	41.0	36.1	11.5	40.1	32.4	8.9	37.2	32.2	14.7	39.8	37.8	16.2	38.2	37.5

➤ 최근 5년간 마약류별 재범률은 향정사범, 대마사범, 마약사범 순이며, 2022년도 향정사범 재범률은 38.2%로 여전히 대마사범 및 마약사범보다 높음

[그림 3-39] 마약류별 재범 구성비



[표 3-65] 최근 5년간 재범의 전과내역

(단위: 명)

연도별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재범인원 합계	123	3,946	553	207	4,652	851	196	4,704	1,033	256	4,233	1,427	412	4,594	1,430
동종(마약류) 전과인원	58	3,291	342	95	3,832	592	99	3,840	728	149	3,402	1,066	204	3,712	1,008
이종(마약류) 전과인원	51	104	73	78	137	125	79	145	128	65	143	135	111	163	148
복합전과 인원	10	634	108	14	551	138	34	683	134	18	719	177	97	719	274

※ 복합전과인원 : 마약, 대마, 향정 중 2개 이상의 전과경력자가 재범한 인원

- ▶ 2022년도 전체 마약류 재범사범 6,436명 가운데 동종 마약류범죄 전력자는 4,924명으로 76.5%, 이종 마약류범죄 전력자는 422명으로 8.6%, 복합 전력자는 1,090명으로 22.1%를 각각 차지함



### 가. 근거 법령

- ▶ 치료보호<sup>10</sup>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대통령령 제27129호)
- ▶ 치료감호<sup>11</sup>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 나.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현황

[표 3-66] 연도별 치료보호 현황

(단위: 명)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267	260	143	280	421
입원	자의	87	89	48	90	81
	검찰의뢰	2	2	1	-	-
	기타의뢰	-	-	-	-	-
외래	자의	175	153	86	189	326
	검찰의뢰	3	16	8	1	14
	기타의뢰	-	-	-	-	-

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 2022년도 치료보호 인원은 총 421명으로 전년(280명) 대비 50.4% 증가함
- ▶ 전체 치료보호 인원 가운데 검찰의뢰자는 14명으로 전체 인원 중 3.3%를 차지

<sup>10</sup> 전국 21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치료 의뢰하는 조치로, 입원기간은 2개월 단위이며 최대 12개월까지임. 다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지침)에 의해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외래치료 까지 확대 시행 중에 있음

<sup>11</sup>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됨

[표 3-67] 치료보호기관 현황 및 실적<sup>12</sup>

(단위: 명)

구분 시·도	병원명	지정 병상수	치료보호 실적(명)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21개 의료기관	314	267	260	143	280	421
서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25	4	4	3	1	-
	국립정신건강센터	2	-	-	2	2	2
	강남을지병원		136	'18. 12. 31.자 지정해제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2	-	-	-	-	-
	참사랑병원	30	26	126	71	164	276
대전	참다남병원	4	-	-	2	2	1
대구	대구의료원	2	1	2	-	1	4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2	1	5	2	1	1
울산	큰빛병원		'19. 2. 15.자 지정해제				
	마더스병원	84	35	-	-	-	-
광주	광주시립정신병원	5	-	-	-	-	-
경기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5	-	-	-	-	-
	용인정신병원	10	-	1	1	-	-
	계요병원	10	1	9	7	2	2
강원	국립춘천병원	10	-	-	-	-	-
충북	청주의료원	2	1	2	1	-	-
충남	국립공주병원	2	-	-	-	-	-
경북	포항의료원	3	-	-	-	-	-
경남	국립부곡병원	100	62	110	54	107	134
	양산병원	2	-	-	-	-	-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2	-	1	-	-	1
전남	국립나주병원	10	-	-	-	-	-
제주	연강병원	2	-	-	-	-	-

자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2022. 12. 31. 기준)

<sup>12</sup> 2022년도 기준, 인천 참사랑병원 병상수 증가(8개→30개, 총 292개-)314개로 증가)

## 다. 마약류사범 치료감호 현황

[표 3-68] 연도별 치료감호 현황

(단위: 명)

마약류 \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29	30	13	18	18
검찰청구	9	11	1	8	11
마약	0	0	0	0	0
향정	29	30	13	18	18
대마	0	0	0	0	0

자료: 국립법무병원(2022. 12. 31. 입소자 기준)

- 2022년도 치료감호 인원은 총 18명으로, 전년(18명)과 동일
- 충남 공주시 소재 국립법무병원 「약물중독 재활센터」에서 마약 등 약물 중독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료·재활 교육을 실시함

## 11

## 마약류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 ▶ 검찰에서는 마약류사범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목적으로 치료 및 재활 의지가 있는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범죄 원인 및 동기,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과 함께 치료, 교육 등의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 또한,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 전 마약류사범의 마약류에 대한 중독성 및 단약 의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그 결과를 회신받아 처분에 참고하는 중독판별검사 제도도 실시하고 있음
- ▶ 이는 검찰에서 마약류 투약자 등에 대해 처벌 위주 보다는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한 결과임

## 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 ▶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 의존성이 있어 전문의의 치료□상담 통한 단약 및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표 3-69]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인원(명)	14	13	10	16	3	22	14	93

※ 2016년부터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시행

## 나.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치료·재활을 위한 지속적 상담이나 관리가 필요하여 보호관찰관의 선도 및 감독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표 3-70]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인원(명)	4	6	8	338	129	194	281	960

## 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단순투약자나 청소년 등으로 단약 의지가 강하고 재범가능성이 경미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인원은 1,258명으로 전년(1,187명) 대비 6.0% 증가함

[표 3-71] 최근 10년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현황

(단위: 명)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인원(명)	140	421	503	648	722	470	800	897	1,187	1,258	7,046

※ 2002년부터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국마약퇴치운동 본부의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시행하고 있음

## 12

## 마약류 투약 환각상태 강력범죄 등 발생 현황

## 가. 개요

- ▶ 마약류 투약사범이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살인, 강도, 절도, 인질극 등 2차 강력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류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 등 흉악범죄를 일삼고, 심지어는 검거하려는 수사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마약류 투약 이후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 나. 대표적 사례

## 살인 사건

- ▶ 2001. 3.경 서울 중구 식품점에서 텍스트로메토르판(일명 ‘러미나’) 중독 증세를 보이던 피의자(23세, 공익근무요원)가 러미나 판매상인 피해자와 러미나 매매 문제로 말다툼하다 칼로 살해 (서울중앙지검)
- ▶ 2001. 8.경 서산시 부석면 야산에서 피의자 3명(28세~30세 남자 3명)이 자신들의 대마흡연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곡괭이로 살해한 다음 사체를 유기 (서산지청)
- ▶ 2001. 9.경 서산시 석림동 주택에서 피의자(38세, 무직)가 평소 필로폰을 함께 투약 하던 내연녀를 칼로 찔러 살해 (서산지청)
- ▶ 2002. 1.경 서울 강북구 OO동 여관에서 러미나 중독자인 피의자(40세, 무직)가 윤락녀인 피해자에게 동거할 것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다량의 러미나를 복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목을 줄라 살해 (서울동부지청)
- ▶ 2004. 11.경 부산 연제구 OO동 호텔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필로폰 24g에 대한 가격 흥정 중 잭나이프를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찔러 살해 (부산지검)

- ▶ 2005. 6.경 서울 노원구 OO동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가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며 따라오는 듯한 환각과 공포감에 사로 잡혀, 자신의 집에서 식칼 1자루와 과도 1자루를 손에 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던 피해자 2명의 어깨와 겨드랑이 등을 식도와 과도로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된 개인택시를 절취한 다음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식칼을 휘두르고 벽돌을 던져 상해를 가함 (서울북부지검)
- ▶ 2006. 1.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가 경주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가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시간 가량 주먹과 발로 전신을 마구 구타하여 살해 (서울중앙지검)
- ▶ 2012. 12.경 피해자와 함께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피의자(30세, 무직)는 피해자가 필로폰을 몰래 넣은 음료수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 (인천지검)
- ▶ 2013. 2.경 피의자(50세, 무직)가 자신의 형이 필로폰 중독으로 자살을 하자 형에게 필로폰을 알게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로 복부 등을 찔러 살해 (서울중앙지검)
- ▶ 2014. 6.경 피의자(34세, 중고차 매매)가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환각상태에서 내연녀인 피해자와 남자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어금니 1개를 뽑아내고 왼쪽 안구를 적출한 후, 식칼로 두피 전체를 벗겨 내어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사망한 것으로 판단, 현장에서 벗어남으로써 살인미수 (부산지검 동부지청)
- ▶ 2015. 2.경 노래방 업주인 피의자(41세, 상업)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피해자 2명(노래방 여자종업원)이 동성애 관계라고 트집 잡아 덤벨, 금속봉 등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그 중 1명을 살해 (천안지청)

- ▶ 2016. 8.경 LSD를 투약한 피의자가 환각상태에서 피의자의 이모가 옷 속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 역시 같은 방법으로 수회 찔러 살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하려 하자 복부와 다리를 건어차는 등 폭행 (대전지검)
- ▶ 2016. 12.경 마약류 전과 5범인 피의자(42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칼로 아내의 목을 베어 살해 (대구지검)
- ▶ 2017. 4.경 피의자(50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양팔로 아버지의 목을 졸라 경부압박 질식으로 살해 (대구지검)
- ▶ 2019. 12.경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58세, 무직)가 환각상태에서 중학교 동창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이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살인 미수 (인천지검)
- ▶ 2021. 3.경 피의자(47세, 일용직)가 MDA(일명 ‘몰리’) 투약 후 함께 여행 중이던 모친의 얼굴을 수회 밟아 사망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부친의 얼굴을 수회 밟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살인 미수 (대구지검)
- ▶ 2021. 7.경 피의자(38세, 무직)는 주거지에서 회칼로 친모를 협박하고, 같은 해 8.경 위 주거지에서 친부의 목을 베어 살인(피의자 필로폰 투약 사실 진술 거부하나 모발 감정, 계좌 내역을 등을 통해 필로폰 투약 사실 확인, 살해 동기는 필로폰 대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추정) (안산지청)

### 자살 · 과다투약 사망 사건

- ▶ 2001. 3.경 대구시 OO구 주택에서 51세 남성(무직)이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 2001. 8.경 대구 북구 OO동 여관에서 37세 남성(무직)이 필로폰 과다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 2002. 1.경 부산 동래구 OO동 모텔에서 36세 남성(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환각상태에서 모텔 승강기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소동을 벌이다 과다출혈로 사망 (부산지검)
- ▶ 2012. 10.경 부산 서구 OO동 모텔에서 31세 여성(간호조무사)이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 (부산지검)
- ▶ 2013. 1.경 58세 남성(무직)이 필로폰을 절취, 사용한 혐의로 부산구치소에서 약 3개월간 복역한 다음 출소한 직후 자살 (부산지검)
- ▶ 2013. 4.경 부천시 원미구 OO의원에서 근무하던 31세 여성(간호조무사)이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사망 (부천시청)
- ▶ 2014. 10.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재건서동파」 추종자인 33세 남성(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공사현장으로 난입하여, “나는 부산의 조직폭력배다. 두목이 강제로 마약을 투약시켰다”라고 소리 지르며 40여 분간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된 상태에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 (울산지검)
- ▶ 2015. 3.경 안산 단원구 OO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51세 남성(성형외과의사)이 프로포폴 과다투약으로 사망 (안산지청)
- ▶ 2015. 6.경 경기 동두천시 OO성형외과에서 근무하던 41세 여성(간호조무사)이 프로포폴 및 디아제팜 과다투약으로 사망 (의정부지검)
- ▶ 2015. 8.경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에서 58세 남성(사업가)이 마약류 과다 투약으로 사망. 위 남성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240g, 야바 76.5g, 엑스터시 3.12g, 대마 34.9g 등 발견 (서울서부지검)
- ▶ 2016. 2.경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던 49세 남성(마약 전과 11회)이 필로폰 과다 투약으로 사망 (부산지검)

- ▶ 2017. 1.경 대구 동구 OO모텔에서 57세 남성과 49세 여성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 하던 중 여성이 과다 투약으로 사망 (대구지검)
- ▶ 2017. 7.경 경상남도 거제시 OO의원 원장(57세, 의사)이 내연녀인 피해자에게 약 2달 동안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시키던 중, 피해자가 과다 투약으로 사망하자 통영시 앞바다에 시신 유기 (통영지청)
- ▶ 2018. 1.경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20·30대 남녀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하던 중, 여성이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등으로 사망 (서울중앙지검)
- ▶ 2019. 4.경 서울 강남구 OO동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의자(43세, 성형외과 의사)가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시키고 골프를 치러간 사이, 동거녀가 과다 투약으로 사망 (서울중앙지검)
- ▶ 2019. 8.경 수원시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22세, 태국인,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수감)가 필로폰 다량 투약으로 사망 (수원지검)
- ▶ 2020. 6.경 마약류 전력 4회 있고 평소 우울증이 있는 남성(46세, 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무에 목을 매 자살 (부산지검)
- ▶ 2020. 8.경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여성(29세, 무직)이 평소 우울증, 공황장애 등 치료를 받은 상황에서 본인의 주거지에서 프로포폴 과다 투약으로 사망 (의정부지검)
- ▶ 2022. 5.경 20대 남성이 클럽에서 MDMA를 여럿이서 함께 투약하던 중, 치사량이 넘는 MDMA를 투약하여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광주지검)
- ▶ 2022. 9.경 50대 남성이 MDMA 418정을 자신의 위장 및 소장에 은닉하고 케타민 118.49g을 항문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였는데, 다음날 약물과다복용으로 주거지에서 사망하였고 사체 내에서 다량의 마약류성분 검출(서울서부지검)

## 강·절도 등 사건

- ▶ 2001. 5.경 피의자들(27~28세 남자 2명, 무직)이 함께 투약할 목적으로 OO대학병원에서 모르핀 10앰플, 펜타닐 30앰플, 페치딘 10앰플을, 2002. 2.경 OO의료원에서 모르핀 108앰플, 펜타닐 19앰플, 페치딘 50앰플을 절취하여 투약 (대구지검)
- ▶ 2001. 7.~12.경 안산시 OO동 병원에서 피의자(28세, 간호사)가 의사의 마약 처방전을 위조하여 병원약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100여회에 걸쳐 마약인 염산페치딘 300앰플을 빼내어 투약 (수원지검)
- ▶ 2016. 10.경 절도를 하기 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아파트 난간을 타고 올라가 주거지에 침입하여 고급 시계 등을 절취 (서울중앙지검)
- ▶ 2016. 12.경 절도 범행에 착수하기 전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다음 커피숍에 들어가 컴퓨터 등을 절취 (수원지검)
- ▶ 2017. 7.경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편의점 앞에 세워둔 택시를 몰고 도주 (인천지검)

## 인질극, 난동 등 사건

- ▶ 2001. 3.경 부산 영도구 자택에서 피의자(34세, 노동)가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환각 상태에서 처와 딸을 식칼로 위협하여 옷을 벗기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자 처와 딸을 인질로 삼아 경찰관과 1시간 가량 대치하던 중 가족들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함 (부산지검)
- ▶ 2001. 4.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영천 톨게이트 부근에서 피의자들 (25세 및 30세, 각 무직)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으로 검찰 수사차량 및 경찰 순찰차량을 순차적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의자 1명이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해하는 등 난동 (울산지검)

- ▶ 2001. 6.경 군산시 자택에서 피의자(51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던 수사관에게 사제권총을 발사하는 등 1시간 동안 난동 (군산지청)
- ▶ 2001. 9.경 서울 관악구 OO동 여관에서 피의자(40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여관 3층 창문에 매달려 1시간 30분 동안 자살 소동 (서울남부지청)
- ▶ 2002. 1.경 대전 중구 여관에서 피의자(35세, 여관경영)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처제를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처와 처제, 딸 등을 인질로 삼고 경찰관들과 20여 명과 2시간 동안 대치하며 난동 (대전지검)
- ▶ 2002. 1.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동생과 함께 인천부평경찰서에 자수한 피의자(29세, 무직)가 투약 경위 등을 조사받고 자신의 동생과 면담하던 중, 형사과 사무실 책상 위에 폭력사건 증거물로 놓여 있던 부엌칼로 자신의 기도 왼쪽부분을 찔러 자해하는 등 난동 (인천지검)
- ▶ 2002. 1.경 피의자(36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OO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직원을 죽여 버리겠다며 흥기로 위협, 5분간 인질극을 벌이는 등 난동 (서울서부지청)
- ▶ 2002. 3.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29세, 운전기사)가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운전의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여 대구 시내 일원을 운전하게 하고, 이어서 대구지검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대구지검에 도착한 뒤 피해자를 인질로 잡고 마약전담 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난동 (대구지검)
- ▶ 2006. 11.경 대구 동구 OO아파트에서 피의자(50세, 무직)가 대구지검에 전화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말하면서 자수 의사를 밝힌 후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배 부위를 과도로 그어 자해하고, 계속하여 인근 아파트 1층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이웃 할머니를 위협하는 등 1시간 동안 인질극 소동 (대구지검)

- ▶ 2012. 10.경 부산 연제구 OO모텔 앞길에서 필로폰 중독자인 피의자(38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흥기를 휘두르다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흥기로 찌르는 등 난동 (부산지검)
- ▶ 2013. 2.경 필로폰 중독자인 피의자(45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대구지검 당직실에 들어가 불펜으로 자신의 목과 배를 수회 찌르고 당직실 컴퓨터를 손괴하는 등 난동 (대구지검)
- ▶ 2013. 7.경 절도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한 피의자(30세, 요리사)가 평소 과용해오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후 환각상태에서 검사실 집기를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 (서울북부지검)
- ▶ 2013. 9.경 필로폰을 투약 후 환각상태로 검찰청에 출두한 피의자(47세, 무직)가 주차장에 세워진 트럭 안에서 동거녀의 목에 식칼을 겨누어 협박하는 등 난동 (광주지검)
- ▶ 2014. 9.경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창원교도소 수감 중인 재소자(43세, 무직)가 교도소 내 보호실에서 보호장비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왼손 새끼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하여 자해 (마산지청)
- ▶ 2015. 4.경 피의자(49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김천지청을 방문하여 검찰수사관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횡설수설하는 등 난동 (김천지청)
- ▶ 2015. 5.경 피의자(47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난동 (대구지검)
- ▶ 2015. 12.경 필로폰 환각상태의 피의자(40세, 무직)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 간호사에게 '퇴원 후 복용할 수 있도록 신경안정제를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 간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이라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 환자의 목에 다용도 칼을 들이대고 환자와 피의자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후 병원 측에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인질강요 (인천지검)

- ▶ 2016. 9.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유리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 (경주지청)
- ▶ 2018. 1.경 부산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객실 창문에 앉아 고함을 지르고 투신 소동 (부산지검)
- ▶ 2018. 2.경 전주시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며 냉장고 등 호텔 집기를 파손하는 등 난동 (전주지검)
- ▶ 2018. 6.경 서울 강남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객실 집기류 등을 부수고, 모텔 밖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등 난동 (서울중앙지검)
- ▶ 2018. 12.경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 (서울중앙지검)
- ▶ 2019. 6.경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에서 피의자(22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환각상태에서 이웃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가위로 협박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12시간 동안 감금하고, 감금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이 섞인 물을 마시게 하거나 유사강간을 하면서 동영상 촬영 (서울중앙지검)
- ▶ 2019. 6.경 의정부시 OO아파트 13층 난간에서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에 있는 피의자(50세, 마약범죄 전력 6회)가 나체로 베란다 난간 실외기에 걸터앉아 자살 소동 (의정부지검)
- ▶ 2020. 7.경 ~ 12.경 북한이탈주민인 피의자(35세, 노동)가 필로폰을 수회 투약한 상태에서 동거녀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효자손, 식칼 등으로 마구 때려 폭행·상해 등 난동, 동거녀 자녀에 대해서 원산폭격 자세를 취하게 하고 사타구니에 휴지를 끼운 후ライター로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 (인천지검)
- ▶ 2022. 5.경 LSD를 투약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일면식 없는 시민 4명을 들이받아 중상해를 가하고 건물 벽을 들이받아 손괴함(성남지청)

- ▶ 2022. 7.경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시키고 유사강간 한 이후, 피해자를 오피스텔 감금하여 각종 폭행 및 가혹행위를 가하고 카메라로 음란물을 촬영 (남양주지청)
- ▶ 2022. 11.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전남 광주에서 대구 달성군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대통령 사저 차고지 출입문을 들이받아 손괴(대구서부지청)

### 수사관 살해·상해 사건

- ▶ 1997. 9.경 필로폰 밀매자인 피의자(37세, 무직)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을 몽둥이로 가격하여 전치 8주 상해 (인천지검)
- ▶ 1998. 1.경 대마 밀매자인 피의자(43세, 무직)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칼로 찔러 살해 (춘천지검)
- ▶ 1998. 4.경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인 피의자(40세, 무직)가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을 칼로 찔러 전치 4주 상해 (부산지검)
- ▶ 1998. 10.경 필로폰 밀매자인 피의자(35세, 무직) 등 3명이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 수사관 등 3명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전치 2~12주 (중)상해 (의정부지청)
- ▶ 1999. 1.경 진주지역 필로폰 밀매조직원인 피의자(30세, 무직) 등 3명이 자신을 검거하려던 경찰관을 칼로 찔러 200바늘을 봉합하는 중상해 (진주지청)
- ▶ 2006. 8.경 필로폰 밀매자인 피의자(36세, 무직)가 등산용 칼로 검찰수사관의 양팔과 가슴부위 등을 수회 찔러 양측 주관절부 찰과상 등 상해 (성남지청)
- ▶ 2014. 7.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누범기간 중인 필로폰 소지혐의 피의자(52세, 무직)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검찰수사관 2명을 폭행하여 상해 (대전지검)

- ▶ 2015. 1.경 피의자(54세, 회사원)가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주행 중, 경찰관이 검거하려 하자 범퍼로 경찰관의 무릎 등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경찰관 2명에게 상해 (수원지검)
- ▶ 2015. 10.경 필로폰 약 8g을 소지한 울산지역 폭력조직 '남목파' 조직원인 피의자(43세, 무직)가 체포과정에서 격렬히 저항하던 중 검찰수사관 4명 상해 (의정부지검)
- ▶ 2017. 7.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수 십 킬로미터를 달아나다가 순찰차를 들이 받아 경찰관 2명 상해 (평택지청)
- ▶ 2019. 2. 마약 전과 5회 있는 피의자(45세, 무직)가 인천 부평구에서 차량 운행 중 경찰관으로부터 마약 투약 의심자로 검문을 받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승용차로 경찰관 3명을 들이받고, 그 중 1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 (인천지검)
- ▶ 2020. 2.경 필로폰 174g 및 야바 2,011정 밀수입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약 700m 도주하는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1명 폭행 (의정부지검)
- ▶ 2020. 6.경 야바 160정 밀수입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 약 300m 도주하는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1명 폭행 (대구지검)
- ▶ 2021. 1.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 2명을 칼로 찔러 상해 (의정부지검)
- ▶ 2021. 2. 말경 필로폰을 투약하고 3. 중순경 필로폰을 소지한 채 검거를 시도하는 경찰관을 승용차로 역과한 후 15m 끌고 가 상해 (전주지검)



## 기타(상해·협박·강간·주거침입·폭행·운전·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

- ▶ 2004. 7.경 필로폰 투약 후 누군가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환각에 사로잡힌 피의자(37세, 무직)가 인천 부평구 유흥주점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백미러를 부순 후, 위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승합차의 운전석 창문을 각목으로 때려 부수고, 계속하여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도망가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10주 상해 (인천지검)
- ▶ 2004. 11.경 대구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피의자 2명(44세, 46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 (대구지검)
- ▶ 2005. 6.경 통영시에서 피의자(45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아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 딸의 얼굴을 식칼로 찢러 상해 (통영지청)
- ▶ 2006. 7.경 진주시에서 피의자(25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내연녀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6주 상해, 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며 협박 (남원지청)
- ▶ 2006. 9.경 여수시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41세, 무직)가 환각상태에서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떠도는 포르노 동영상 있는데 너 아니냐.’며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벅지를 그어 상해, 2007. 6.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누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생각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식칼로 약 1시간 동안 전처의 목, 이마, 손목, 발목 등 23곳을 베어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범행중지하여 상해 (순천지청)

- ▶ 2008. 3.경 경기 양주시 OO면 유원지 앞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38세, 무직)가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필로폰이 섞인 생수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강제 추행 (의정부지검)
- ▶ 2009. 10.경 서울 중구 OO모텔에서 피의자(37세, 무직)가 피해자와 함께 수회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환각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여 상해 (서울중앙지검)
- ▶ 2013. 6.경 오산시에서 피의자(45세, 무직)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혐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옥상을 통해 도망치려다 추락하여 사망 (수원지검)
- ▶ 2013. 6.~ 8.경 서울지역 폭력조직 ‘신림동 이글스파’ 조직원 등 5명이 채팅으로 만난 여성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여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시킨 뒤 강간 (서울서부지검)
- ▶ 2014. 12.경 경기도 안양시에서 안양지역 폭력조직 ‘안양타이거파’ 조직원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애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주행하면서, “네가 내 어머니 죽였지”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질주하여 감금하고, 이후 피해자가 주행 중인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에서 좌수 증지열상을 입게 하여 상해 (안양지청)
- ▶ 2015. 1.경 피의자(34세, 기업인)가 졸피뎀을 투약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다른 자동차를 절취하여 도주 (서울중앙지검)
- ▶ 2015. 3.경 필로폰 판매 범죄사실로 수배 중인 피의자(43세, 무직)가 경찰관의 검문검색을 받게 되자 자신이 운전하던 차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충돌하고 도주 (성남지청)
- ▶ 2015. 4.경 피의자들(58세, 택시운전사 / 44세, 무직)이 피해자와 성관계 등을 목적으로 샴페인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여 투약 (서울동부지검)

- ▶ 2015. 5.경 피의자(48세, 무직)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차량 13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추돌 (인천지검)
- ▶ 2015. 5.경 피의자(41세, 무직)가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졸피뎀, 디아제팜을 복용시켜 항거불능상태를 야기한 후 간음하여 상해 (부천시청)
- ▶ 2015. 6.경 부산 광안대교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37세, 무직)가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2km 가량 도주하다 전신주 2개를 충격하여 공공기물 파손 (부산 동부지청)
- ▶ 2015. 8.경 서울 광화문 호텔 실외 수영장에서 피의자들(39세, 22세)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술에 타 피해자 2명에게 먹인 후 강간 (서울 중앙지검)
- ▶ 2015. 11.경 대구지역 폭력조직 ‘향촌동 신파’ 조직원인 피의자(50세)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필로폰 공급자인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칼로 찔러 상해 (대구지검)
- ▶ 2015. 12.경 인천 남구 OO동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42세, 무직)가 환각 상태에서 객실 침대 위에 있던 티슈에 불을 질러 방화, 위 모텔 투숙자인 피해자 1명 사망, 4명 상해 (인천지검)
- ▶ 2016. 5.경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44세, 무직, 마약전력 5회)가 모친이 피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려했다는 이유로 모친의 손가락, 팔 등을 잡아당겨 골절, 타박상 등 상해 (부산동부지청)
- ▶ 2016. 6.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성욕이 발동하자 새벽 시간대에 마트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을 유인·협박하여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 (대구지검)
- ▶ 2016. 9.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인근에 있던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 (청주지검)

- ▶ 2016. 11.경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여 객실을 태우고, 방화 후 객실을 나오던 중 손님과 마주치자 칼을 휘둘러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 (서울동부지검)
- ▶ 2016. 12.경 필로폰을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처에게 흥기를 휘둘러 폭행 (순천지청)
- ▶ 2017. 3.경 일행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모텔에 불을 놓아 다른 호실에서 투숙 중이던 피해자를 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치사 (천안지청)
- ▶ 2017. 4.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43세, 무직)가 환각상태에서 대구 북구 OO 아파트 지하 1층 창문을 통해 옥상까지 올라가 환풍기를 손괴 (대구지검)
- ▶ 2017. 4.경 마약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하고 승용차를 약 40km 운전 하여 질주 (여주지청)
- ▶ 2017. 4.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 급진로 변경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 (전주지검)
- ▶ 2017. 5.경 해수욕장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흥기를 든 채로 사람들을 위협 (부산동부지청)
- ▶ 2017. 5.경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마신 뒤 외손녀를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 (부산동부지청)
- ▶ 2017. 8.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부산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의 목을 커터 칼로 그어 상해를 가하고, 부산 소재 OO시장 부근 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상해 (부산서부지청)
- ▶ 2018. 3.경 강간죄로 보호관찰 중이던 피의자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투약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떼어낸 뒤 도주 (부산지검)

- ▶ 2018. 3.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동거녀가 매춘을 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녀를 골프채와 과도로 폭행, 뇌출혈 등으로 상해 (춘천지검)
- ▶ 2018. 8.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중고등학생 등 승객 수십 명을 태우고 버스를 운전 (춘천지검)
- ▶ 2018. 8.경 필로폰을 투약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터널 앞 도로를 역주행 하던 중,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탑승한 2명을 사망케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게 하여 치상 (속초지청)
- ▶ 2018. 12.경 전 애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 (서울북부지검)
- ▶ 2019. 1.경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치던 피의자들(54세, 도박 벌금 2회 / 60세, 도박 벌금 2회)이 커피에 필로폰을 몰래 타서 피해자에게 먹이고, 이에 사리판별을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부산서부지청)
- ▶ 2019. 6.경 피의자들(46세, 스크린골프장 운영 / 46세, 자영업, 도박 등 전력 5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음료수에 몰래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하는 방법으로 1억여 원 편취 (인천지검)
- ▶ 2019. 5.경 대구 동구 OO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55세, 무직)가 대구 수성구 OO호텔 1층 휴게실 로비에서 20리터 플라스틱 물통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바닥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호텔 내부 시설 소훼 (대구지검)
- ▶ 2019. 8.경 서울 성북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57세, 약사)가 환각상태에서 라이터로 본인의 집 안방 침대에 불을 붙여 방화하고, 이후 알몸 상태에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니며 공연음란 (서울북부지검)

- ▶ 2020. 9.경 대마 흡연 직후 환각상태에 있는 피의자(45세, 건설업)가 000 승용차 운전 중 부산 000구 00역 부근 교차로에서 승용차 2대를 연쇄 충돌 후 시속 113km로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등 차량 4대를 들이받아 피해자 4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 (부산동부지검)
- ▶ 2020. 9.경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피의자(37세, 회사원)가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전OO 등 상선이 개설한 텔레그램 단독방에 업로드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대구지검)
- ▶ 2020. 7.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57세, 무직)가 환각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여 질주 (서울북부지검)
- ▶ 2021. 2.경 피의자(41세)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승용차를 후진하여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폭행, 순찰차 손괴, 현행범인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관 안면부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 (서울북부지검)
- ▶ 2021. 8.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가 환각상태에서 “집에 강도가 들었다”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유리물병을 수차례 휘둘러 협박 (수원지검)
- ▶ 2021. 5. ~ 11. 여성 가사도우미 6명을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졸피뎀을 몰래 섞은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추행을 시도 (인천지검)
- ▶ 2021. 12.경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37세, 폭력조직 조직원)가 환각상태에서 승용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받자 도주하다가 순찰차 5대를 파손 (울산지검)
- ▶ 2022. 1.경 여성 가사도우미 6명을 주거지로 불러 졸피뎀을 섞은 음료를 먹여 잠들게하여 추행 (인천지검)

- 
- ▶ 2022. 1.경 갓 성인이 된 어린 피해자들에게 mdma를 투약시킨 이후 투약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숙소에 감금하고 추행하고 성매매, 음란물 제작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착취함 (인천지검)
  
  - ▶ 2022. 6.경 자신의 장모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시키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안동지청)
  
  - ▶ 2022. 7.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터널 한복판에서 대마초를 흡연하고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두고 도보로 고속도로를 배회 (춘천지검)
  
  - ▶ 2022. 10.경 몽골인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출근 중인 여성 피해자를 따라가다 여성이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이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 (서울서부지검)

# 5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범 현황 분석

2022 마약류 범죄백서

## 1 의의

- ▶ 환각물질 흡입, 취급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범이 향후 마약류사범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범죄현황 분석 필요

## 2 현황분석 대상기간 및 자료

- ▶ 기 간 : 2022. 1. 1. ~ 2022. 12. 31.
- ▶ 자 료 : 검찰통계시스템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관련 사건통계
  - ※ 구성비(%)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3 범죄유형

- ▶ 환각물질 흡입 및 섭취행위 등

### 대상 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 ①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 ② 동 물질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 ③ 부탄가스
- ④ 아산화질소



## 가. 역대 화학물질관리법사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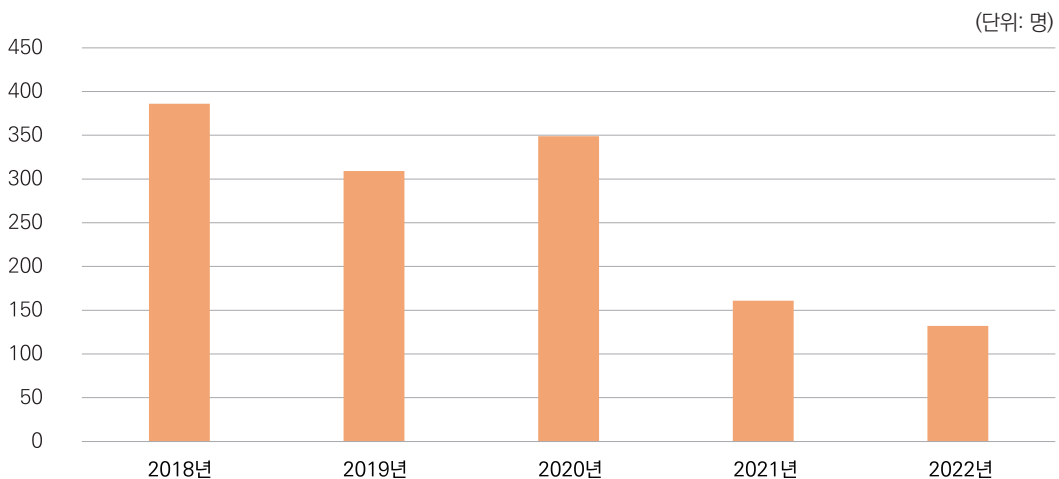
[표 3-72] 연도별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단속 현황

연도별	구분	건수	인원
2018		262	386
2019		226	309
2020		185	349
2021		122	161
2022		81	132

▶ 최근 20~30대 젊은층 사이에서 유흥가·대학가 주변에서 아산화질소 기체를 풍선(일명 '해피벌룬')에 넣어 흡입하는 사례가 급속 확산됨에 따라, 2017. 8.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규정하고 '본드(톨루엔 성분 포함)' 흡입 등과 동일하게 처벌함

▶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은 나, 2021년도에는 161명으로 급감한 이후 2022년에는 전년(161명) 대비 33.6% 감소

[그림 3-40]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도별 단속인원



## 나. 지역별 현황

[표 3-73]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지역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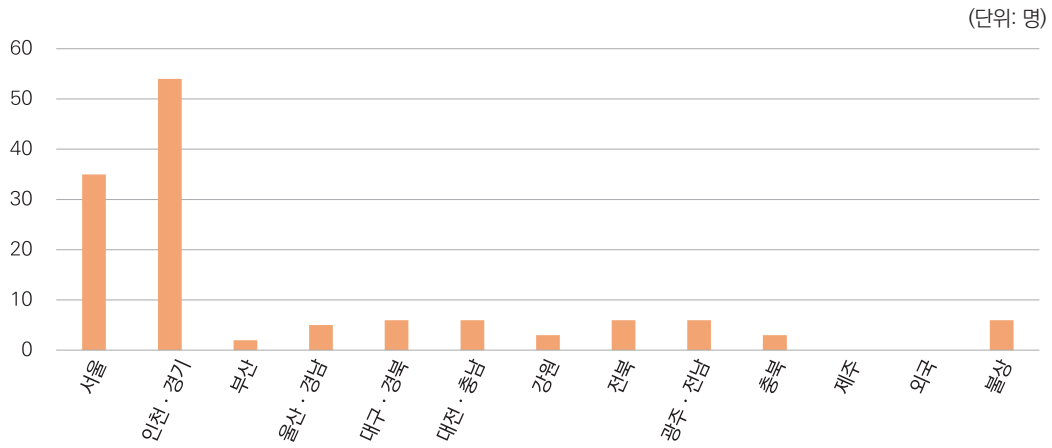
지역별	연도별	2020	2021	2022
합계		349	161	132
		(100)	(100)	(100)
서울		139	63	35
		(39.8)	(39.1)	(26.5)
인천·경기		131	65	54
		(37.5)	(40.4)	(40.9)
부산		16	4	2
		(4.6)	(2.5)	(1.5)
울산·경남		6	2	5
		(1.7)	(1.2)	(3.8)
대구·경북		9	2	6
		(2.6)	(1.2)	(4.5)
대전·충남		6	2	6
		(1.7)	(1.2)	(4.5)
강원		6	1	3
		(1.7)	(0.6)	(2.3)
전북		2	0	6
		(0.6)	(0.0)	(4.5)
광주·전남		14	12	6
		(4.0)	(7.5)	(4.5)
충북		3	1	3
		(0.9)	(0.6)	(2.3)
제주		1	1	0
		(0.3)	(0.6)	(0.0)
외국		0	0	0
		(0.0)	(0.0)	(0.0)
불상		16	8	6
		(4.6)	(5.0)	(4.5)

※ ( )는 구성비 %

### ▶ 2022년 지역별 점유율은

- 인천·경기(40.9%) > 서울(26.5%)순으로, 전체 사범의 77.4%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음

[그림 3-41] 환각물질 흡입사범 지역별 현황



## 다. 직업별 현황

[표 3-74]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직업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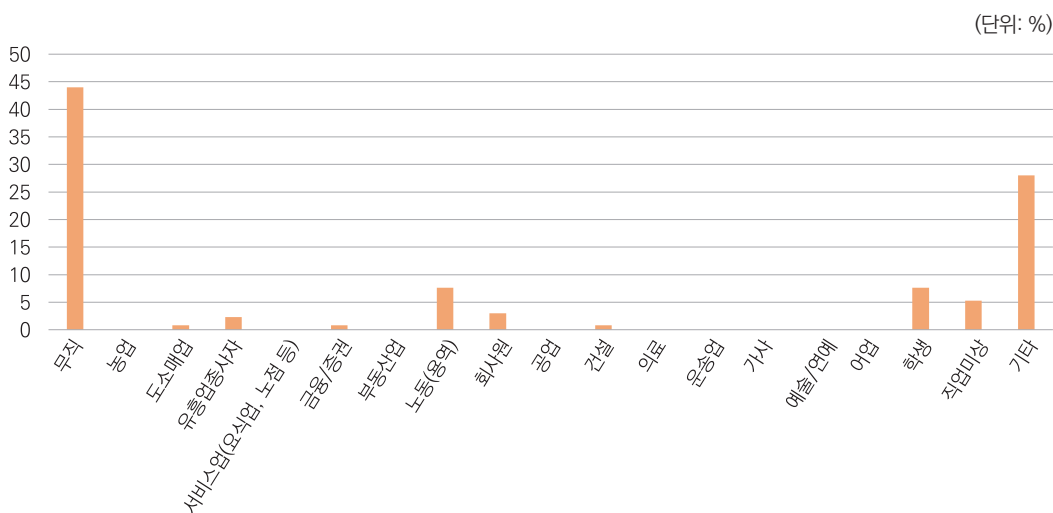
직업별	연도별		
	2019	2020	2021
합계	349 (100)	161 (100)	132 (100)
무직	166 (47.6)	71 (44.1)	58 (44.0)
농업	0 (0.0)	0 (0.0)	0 (0.0)
도소매업	1 (0.3)	0 (0.0)	1 (0.8)
유흥업종사자	8 (2.3)	1 (0.6)	3 (2.3)
서비스업 (요식업, 노점 등)	2 (0.6)	1 (0.6)	0 (0.0)
금융/증권	1 (0.3)	0 (0.0)	1 (0.8)
부동산업	0 (0.0)	0 (0.0)	0 (0.0)
노동 (용역)	10 (2.9)	9 (5.6)	10 (7.6)
회사원	9 (2.6)	5 (3.1)	4 (3.0)

직업별	연도별	2019	2020	2021
	공업		0 (0.0)	1 (0.6)
건설		3 (0.9)	1 (0.6)	1 (0.8)
의료		2 (0.6)	1 (0.6)	0 (0.0)
운송업		1 (0.3)	0 (0.0)	0 (0.0)
가사		0 (0.0)	1 (0.6)	0 (0.0)
예술/연예		0 (0.0)	0 (0.0)	0 (0.0)
어업		0 (0.0)	0 (0.0)	0 (0.0)
학생		23 (6.6)	9 (5.6)	10 (7.6)
직업미상		15 (4.3)	11 (6.8)	7 (5.3)
기타		108 (30.9)	50 (31.1)	37 (28.0)

※ ( )는 구성비%

- ▶ 2021년 환각물질 흡입사범의 직업별 점유율은 무직(44.1%), 학생(5.6%)·노동(5.6%), 회사원(3.1%)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2] 환각물질 흡입사범 직업별 현황



## 라. 연령별 현황

[표 3-75]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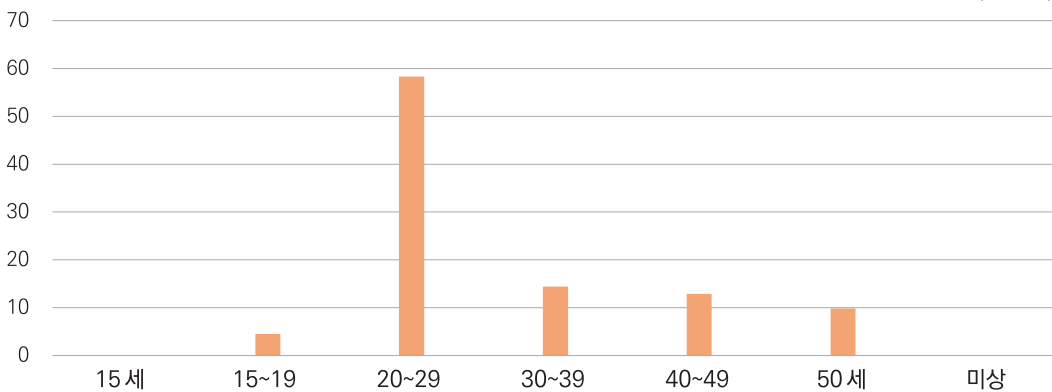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연령별							
	15세 미만	15~19	20~29	30~39	40~49	50세 이상	미상	합계
2018	20	93	147	66	43	17	0	386
	(5.2)	(24.1)	(38.1)	(17.1)	(11.1)	(4.4)	(0.0)	(100)
2019	5	50	143	43	54	9	5	309
	(1.6)	(16.2)	(46.3)	(13.9)	(17.5)	(2.9)	(1.6)	(100)
2020	2	29	202	56	44	10	6	349
	(0.6)	(8.3)	(57.9)	(16.0)	(12.6)	(2.9)	(1.7)	(100)
2021	0	12	83	26	24	15	1	161
	(0.0)	(7.5)	(51.6)	(16.1)	(14.9)	(9.3)	(0.6)	(100)
2022	0	6	77	19	17	13	0	132
	(0.0)	(4.5)	(58.3)	(14.4)	(12.9)	(9.8)	(0.0)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43]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



## 마. 성별 현황

[표 3-76]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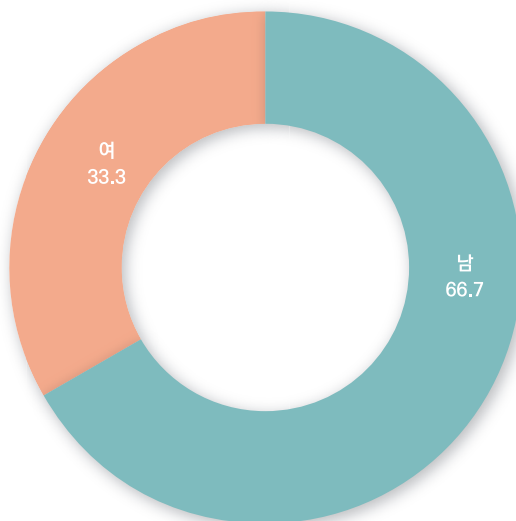
연도	성별	남	여	합계
2018		244	142	386
		(63.2)	(36.8)	(100)
2019		204	105	309
		(66.0)	(34.0)	(100)
2020		206	143	349
		(59.0)	(41.0)	(100)
2021		107	54	161
		(66.5)	(33.5)	(100)
2022		88	44	132
		(66.7)	(33.3)	(100)

※ ( )는 구성비 %

- ▶ 전체 환각물질 흡입사범 중 남성이 66.5%, 여성이 33.5%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3-44] 환각물질 흡입사범 성별 현황

(단위: %)



## 바. 검찰 처리 현황

[표 3-77]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검찰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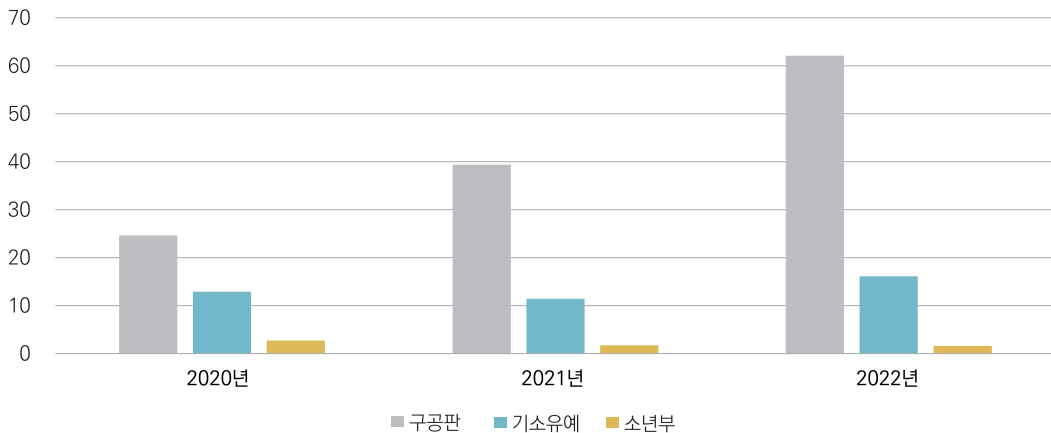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처리내역										합계
	구공판	구약식	무혐의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소년부	타관	보완 수사	기타	미제	
2018	134 (32.4)	49 (11.8)	42 (10.1)	50 (12.1)	8 (1.9)	52 (12.6)	41 (9.9)	-	1 (0.2)	37 (8.9)	414 (100)
2019	195 (36.3)	60 (11.2)	31 (5.8)	109 (20.3)	4 (0.7)	40 (7.4)	52 (9.7)	-	3 (0.6)	43 (8.0)	537 (100)
2020	118 (24.6)	44 (9.2)	47 (9.8)	62 (12.9)	9 (1.9)	13 (2.7)	27 (5.6)	-	18 (3.8)	142 (29.6)	480 (100)
2021	138 (39.4)	39 (11.1)	4 (1.1)	40 (11.4)	0 (0.0)	6 (1.7)	18 (5.1)	89 (25.4)	2 (0.6)	14 (4.0)	350 (100)
2022	77 (62.1)	15 (12.1)	0 (0.0)	20 (16.1)	0 (0.0)	2 (1.6)	9 (7.3)	0 (0.0)	0 (0.0)	1 (0.8)	124 (100)

※ ( )는 구성비 %

[그림 3-45] 환각물질 흡입사범 검찰 처리현황

(단위: %)



## 사. 1심 재판결과

[표 3-78]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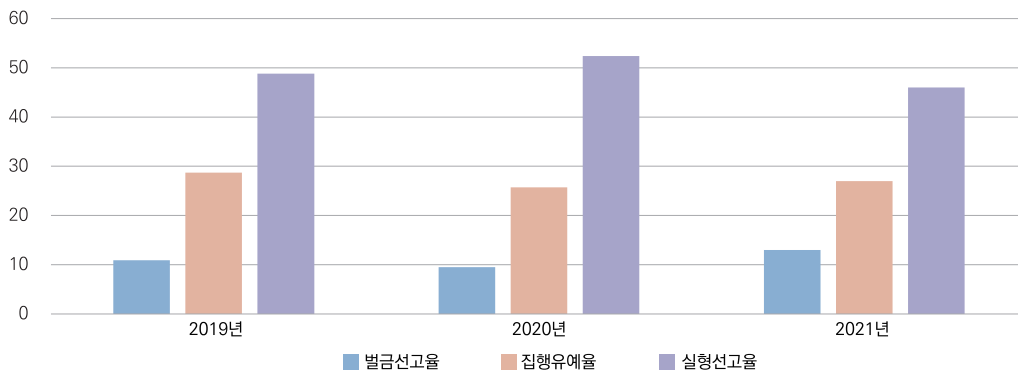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구분	벌금	집행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기타
2018		7	19	31	37	0	0	0	0	7
		(6.9)	(18.8)	(30.7)	(36.7)	(0.0)	(0.0)	(0.0)	(0.0)	(6.9)
2019		14	37	24	39	0	0	0	0	15
		(10.9)	(28.7)	(18.6)	(30.2)	(0.0)	(0.0)	(0.0)	(0.0)	(11.6)
2020		10	27	25	29	1	0	0	0	13
		(9.5)	(25.7)	(23.8)	(27.6)	(1.0)	(0.0)	(0.0)	(0.0)	(12.4)
2021		13	27	17	29	0	0	0	0	14
		(13.0)	(27.0)	(17.0)	(29.0)	(0.0)	(0.0)	(0.0)	(0.0)	(14.0)
2022		5	14	15	34	0	0	0	0	13
		(6.2)	(17.3)	(18.5)	(42.0)	(0.0)	(0.0)	(0.0)	(0.0)	(16.0)

※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46] 환각물질 흡입사범 1심 재판결과 추이

(단위: %)





## 아.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표 3-79]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약식명령 금액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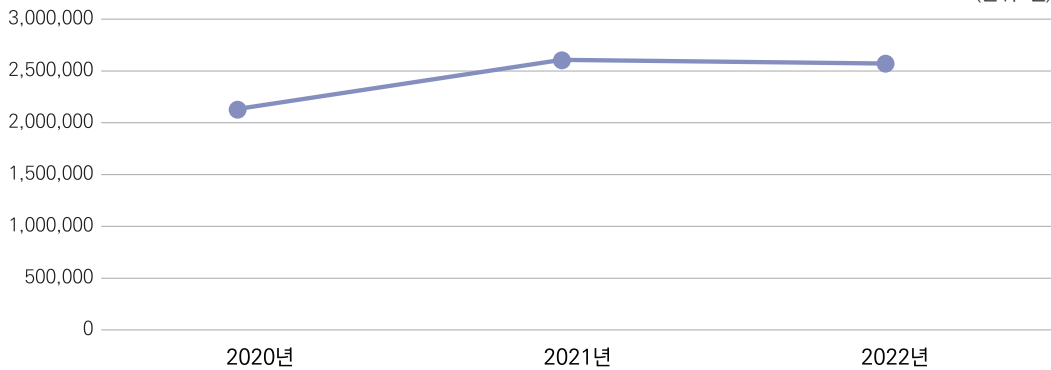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 금액별	3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상	평균 (단위:원)
2020	0	0	9	19	0	0	2,132,143
2021	0	0	4	9	1	0	2,607,143
2022	0	0	2	5	0	0	2,571,429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그림 3-47] 환각물질 흡입사범 약식명령 평균금액

(단위: 원)



## 자. 실형자 · 집행유예자의 형기평균

[표 3-80]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실형자 · 집행유예자 형기평균 분포

(단위: 월)

연도별 \ 구분	실형자 (형기)	집행유예자 (유예형기)
2020	16.7	27.3
2021	17.2	26.8
2022	11.7	24.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차. 집행유예자의 유예기간별 구성비율

[표 3-81] 환각물질 흡입사범 등 집행유예기간별 분포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2020	0 (0.0)	0 (0.0)	8 (72.7)	3 (27.3)	0 (0.0)	11 (100)
2021	0 (0.0)	3 (23.1)	5 (38.5)	5 (38.5)	0 (0.0)	13 (100)
2022	0 (0.0)	0 (0.0)	3 (100)	0 (0.0)	0 (0.0)	3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 카. 실형자의 형기별 구성비율

[표 3-82]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형기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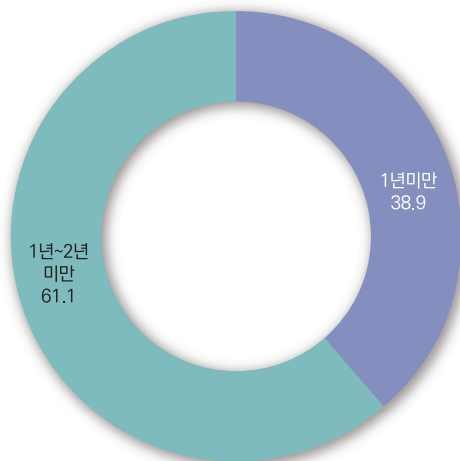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별 \ 기간별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2020	6 (31.6)	10 (52.6)	2 (10.5)	0 (0.0)	1 (5.3)	19 (100)
2021	8 (26.7)	16 (53.3)	4 (13.3)	1 (3.3)	1 (3.3)	30 (100)
2022	7 (38.9)	11 (61.1)	0 (0.0)	0 (0.0)	0 (0.0)	18 (100)

※ 연도별 사건접수일 기준 통계임, ( )는 구성비 %

[그림 3-48] 환각물질 흡입사범 실형기간별 구성비

(단위: %)



### 본드, 아산화질소 흡입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범 감소

- ▶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도 430명 아래로 떨어진 다음 2019년도 309명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이었다가 2020년도에 349명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1년도 161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2022년도도 132명을 기록함
- ▶ 2019년경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 흡입이 클럽, 가정집 등지에서 유행처럼 번져 2020년경까지 아산화질소 흡입 사범이 증가하였으나, 2017. 8. 1.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2021. 1. 1.부터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정책이 유효하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 6

## 향후 대책

## 가. 환각물질흡입 폐해 홍보 및 예방활동 강화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홍보 등 다각적인 예방활동 전개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추진

## 나. 환각물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필요

- ▶ 지자체 등은 중소형 마트, 철물점, 페인트가게, 문구점 등을 대상으로 본드, 니스,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 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토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 필요

## 다. 신종 환각물질의 유통 및 확산 방지

- ▶ 아산화질소 가스를 지속적으로 흡입할 경우 수십 초의 짧은 쾌락 뒤에 신체 마비증상 등 평생 회복되지 않는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음
- ▶ 이처럼 그 부작용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이 새롭게 유행을 할 경우 발생할 악영향을 예측할 수도 없기에 재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중 단속 등 노력 필요